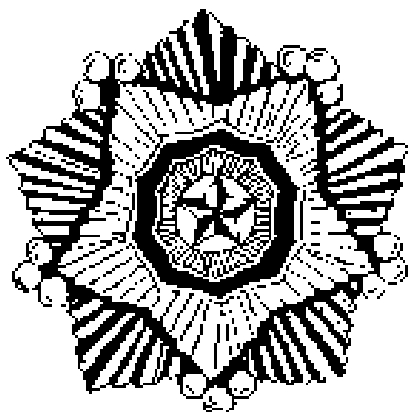




12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4)년 제12호

(루계 제686호)

◆◆◆◆◆◆◆◆◆◆ 차 례 ◆◆◆◆◆◆◆◆◆◆

전선길의 아침	3
최고사령관기 오른다	3
12월의 흰눈송이	4
조선의 하늘님	5
문수봉기슭에서	11
명언해설	21
철령에 산다.....	22
그 사랑의 한끝은.....	23
백두의 푸른 버들.....	23
나는 축복이를 봅니다.....	24
위대한 공헌.....	25
김정숙어머님 모습.....	25
주작봉마루의 이름들	26
오늘도 전호가에 마음을 얹고 산다	26
선녀들을 부른다	27
집	28
나의 《군인선서》	37
흰눈우에 엮어보는 생각	38
어머님의 미소 (외1편).....	40
어머님과 우리 세월	40

나는 선군시대 어머니가 되었다.....	41
소가 새김질을 하듯	42
선군은 사랑이었다.....	42
고말산의 총소리	43
대동강반에서.....	44
새들은 날아가는데(외1편).....	45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	45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적현실을 반영한 해방전 김조규의 시.....	46
민족의 넋이 높뛰는 애국의 《종소리》	50
난알의 무게를 두고	54
끝나지 않은 결산.....	56
장군님 마음속 가까이에는.....	58
생활의 단면을 통해 밝혀진 의의있는 문제성	59
소 생	62
고구려왕자 호동과 락랑공주.....	69
다각적묘사시점과 선군시대 전형적성격창조	76
피눈물진 가락지	78
사진을 찍자.....	79
전국문학축전 입선작품.....	80

전선길의 아침

림공식

하늘가 저 멀리
아름다운 노을을 피워올리며
새날의 해가 솟는
전선길의 이른 아침

길가의 풀잎에 맺힌 맑은 이슬은
눈부신 해빛에 보석처럼 빛나고
손저어 부르는듯 미풍에 설레이는
수려한 산발들은 한쪽의 그림갈네

이 아침
최전연으로 가시던
우리 장군님
산천경개에 심취되신듯
천천히 야전차에서 내리시여
울창한 수림우에 정겨운 시선을 얹으시며
밝은 미소를 지으시여라

그윽히 풍겨오는
청신하고 달디단 숲의 향기
노래처럼 들려오는 산새들의 유정한 소리
이산저산에서 화답하듯 울리는
구성진 뻐꾹새노래

불수룩
얼마나 마음 끌리는 절승경개인가
들을수록
그 얼마나 가슴찌릿한
이 땅의 희열넘친 아침정서인가

허나 지금 이 시각
저기 구름너머에서는
사회주의 우리 조선을 집어삼키려
피에 주린 원썬들이
핵전쟁준비로 미쳐날뛰는
준엄한 시간이 흐르고있건만

아시는듯
잊으신듯
선군의 나날에 더 무성해지고
한껏 숲의 음향이 가득찬
푸른 산발을 오래도록 부감하시며
기쁘시여 환한 웃음을 날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비범한 예지
담대한 배짱으로
전선길에 펼치시는 야전식산책
그것은 또다시 이 강산에 새겨지는
위대한 백승의 자욱이 아니라

아아 또 하루
우리 장군님의 철의 억센 심장으로
내 조국의 행복이 지켜지는 아침이여
천출명장의 그 태양같은 미소속에
밀려 오는 전쟁의 불구름이 산산이 흩날려가는
환희로운 전선의 아침이여!

최고사령관기 오른다

윤정길

푸른 하늘 해빛부신 창공에
서서히 오르는 기발
원수벌 빛나는 최고사령관기 우러러
받들어 충!
병사들의 가슴에 차오르는 환희여

펼럭이는 저 기폭에 어려있어라
승리를 펼쳐온 영광의 나날들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지켜
선군으로 빛내여온 투쟁의 자욱들이

엄혹한 시련과 고난의 난파도우에
백승의 항로를 열어온 기치여
행성우에 덮쳐든 암흑을 가시며
진리의 불길로 타오른 기치여

오, 12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력사의 그날이 있어
선군승리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나니

나뭇기라 최고사령관기여
이 기발 날리어
조국강산에 아침해가 그리도 찬란하고
그 기폭에 휩싸여
인민의 삶 그리도 벅찬것 아니더냐

최고사령관기 휘날려
이 땅엔 불비가 내리지 못한다
원수별 빛을 뿌려
우리의 미래는 행복으로 넘친다

영광넘쳐라
위대한 선군령장의 병사

우리의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선군세월로 부르는 그 모든 날들이
저 기치아래 빛나리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이
최고사령관기 기폭우에 눈부서라
선군의 위대한 승리가
그 기폭우에 약속되어있어라

아, 백두의 기상이 어린
최고사령관기 오른다
만년부강할 선군조국의 기상을 안고
영원무궁할 우리 삶의 긍지를 알리며

12월의 흰눈송이

문동식

눈이 내린다 흰눈이
송이송이 춤추며
백두의 천출명장 우리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던 그날에도
내리던 눈송이 순결한 흰눈송이

두손을 펴고 정답게 받아보는
눈송이마다엔 어려있구나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타고나신
그이를 우러러 두팔을 쳐들고
목청을 터치던 그날의 환호가

깃들어있구나
백살구꽃잎같은 눈송이마다엔
수령님 펼쳐주신 맑고 푸른 하늘
무궁토록 안고 살 그 기쁨에
사람마다 피워가던 그날의 웃음꽃이

인민의 하늘같은 믿음이 가득 실린
그 눈꽃송이 마음속에 안으시고
숫눈길 진펄길 사나운 배길
병사들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령장의 자욱 새겨가신 장군님

그이의 품이 하늘이 되어
고요히 내리고내리는것이나
모진 광풍이 이 땅에 불어와도
때묻지 않는 햇솜같은 눈송이는
그이 사랑의 뜨거운 불덩이

창창하게 열리는 미래를 안고
우리 장군님을 받들어모시던
12월 그날의 축원의 흰눈송이
그 송이송이를 꽃보라로
인민의 머리우에 뿌려주시는 장군님

그이께 드리는 인민의 충정이
인민에게 주시는 그이의 축복이
함뼉 실려 내리는 12월의 눈송이는
천하제일명장의 품에 안겨 꽃피나는
우리 민족의 만복의 꽃송이

아, 눈이 내리누나
12월 24일 뜻깊은 이날에
선군태양이 인민에게 주시는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환희를
끝없이 속삭이며
끝없이 노래하며

조선의 하늘님

우리 나라 도처에서 수많은 발굴된 구호문헌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문헌들도 있다.

《**김일성**령수는 조선의 하늘님. 2천만 일심으로 김대장 받들자.》

《김대장은 천출명장 하늘이 낸 장수.》

조선의 하늘님, 하늘이 낸 장수.

인류가 아직은 변화무쌍한 자연의 조화를 알수 없었고 그 불가항력적인 거대한 힘과 광란적인 횡포에 감히 맞설만 한 능력이 없었던 탓으로 《하늘님》과 같은 상상의 신적존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전지전능》과 《대자대비》의 신빙성과 우상화를 덧붙여서 이 세상 천지조화와 인간의 길흉화복이 전적으로 그 《하늘님》에게 달린듯이 믿게 된 절대만능의 거룩한 존재!

어찌하여 인류가 그렇게도 오랜 세월 구세주처럼 숭상하여왔고 또 지금까지도 적지 않게 숭상하고있는 자비만능의 최고존재-《하늘님》을 뒤전에 밀어놓고 **김일성**장군님을 《하늘님》으로 숭앙칭송하게 되였는가? 그 까닭을 물어서 무엇이랴!

《이민위천》, 《민거백승》의 송고한 뜻을 안으시고 만민을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그이의 사랑은 하느님의 《대자대비》를 무색케 했으며 일제의 백만대군을 줄안에 넣고 쥐락펴락하신 천하무비의 지략과 탁월한 통찰력으로 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시는 그이의 선견지명은 하느님의 《전지전능》을 뛰어넘어 세상천지를 경탄케 하였으니 어찌 **김일성**장군님을 《하늘님》으로 우러러 흠모하지 않을수 있으며 나라의 해방성업과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항일혁명투쟁시기 압록강, 두만강일대와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김일성**장군님을 《조선의 하늘님》으로 높이 칭송하는 전설들이 많이 퍼져서 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그중의 하나를 아래에 소개한다.

1930년대말이었다고 한다.

그때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에 나오시어 전민항쟁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가고 계시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무엇보다도 두려

워하던 일제는 범본 놈 창구멍 틀어막듯 도처에 경비진을 치는 한편 압록강, 두만강의 얼음을 까는 놀음까지 벌렸다.

이것은 가소로운 《천황》의 시종무관이란자가 조만국경일대를 《시찰》한것과 때를 같이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몹시 두려워한 《천황》은 자기의 시종무관을 보내서 조만국경일대의 경비상태를 3일동안이나 시찰하게 하였다.

《천황》의 《칙지》를 받은 시종무관은 국경일대를 싸다니면서 《실패》를 료해한 다음 경비인원들을 모아놓고 《천황》의 뜻도 전달하고 그들 부부가 보내는 《하사품》도 내주었다.

《천황》의 《은총》을 받아안은 경비병들은 감지덕지하여 《천황폐하 만세》를 미친듯이 웨쳤다. 그리고는 일본도를 추켜들고 그 《은총》에 보답할것을 《맹약》하였다.

일제는 곧 국경연선에 병력을 증강하고 초소와 포대들을 늘였으며 순찰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얼어붙은 강을 건너 국내로 스며드는 유격대를 막을수가 없었다.

철조망을 아무리 겹치고 또 겹쳐놓는다 해도 바람을 막을수는 없는것이고 그물코를 제아무리 좁혀도 새는 물을 막을수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머리통을 싸매고 기껏 찾아냈다는 《묘방》이라는게 백성들을 동원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의 얼음을 까는것이였다.

이것이야말로 칼로 물베기요 몽둥이로 바람때리기였다.

수백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온종일 얼음을 깨뜨려놓으면 밤사이에 강물은 다시 얼어붙고말았다.

하지만 수비대놈들은 다른 뽕족한 수가 없는데다가 인민들의 고생쯤은 쥐고뿔만큼도 여기지 않았기때문에 얼음까는 놀음을 그치지 않았다.

강 량쪽 대안의 사람들이 몽땅 동원되어 장사진을 이루고 도끼로 얼음을 깎았다.

하지만 어찌 그 장강의 얼음을 다 깎수 있겠는가?

일제는 끝머리를 앓다가 얼음장밑에서 폭약을

터뜨려 얼음을 깨뜨릴 궁리를 하였다.

수비대놈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얼음판에 구멍을 낸 다음 폭약을 일제히 던져넣어 폭발시켰다. 강물이 뒤집히고 얼음이 산산이 깨졌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신통한 방법이 못되었다.

깨진 얼음장들은 물위에 떠서 서로 부딪치며 흔들거리다가 곧 얼어붙고말았기때문이었다.

왜놈들은 이번에는 인민들을 내몰아 깨진 얼음장들을 건져내게 하였다.

수백명의 인민들은 미끄러운 얼음판위를 벌벌 기어다니면서 길다란 장대기로 위태롭게 얼음장을 건져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이 사람들속에 우덕근이라는 로인도 있었다.

그는 장대기로 얼음장들을 끄당기다가도 발밑의 얼음판이 쟁- 하고 바스라지는 소리를 내면 당장 물속에 빠져들어가는것만 같아서 폴짝 주저앉곤 하였다. 우덕근은 그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가슴에 십자를 긋고는 《하느님아버지이시여 굽어보살피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60살이 다된 몸으로 이런 고역에 끌려나온 그는 죽지 못해 일하였다.

아들이 집에 있었으면 이런 일에는 자기가 나오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지금 아들은 왜놈들의 짐을 지고 백두산쪽에 가있었다.

《망할놈같으니... 하느님을 노엽히더니 천벌을 받아 싸지.》

우덕근은 생각만 해도 패씹한듯 아들을 나무랐다.

그러면서도 그가 무사하기를 하느님께 빌었다.

사흘전이었다. 독실한 신자인 우덕근은 온 집안 식구들을 레배당으로 들몰아댔다.

그런데 아들 상철이가 시뻘뻘해서 일어설념을 안했다.

《빌어먹을... 하느님인지 뭔지 있거나 하는걸이 야단입니까? 지금까지 레배당에 찾아다니면서 하느님한테 <복을 줍시사.> 하구 빌었지만 덕을 본게 뭘니까?》

《에끼 이 녀석. 무슨 불손한 망발이냐? 그래도 우리 집이 큰 재난은 당하지 않고 지금만큼 사는 것도 하느님 덕인줄이나 알아라.》

《흥, 그래서 두번씩이나 왜놈들의 《토벌》에 집을 불태우구 소, 돼지, 닭을 다 빼앗겼겠수다?》

상철이는 별소리를 다한다는듯 대답질이였다.

《이놈아, 하느님이 듣겠다. 제발 수작질을 말아라.》

우덕근은 하늘에서 하느님이 내려다보기라도 하는 듯이 힐끗 하늘을 쳐다보고는 또 기도를 드렸다.

《대자대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아버지이시여, 제 아들놈이 아직 철이 없고 무지몽매하여 그런것이오니 부디 용서해주옵소서.》

이때 어데서 큰 발파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지진이라도 일었는지 꾸롱꾸롱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었다.

우덕근로인은 겁먹은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며 또 빌었다.

《아버진 왜 자꾸 그러니까? 하늘에 빈다구 피살한되박이라도 생긴답니까? 하느님이라는건 다 꾸며낸거랍니다.》

상철은 아버지가 노는양이 보기가 민망스러운듯 말했다.

《이놈아, 그렇게 자꾸 하느님을 노엽히는 망발만 하다가는 천벌을 받는다.》

우덕근은 애가 타는듯 아들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

아들녀석은 훌쩍 뛰쳐달아나며 투덜거렸다.

《흥, 천벌은 무슨 천벌... 하느님이 천벌을 내리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

바로 이때였다. 밖에서 누군가가 대문이 바스라지라 쿵쿵 두드렸다.

《문 열어라!》

거치른 호령소리였다. 우덕근은 마치도 하느님이 노하여 아들을 잡으러 온듯 한 착각이 들어서 오금이 일시에 녹아내리는듯 했다. 그래도 아들놈은 배심 좋게 코방귀질이다.

《흥, 이건 도대체 어떤 놈이 남의 집 문짝을 이렇게 두드리는거야?》

우상철은 더 짜증이 나는듯 투덜거리며 대문가로 다가가서 빗장을 벗겼다.

순간 총을 멘 왜놈군대 두놈이 털모자를 쓴 대가리부터 쑥 들이밀며 들어왔다.

《네놈이 우상철인가?》

왜놈군대가 우상철을 흘겨보며 물었다.

우덕근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 애비 모르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잡으러 왔단말인가.

그는 또 하느님께 빌었다.

《가자, 네놈은 우리 황군의 집을 지구 백두산으로 가게 됐다. 유격대를 <토벌> 하러 간다.》 왜놈은 상철이를 총끝으로 떠 밀었다.

《가만 있소. 갈 땐 가더래두 숨웃이야 걸치구가야 할게 아니겠소?》

우상철은 방안으로 들어갔다.

덕근은 황황히 뒤따라 들어와서 아들한테 자기의 덩저고리를 입혀주었다.

《이 녀석아, 하늘님을 노엽혔으니 이런 벼락이 떨어지지? 집을 지구 따라가면 분명 유격대하구 불을판인데 그 총알소나기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기를 바라겠느냐? 그저 하늘님께 빌수밖에 없느니라. 가면서도 빌구 쉬면서도 빌구... 그저 빌어라 그러면 대자대비하신 하늘님이 보살펴 줄게다.》

《참, 아버지두...》

우상철은 이 순간에까지 엇드레질을 할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걱정마십시오. 무사할겁니다.》

우상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덕근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유격대의 총알은 왜놈들만 골라서 맞힌다고는 하지만 혹시 알겠는가. 그리고 왜놈들은 인민들을 총알받이로 앞에 세우고 내몰다가는 수틀리면 마구 쏘갈진다지 않는가. 왜놈들의 집을 지고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유격대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는가.

상철이가 기도를 드릴리 만무였다. 이를 어쩌면 좋을고... 그는 행여나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만이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상철이가 《토벌대》 놈들의 집을 지고 백두산 쪽으로 간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이번엔 경찰서에서 쏘어나오더니 얼음까기에 나오라고 사람들을 끌어내는것이 아닌가.

자기네 집에서는 아들이 《토벌대》의 집을 지고갔으니 썸에 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럴수록 더 열성적으로 나가야 한다. 얼음을 까서 유격대가 건너다니지 못하게 해야 아들도 무사할게 아닌가.》고 무작정 끝어냈다.

그리하여 우덕근은 하는수 없이 이렇게 얼음까기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것이다. 그는 얼음장우를 기여다니며 장대기로 얼음덩이들을 끌어내면서도 이따금씩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

를 드렸다.

《하느님 아버지이시여! 제발 굽어보살펴주옵소서.》

《형님은 또 하늘님 소릴니까? 손이 닳도록 밟았댔자 무슨 자비를 베풀니까?》

이웃집 박근배가 보다 못해 한마디 통을 놓았다.

《어허, 자네 꼭 우리 아들녀석 말하듯 하네그려. 우리 상철이 녀석이 하느님을 노엽히더니 <토벌대> 놈들한테 끌려간걸 보게. 분별없이 입방아를 찧다가는 자네도 천벌을 받구 강물에 처박히지 않나 두고 보게.》

우덕근은 아예 그런 소릴랑 말라고 오금을 박았다.

《허허... 상철이를 끌어간거야 왜놈들이지 어디 하느님이시유?》

《모르면 가만 있게. 그 녀석이 하느님이 어찌니 저찌니 하며 불손한 수작질을 하는 때에 <토벌대> 놈들이 들이 닥쳤어.》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겁니다. 공교롭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거지 하느님이 무슨 말라빠진 하느님입니까?》

박근배는 그따위 소리는 선교사놈들이 지어낸 소리라고까지 했다.

《내앞에서 정 그따위 수작질을 할텐가? 하느님을 노엽히는 그따위 불손무엄한 수작을 하겠거든 저기 판데루 가서나 하게 하느님이 벼락을 내리면 남들까지 화를 입지 않게...》

우덕근은 화를 벌컥 냈다.

바로 이때였다. 압록강 웃쪽 어데선가 요란한 폭음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덕근은 낮이 파랗게 질려서 굳어졌다.

《무슨 소리긴...또 얼음장밑에다 남포를 터뜨리는거겠지...》

박근배는 시들하게 대답하며 얼음덩이들을 견져내는데만 신경을 썼다.

그때 우덕근이 불에 덴듯 놀라며 소리쳤다.

《저게 뭐야?》

그와 동시에 강 웃쪽에서 《물동이 터졌다.》하는 아우성이 일었다.

그 웨침소리와 때를 같이 하여 천군만마가 휘몰아 오는듯 한 평음이 우뢰쳐오고 산갈은 물사태가 물려왔다.

휘익- 찬바람을 몰아오며 질풍같이 밀려오는

물사태는 얼음우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눈깜짝할 사이에 휩쓸어버렸다.

《사람 살리오!》 아우성이 터졌다. 온 강반에 악마구리 뿜듯 하는 아비규환의 지옥이 펼쳐졌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허우적거렸다. 손에 잡히는 대로 얼음장들에 매달렸지만 그것들은 사람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여 물속에 잠겨들곤 하였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음의 문턱에서 아우성을 쳤지만 일을 감독하던 왜놈들은 꼬물만 큼도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참이나 허우적거리던 우덕근과 박근배는 공교롭게도 노전만 한 얼음장에 마주 붙었다.

자꾸 미끄러지는 얼음장에 턱을 걸고 겨우 물밖으로 머리를 내민 두사람은 한동안이나 지나서야 상대방을 알아보았다.

《덕근형님! 살아있었구려!》

박근배가 먼저 알아보고 소리를 쳤다. 아니 소리쳤다가보다 중얼거렸다.

《자네 근배로구만!》

우덕근도 첫 순간은 기뻐하더니 제정신이 들자 불찌라도 떨어질듯 노한 눈으로 근배를 쏘아보았다.

《내 뭐라든가? 하느님을 노엽히면 천벌을 받는다고 그랬지? 이게 다 자네가 허바닥을 잘못 놀려서 하느님이 내린 날벼락이야...》

우덕근은 이 물사태가 틀림없이 박근배가 하느님을 노엽힌 까닭에 내려진 천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근배를 증오해 찬 눈으로 쏘아보았던것이다.

박근배가 중얼거렸다.

《난 그렇다치구 형님이야 왜 벼락을 맞수? 형님이야 하느님을 믿는데...》

우덕근이 화를 냈다.

《그러게 이렇게 얼음장이라도 붙잡게 되질 않았다.》

《헛참, 그 하느님 린색도 하구만...》

그러나 이것은 얼음을 한꺼번에 깨뜨려버리려고 왜놈들이 강웃쪽에서 동쪽을 터뜨려놓았기때문이었다.

이런 내막을 알수 없었던 박근배는 이 마당에서 더할 말이 없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이여서 우덕근의 말을 더 반박하고싶지도 않았던것이다.

물사태는 아직도 얼음장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 물갈기에 휘몰아 내동댕이치

기도 하고 땡이 돌리듯 뱀을 돌리기도 하고 세차게 떠박질러서 덩굴게 하기도 하면서 미친듯이 내달렸다. 게다가 살을 에이는듯 한 찬바람은 기승을 부리며 눈가루들을 몰아오고 송곳처럼 찌르는 추위는 물에 젖은 사람들을 사정없이 얼구었다.

머리카락에는 고드름이 엉켜붙고 젖은 옷은 소가 죽처럼 찢겨헤졌다 얼음장에 매달린 손은 벌써 감각을 잃었고 사지는 까드라들었다. 이제는 정신마저 가물가물해지고 숨결까지 가빠져서 그들은 살아날 희망을 아주 잃고말았다.

우덕근은 입술을 겨우 놀리면서 원망이 어린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하느님이 정말 우리를 다 죽이려는구나.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바로 이때였다. 백두산쪽에서 때아니게 오색채운 한덩이가 떠오르더니 사람들쪽으로 매우 빨리 이동해왔다.

사람들의 머리위에 이른 오색채운에서는 난데없는 가독잎들이 날아내리더니 그것들은 곧 작은 매생이들로 변해서 사람들곁으로 떠왔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뉘적뉘적 태우더니 기슭으로 실어갔다.

사람들을 태운 매생이들은 어떤 일인지 온돌방처럼 따뜻해서 온몸이 인차 녹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꿈뽕 얼었던 몸이 녹고 옷까지 마르자 죽을번한게 언제냐는듯 법석을 했다.

《매생이들아,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우린 다 죽었을게다.》

사람들은 매생이를 부어잡고 눈물을 툭툭 흘렸다.

《그런데 너희들을 어느 귀인이 보내주었느냐?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분명 하느님이 보내주셨겠지? 아까는 모르고 하느님을 원망했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덕근은 하늘을 우러러 인사를 했다.

바로 이때였다.

《아버지, 그렇게 아닙니다.》

문득 이런 말소리와 함께 그의 아들 상철이가 앞에 나타났다.

《상철아, 네가 무사했구나!》

우덕근은 다른것은 감감 잊고 아들이 무사한것이 너무도 기뻐서 그를 끌어안고 잔등을 쓸어만졌다. 그러다가 잠시후에야 백두산에 가있을줄 알았

던 아들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을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느냐?》

마을사람들도 그때에야 놀라운 눈길로 상철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자네 어떻게 된 일인가?》

상철이는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무엇때문인지 울먹울먹했다.

《여러분! 이 매생이들은 하느님이 보내준것이 아니라 **김일성** 장군님께서 보내주신것입니다.》

우상철은 이 말을 하고는 드디어 《흐읍.》 하고 흐느끼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덕근은 이 한마디를 외우고는 더 말을 못했다. 방금전까지도 하느님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었다고 생각했던 우덕근은 아들의 말을 듣고는 뭐가 된지 통 알수가 없어 멍청해졌다.

《상철이, 어찌된 일인지 어서 말 좀 하게. 답답해죽겠네.》

박근배가 재촉을 했다. 사람들의 눈길은 한결같이 상철의 입만 지켜보았다.

《난 짐을 지고 가면서도 하느님께 기도드릴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유격대와 왜놈들사이에 싸움이 붙었수다. 유격대는 산우에서 내려쪼고 왜놈들은 밑에서 올려쪼고... 총소리가 쿵쿵듯 하는데 왜놈들은 유격대가 농민들은 쏘지 않는다는걸 알구 우리 집군들을 총알받이로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뒤에 바싹붙어서 우리 농군들을 총끝으로 쿵쿵 찌르면서 산으로 올려뺏니다. 조금만 말을 안들으면 <땅> 하구 썩갈기거나 군도루 목을 명경 칩니다.》

《저런... 죽일놈들... 그래서?》

《내뒤편에는 안경쟁이 오장놈이 따랐는데 산중턱쯤 올랐을 때 또 유격대총알이 비오듯 합니다. 그때 내뒤편에서 <아이쿠> 하는 소리가 나길래 얼핏 돌아보니 오장놈이 총알을 맞구 산비탈로 데굴데굴 굴러갑니다. 나는 그 틈에 제격 웅덩이에 뛰어 들어서 까투리처럼 대가리를 쭈서박구 납작 엎드렸습니다. 죽게 되니 떠날때 아버지가 부탁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는데 어디 하느님께 빌어보자 하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는 여기서 잠시 말을 끊었다.

《그것 참 잘했다. 그 덕에 무사하지 않았느냐?》 우덕근은 그것 보라는듯이 좌중을 둘러보고는 아들을 칭찬했다.

《헛 참 그런데...》

상철이는 무엇인가 어처구니가 없는듯 인차 말을 못했다.

《그런데 어쨌단 말이나? 어서 말을 해라.》

우덕근이가 또 이들을 재촉했다.

《그런데 글썽 왜놈중대장놈이 내 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이 개자식아, 네놈이 오장을 죽였지?> 하구 눈에서 불찌가 튀기게 귀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앞에 섰던 네놈은 살구 뒤에 섰던 오장은 왜 죽었어? 유격대총알이 뒤에서 날아왔어?> 하더니 군도를 쭉 뽑읍니다. 난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중대장놈은 이발을 사려물고 군도를 추켜들더니 내 머리를 겨누었다.

획! 칼날이 내려지면 죽을 판입니다 그때 <악> 하는 단말마적인 웨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중대장놈이 군도를 내려치며 지르는 소리인줄 알고 <죽었구나>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엇인가 쿵하고 자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얼결에 눈을 떠보니 글썽 중대장놈이 유격대의 총알에 맞았는지 군도를 쥔채 나가넘어져서 숨을 몰아쉬고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구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얼마나 잘했느냐?... 하느님, 고맙소이다!》

우덕근은 아들이 장한듯 칭찬을 하고는 또 하느님께 인사를 했다.

《헛 참... 아버지두. 그런게 아니랍니다. 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것이 기쁘고 고마워서 정말 기도드린게 은을 내는게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처럼 <하느님아버지이시여> 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참 잘했다. 덕을 입었으면 인사를 할줄 알아야 하느니라.》

《잘하긴 뭐가 잘합니까? 망신만 당했는데》

상철은 어처구니가 없는듯 아버지쪽을 흘겨보았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글썽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등뒤에서 <동무, 하느님은 그만 찾고 일어나오.> 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흠칫 놀라서 돌아보니 키가 후리후리하고 눈에서는 영채가 뿜어나고 존안에서는 해빛이 찬란

한분이 서계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느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나 하구 그이를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손에 들고있던 권총을 목갑에 찔러넣으시고는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마트면 저놈의 칼에 큰일날번 했소. 어디 다친데는 없소?〉

나는 그때에야 나를 내려찍으려던 왜놈중대장을 그분께서 쏘아눕히셨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분앞에 넋적 엎드려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꺄꺄 웃으시면서 〈고맙다는 인사야 하느님께 해야지 나한테 하면 되오? 나야 하느님도 아닌데… 허허…〉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왜놈들은 다 녹아났는지 보이지 않고 총소리도 멎었는데 유격대원들이 달려와서 그분을 에워쌌습니다. 한 대원이 〈장군님, 물동을 터뜨린 왜놈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얼음카기에 동원되었던 인민들이 물에 빠져서 사경에 처했습니다. 그중에는 우덕근이라는 로인도 있는데 얼음장에 매달려서도 하느님만 찾고있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에야 난 그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큰절을 했습니다.

〈**김일성**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후…〉

상철은 눈물을 주먹으로 닦았다.

《그 참 잘했다. 잘했어.》

덕근은 또 아들을 칭찬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한테 빌고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느님이 되어 줍시다. 그들을 빨리 구원합시다.〉 그러시고는 부대를 이끄시고 산을 내리셨습니다. 강가에 이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급히 가독잎 몇개를 강물 상공에 내던집시다. 순간 하늘에 오색채운이 일고 가독잎들은 채운과 함께 멀리로 날아갑니다. 한 유격대원이 내 귀에 대고 소곤거립니다. <장군님은 가독잎을 강물에 띄우고 그것을 던고 강을 건너지도 하시고 종이장을 바다에 띄우고 그걸 던고 바다를 건너지기도 하고 이제 저 가랑잎들은 매생이로 변할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득히 먼 하늘가에서 가독잎들이 매생이들로 변하는것이 보입니다. 나는 <아하! 들려오는 소문이 정말이었구

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이때 장군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서시며 〈어서 달려가서 아버지랑 마을사람들이랑 도와주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나는 거기서 여기까지 300리가 넘는데 어떻게 빨리 가서 도와주라는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혼빠진 놈처럼 장군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채셨는지 신발 한켠레를 내앞에 내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이걸 신고 가시오. 천리신발입니다. 아마 이걸 신고 가면 눈깜짝할 사이에 그곳에 가닿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신발을 신고 체격 떠났지요. 한걸음에 산봉우리 하나씩을 뛰어 넘어 이렇게 여기까지…〉

상철이는 눈물을 주먹으로 또 닦았다.

《아, **김일성**장군님!》

이야기를 듣고있던 우덕근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매생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쏟았다.

주름투성이인 얼굴로 눈물이 비오듯 했다.

《일구월심 간절한 마음을 안고 심혼을 다 바쳐 빌고 또 빌었지만 하느님은 썩은 바줄 한오리 내려보내주지 않았는데 백두산대장수 **김일성**장군님은 하해같은 은총을 베푸시여 경각에 달린 백성들을 구원해주셨나이다. 진정 우리 나라를 찾아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실 하늘님은 저 하늘이 아니라 백두산에 계시는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우덕근은 백두산쪽을 향해 큰절을 드리고 또 드리였다.

죽음의 함정속에서 각일각 목숨이 끝나가던 마을사람들도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백두산쪽을 향해 합배를 하고 또 했다.

이와 류사한 또 다른 전설에는 그때 **김일성**장군님께서 때목을 내려보내주시여 마을사람들 모두가 그우에 올라 살아났다고 하기도 한다.

전설은 어쨌든 인민들의 마음속에 《조선의 하늘님은 **김일성**장군님이시다.》는 신념이 확고해 진것만은 사실이다.

지흥길

문수봉기술에서

리라순

1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준 그날로부터 몇년세월이 지나 또다시 돌아온 7월 8일 이른 새벽...

새날이 시작되는 이 시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 정원을 거닐고계시었다.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오는 정원에는 이슬돋는 소리가 들리는듯 싶었고 푸릇한 정원등에 비쳐진 흰 국화와 애기나팔꽃은 서로 하나의 신비로운 색조화를 이루면서 그속에도 그 어떤 사색의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는듯 싶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따금 수풀속에서 백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부터 말없이 그이를 우려했던 한석주는 급히 장군님께 올라야 할 서류문건들을 든채 흘러가는 한초한초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며 서있었다. 당 중앙위원회책임일꾼인 그는 국방력강화를 위해 오래동안 애써오던 중요한 연구가 드디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았었다.

그토록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이 새벽 무겁게 정원을 거닐고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뵈옵는 순간 섣뚱 그이 앞으로 다가설수 없었던것이다.

잠시의 공간도 없이 맞물려진 현지도와 파중한 피로를 푸실 사이없이 겹쳐드는 그이의 분명한 사업들. 가늠할수 없는 복잡하고 무한대한 사색의 세계... 이 모든것이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한석주였다.

다치면 터질듯이 긴장된 정세, 광란으로 변한 미제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과 류레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전대미문의 역경, 장군님께서서는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정초부터 인민군 부대들에 대한 전연시찰의 길에 오르시었고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오고계시었다. 어제 하루만 하여도 동해안의 어느 구분대시찰을 떠나시는 차안에서 긴박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결론을 주시었고 돌아오시는 길에는 황해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그 길로 교육부문 일군들과의 협의회를 조직하시고 장시간 그들을 만나주시였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또다시 전연시찰을 떠나시거나

방금 들어온 연구성과를 보아주시려 그들을 찾으셔야 할것이며 그에 이어 또 군수공장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셔야 할것이다.

《철썩!》

고요를 흔들며 정원앞의 운하에서 고기가 뛰어올랐다. 순간 별들이 내려앉아 깜박깜박 즐고있던 수면에 물갈기가 일며 동그란 파문들이 그려졌다.

한석주는 조용히 장군님께로 다가섰다.

《장군님!》

그이께서는 한석주쪽으로 몸을 돌리시었다.

한석주는 그이께 방금전의 소식을 말씀드리며 알박한 문건을 드렸다. 장군님께서서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한석주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문건을 번져나가지였다.

《음, 수고했구만. 정말 큰일을 했소.》

그이의 음성은 아직도 사색의 세계에 잠겨있는듯 조용히 울리였다.

《장군님, 그 동무들에 대한 국가수훈과 표창을 내신하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미소를 보내시었다.

《그렇시다. 평가도 해주고 만나도 봅시다.》

서류가방을 들고있는 한석주의 목뒤로는 붉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새벽녘이지만 한여름날이라 몹시 무더웠다. 열결에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는 그를 보신 장군님께서서는 문건에서 눈길을 드시였다.

《참 무덤구만. 동무를 보니 사이다매대앞에 줄서있던 사람들이 생각나는구만....》

《...》

그이의 말씀이 뜻밖이어서 한석주는 그 자리에서 말만 옮겨디딜뿐이였다.

그것은 얼마전에 있는 일이었다. 한석주는 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장군님을 모시고 평양으로 향하고있었다. 화끈 달아오른 도로의 열기를 받으며 승용차들이 평양의 거리를 지나는데 차창가로 사이다매대에 줄서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끼였다. 한석주는 여름의 거리에서 흔히 보는 일이라 무심히 지나쳤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이 시각 사이다매대에 서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신것이다.

그이께서는 다시 보시던 문건에서 눈길을 드시였다.

《이 동무들이 정말 큰일을 했소. 우리 과학자들이 용하거든.》

그이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그려보시는듯 멀리 하늘에 시선을 주시였다. 그이의 눈길이 닿은 그곳에는 보석처럼 빛을 뿌리는 무수한 별들이 또렷이 박혀있었다. 동쪽하늘에서는 새날을 알리는 새벽기운이 벌써 무럭무럭 퍼져오르고있었다.

《한석주동무, 갑시다.》

그이께서는 승용차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한석주는 그이를 따라 걸음을 옮기며 그이께서 과학자들이 있는 연구소로 가시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승용차문을 여시며 찰막하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문수봉쪽으로 갑시다.》

문수봉쪽으로?! 한석주는 의아해졌다. 그곳에 무엇이 있던가. 중요한 군사요충지는 물론이고 큰 과학연구기관이나 손꼽을만 한 건설대상도 없는 곳이였다.

그는 재빨리 그이께서 이제 가야 할 전연초소들과 중요구분대들이 있는 곳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문수봉쪽이라는 장군님의 말씀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주춤거리시는 그에게 재촉하시는듯 다시 이르시였다.

《어서 떠납시다. 오늘은 랭천사이다공장부터 들려야 겠습니다.》

한석주는 놀라움에 휩싸였다. 정세의 엄혹성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지어는 낯설기까지 한 사이다공장 그로서는 전혀 예견 못한 뜻밖의 대상이였다. 벌써 몇해째나 그이의 결에서 일해오고있지만 너무도 진폭이 큰 그이의 사색이여서 도저히 따라설수가 없음을 순간마다 절감하게 되는 그였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것은 차창가에 비췄던 사이다매대의 줄을 보신 후부터 장군님의 심중에서는 내내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고있었다는 그것이였다. 오늘이 이 뜻밖의 현지지도일정도 그날에 벌써 계획되어있으신건 아닌지?!...

서서히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을 떠난 승용차는 새벽빛을 마주하며 문수봉기슭의 랭천사이다공장으로 향하였다.

점차 작아지는 백학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2

희뻐한 새벽빛이 물드는 대기를 꿰치르며 승용차는 쾌속으로 수도의 한복판을 달렸다. 거리의 가로수들과 함께 불이 꺼져있는 고층살림집들이 번개처

럼 차창을 지나치며 멀어져갔다. 아직 시민들이 깨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것이 잠들고있는 조용한 거리를 내다보시며 류다르게 젖어드는 푸근하고 따뜻한 감을 느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처럼 인민들의 단잠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위해 먼 길을 떠나실 때가 제일 기쁘시였다.

하나를 주면 열을 주고싶고 열을 주면 또 백을 주고싶은 우리 인민, 그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고싶으신 장군님이시였다.

갑자기 한쪽으로 가볍게 몸이 기울어지시였다.

승용차가 시대의 어느 한 굽인돌이를 돌아서고있었던것이다. 다시 균형을 바로잡은 차가 거리 한복판으로 곧추 달리기 시작하자 문득 그이께서는 한석주의 놀라던 얼굴이 떠오르시였다.

(그럴수 있지. 그럴수 있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그이의 안광에는 심중한 빛이 어리였다. 원래 음료는 사람이 마실수 있는 깨끗한 물이다. 물이 나쁜 고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물에 의한 질병을 막기 위하여 물을 끓여마시는 과정에 여러가지 음료가 나온것이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우리 나라에서는 청량음료에 그리 관심을 돌리지 않아왔다.

생각에 잠기신 그이께서는 한손으로 짚고계시던 앞좌석 등받이를 가볍게 다독이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원래 물이 좋은 우리 나라에서는 물을 그대로 마실수 있지만 몸에 좋은 약수나 샘물들에 여러가지 영양첨가제까지 넣어 고급청량음료를 만들게 되면 비단에 수놓는 격이 된다고 하시면서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벌써 문수봉기슭에서 솟아나는 랭천으로 사이다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할 원대한 구상을 하시였었다. 지금 가시는 사이다공장이 바로 그 랭천사이다공장이였다.

그이께서는 한달음에 달려나올 지배인 송려수를 그려보시였다. 처녀처럼 양전한 성격이지만 일욕심은 굴뚝같은 사람이였다.

랑천사이다공장... 문득 그이께서는 가렐치절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해 여름이 떠오르시였다.

최고사령부에 계시던 어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때 새로운 반공격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최전선으로 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서시였었다. 폭격에 집들이 무너지고 걸음마다 땅이 패운 거리에 돌아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가 문수봉여구에 이르렀을 때였다.

《항공! 항공!》

다급하게 울리는 빈 포탄각지의 새된 종소리와 함께 맑고 쟁쟁한 목소리가 달리는 차들을 멈추어 세웠다. 울창한 소나무숲속에서 위장그물을 걸친 애어린 쌍태머리처녀가 빨간 신호기발을 흔들며 뛰쳐나왔다.

《이쪽으로!》

처녀는 재빨리 신호기로 대피호를 가리켰다. 차들은 서둘러서 않고 그가 가리키는 쪽으로 굴러갔다.

《다 됐느냐?》

둔덕에 홀로 서있는 소나무밑에서 포탄각지를 힘껏 두들겨대던 로인이 이쪽에 대고 소리쳤다.

《걱정마십시오, 할아버지!》

처녀도 맞받아 대답했다.

한동안 평양시상공을 뒤덮었던 적비행기들은 강력한 인민군대의 고사포화력에 쫓겨 서서히 남쪽 하늘로 사라져갔다.

《수고하누만, 어린처녀동무가!》

신호기를 틀어쥔채 도망가는 비행기들을 쏘아보고있던 처녀는 우렁우렁하진 음성에 고개를 돌렸다. 그 서슬에 어깨에 닿을듯말듯 드리웠던 짧은 쌍태머리가 휘뿌러지듯 앞가슴으로 훌쩍 넘어왔다.

《아니?!》

처녀는 놀람과 의혹이 뒤섞인 맑은 눈동자를 빗내이며 그 자리에 못박힌듯 굳어져버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처녀는 환한 웃음을 짓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향해 있는 힘껏 달음박질쳐왔다.

나는듯이 달려오는 처녀의 어깨우에서는 그 유묘한 쌍태머리가 가볍게 춤을 추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차결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앞에 벗어선 처녀는 군대처럼 차렷자세를 취하며 쟁쟁한 목소리로 오돌차게 보고올렸다.

《항공감시원이란 말이지.》

수령님께서서는 너무 기뻐 어쩔줄 모르는 애어린 처녀를 대견하게 바라보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처녀의 줌안에 꼭 쉬여진 신호기발과 소나무가지로 햇빛을 가리워 바위틈에 놓아둔 물초롱을 둘러보시며 그의 어깨를 다독여 주시었다. 항공감시를 서는 째짤에 행군해가는 인민군군인들에게 샘물까지 길어다 떠주는 처녀의 소행이 기특하셨던것이다. 이때 언덕우에서 빈 포탄각지를 두드리던 로인이 수령님을 알아뵈고 《장군님!...》 하고 목메여 부르며 엎어질듯 허둥지둥 달려내려왔다.

《할아버지. 넘어지겠습니다.》

한쪽에 서계시던 어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얼른

마주 달려가시어 발을 헛짚는 로인을 부축해드리시었다.

기운차게 종을 때릴 때는 몰랐지만 가까이 보니 칠순이 훨씬 넘어 보이는 늙은이었다.

수령님께서도 로인의 한쪽팔을 잡아주시며 그를 나무그늘밑으로 이끌어가시었다.

《로인님. 년세도 높으신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맡아하십니까?》

《전쟁인데 나이가 상관있습니까 저같은 늙은이도 나라가 있구야 사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애야, 뭘 하느냐? 어서 샘물을 길어오지 않구!...》

로인은 수령님의 두손을 꼭 부여잡은채 옆에 있는 손녀에게 급히 재촉했다.

《어마나? 제가 그만... 알았어요! 할아버지.》

너무나 뜻밖의 기쁨에 만사를 잊고있던 처녀는 서둘러 물초롱을 찾아들고 쏜살같이 애솔밭쪽으로 달려갔다.

수령님께서 일행을 돌아보시며 여기서 잠시 쉬여가자고 말씀하시었다.

이어 산기슭의 무성한 애솔나무사이로 물초롱을 안은 쌍태머리처녀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연방 이쪽을 바라보며 급하게 뛰어오는 그의 걸음은 넘어질듯 위태로웠다.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부관과 함께 처녀를 마중가시어 물초롱을 맞들고 오시었다.

물초롱앞에 다가선 로인은 허리굽혀 정히 샘물을 떠담았다. 조롱박에 찰랑거리는 맑은 샘물에는 티없이 깨끗한 푸른 하늘과 아롱거리는 해빛이 비껴들어 주름진 로인의 얼굴을 밝게 비쳤다. 로인은 수령님을 우러르며 두손에 샘물을 받쳐들었다.

《년세가 많으신분이 젊은 사람에게 뭘 이러십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로인이 드리는 샘물을 사양하시며 그에게로 밀어놓으시었다. 그러나 별에 그을고 깊은 고랑이 열기설기한 로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그 어떤 간절한 소원이 비껴있었다.

《장군님! 이 샘물은 어디에나 흔한 그런 샘물이 아니라 한번 마시면 백년장수한다는 문수봉의 장수약샘입니다. 비록 백년을 산다는것이 옛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늙은이의 마음으로 알고 받아주십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마음이 후터워 오시었다. 화려하고 현란하게 멋부릴줄 모르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바로 이 땅 어디를 가나 흔히 만날수 있는 이 로인과 같은 우리 인민인것이다.

《고맙습니다, 로인님!》

로인은 수령님께서 자기의 진정을 받아주신것이

너무도 고맙고 만족하여 만시름 잊은듯 몇오리 안 되는 턱수염을 흐뭇하게 내리끌었다.

《물맛이 참 좋습니다. 여기 문수봉 어딘가에 유명한 샘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이 샘물이 아닙니까?》

《웁습니다! 장군님, 바로 이 샘물이 떠온 즉시로 마셔야 제 맛이 난다는 랭천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띄우시고 로인을 바라보시었다.

《있구말구요. 오랜 옛전설이 있습니다.》

로인은 수령님의 인자하신 미소에 끌려 전선으로 급히 떠나셔야 하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것도 모르고 구수한 이야기를 해쳐놓았다.

옛날 한 젊은 장수가 수천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지키는 싸움터로 나갔다. 그런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오랑캐들을 쳐부시던 그 젊은이는 숨어있던 원수가 쏜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젊은이와 백년가약을 맺은 처녀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신기한 샘물을 찾아 새벽별이 떠오른 문수봉팔짜기로 달려갔다. 그런데 샘물을 초롱에 담고 떠나자 얼마를 가지 못하여 약김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것이였다. 새로 또 퍼 담고 달렸으나 또다시 약김이 빠져버렸다.

그제서야 처녀는 샘물의 약효를 보존하려면 밀봉한 그릇에 담은 샘물을 해뜨기전에 마셔야만 그 효파를 본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아, 이를 어쩌나?...)

이슬맺힌 샘터에는 아직 새벽어둠이 깃들었지만 전장터는 먼길이었다.

안타까이 입술을 깨문 처녀의 눈앞에는 피흘리며 쓰러진 사랑하는 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 한몸바친 장한 님, 그를 위해 내 무엇을 아끼랴!

비장한 결심을 가다듬은 처녀는 샘물통을 가슴에 품고 길아닌 지름길로 달리고 또 달리였다.

온몸이 찢기고 터지며 해뜨기전에 전장에 다달은 처녀는 그만 샘물통을 안은채 쓰러졌다.

이렇게 처녀의 생명과 바꾼 그 약샘을 마신 장수는 다시 소생하여 오랑캐를 물리치는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평양성을 지켜냈다는것이다...

이야기를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아직도 두볼이 상기되어있는 처녀를 기특하게 바라보시었다.

《그래서 이 처녀동무가 그렇게 달려왔구만.》

《예. 약김이 빠지면야 그게 무슨 랭천이겠습니

까!》

수령님께서는 곧 로인의 말을 긍정해주시었다.

《그렇겠습니다. 이 샘물에는 몸에 유익한 약성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인차 마셔야 시원한 감이 더 나기때문에 아마 그런 전설도 나왔을겁니다. 참, 좋은 샘물입니다.》

로인과 처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샘물을 권했다. 뒤이어 시원한 샘물을 마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율창한 숲을 이루고있는 문수봉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문득 어린 마음속 맨 밑바닥에 고이 묻어두신 류다른 추억이 움썹거리며 그이의 가슴한복판으로 천천히 떠올랐다.

잊을수 없는 문수봉, 즐거운 웃음소리와 삼짇소리... 해방된 이듬해 봄이었지 어린 나무모를 불안고 웃으시던 어머님... 떠들썩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던 투사들. 그때 어머님께선 지금처럼 문수봉팔짜기에 내려가시어 차고 시원한 샘물을 길어오셨는지.

《하하하.》

《호호호.》

웃음소리가 터져 올랐다.

그 웃음소리는 그이의 추억속에서 메아리쳐오는 것이 아니라 샘물을 떠주고있는 쌍태머리처녀를 둘러싼 젊은 군관들의 웃음소리였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숫구쳐오르는 추억의 눈물을 누르시며 현실로 되돌아오시었다. 곧 그이의 귀전에는 로인과 마주 앉으신 아버지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랭천이 원래 유명한 샘물입니다. 년중 온도가 늘 같아서 겨울에는 덥고 여름에는 이가 시리도록 차고 시원합니다. 이 자리가 옛날 관리들이 평양에 올라올 때마다 쉬고 가던 휴식터였는데 경치도 좋고 수림이 우거진데다가 물맛 또한 좋아서 랭천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장군님께서 우리 고장 랭천의 매력을 어떻게 다?...》

로인은 퍼그나 놀란 표정으로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해방된 이듬해 여기서 나무심기를 했었는데 그때 김정숙동무가 이 랭천을 길어왔었습니다.》

《아니, 그때의 어머님이 그럼?》

샘터에서 만났던 그날의 수수한 녀인이 다름아닌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이시였다는 사실에 놀란 로인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자기 무릎을 내리쳤다.

《과시 이 랭천이 자랑할만 한 샘이 틀림없습니

다. 백두산장군들이 마신 샘이니 세상에 이름날만 두 합니다. 우리 랑천으로 말하면 들것에 실려왔던 병자도 이물을 석달 마시고 제 발로 걸어나갔구 아이낳이를 하지 못해서 구박받던 어느 집 머느리도 이곳 랑천으로 밥짓고 몸을 씻어 귀한 옥동자를 낳았다는 유명한 약샘이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샘물웃죽엔 우물을 파구 아래에는 땅을 파내여 초정 토라구 하는 목욕탕을 만들어서는 나무통물길을 내어 떨어지는 덕수를 맞곤 했습니다.》

《그러니 로인님은 그 샘물을 매일같이 마셔 이렇게 장수자가 됐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왜놈세상에서야 그 샘물에 얼씬이나 했겠습니까. 장군님덕분에 나라가 해방되어서야 그 랑천물을 마음껏 마시게 되었고 지금처럼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로인은 축축히 젖어드는 두눈굽을 찍었다.

문수봉기습의 소박한 로인과 쌍태머리치녀 그리고 시원한 샘물... 그것은 최고사령부와 함께 전쟁의 불비속을 헤쳐가시던 어리신 **김정일** 동지의 눈에 비친 소박한 우리 인민의 모습이었으며 그의 가슴에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심어준 하나의 자그마한 일화이기도 하였다.

그때 로인과 헤어지신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 승리한 후 여기 문수봉봉기습에 우리 인민모두가 마실 수 있는 큰 사이다공장을 세워야겠다고, 이 신비한 랑천으로 사이다를 만들어 인민들이 마음껏 장수음료를 마시게 해야겠다는 귀중한 말씀을 주시였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시기에 사이다음료를 구상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는 벌써 승리한 조국의 래일이 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났다.

전쟁도 끝나고 전후복구건설도 끝났으나 어느 일군도 그때 랑천사이다를 두고 하신 수령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셔야 하는 아버지수령님께서만은 그때 그 약샘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 사이다전문공장을 세워주시였고 첫사이다가 나왔을 때는 우리 인민들도 시원한 사이라를 마실수 있게 되었다고 그처럼 기뻐하셨던것이다.

차체가 가볍게 진동하였다. 그와 동시에 어디선가 상긋한 솔잎냄새가 차안에 흘러들었다. 그 청신한 대기를 폐부깊이 호흡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감고계시던 눈을 뜨시였다. 앞시창너머로 새벽어스름이 깃들어 희뿌연 운무가 설피게 감겨들

고있는 문수봉의 울창한 수림이 안겨왔다. 이제 숲가녁을 따라 조금 더 가면 랑천사이다공장이 나질것이다.

3

너무도 뜻밖의 시각에 위대한 장군님을 뵈게 된 사이다공장지배인 송려수와 당비서는 미처 인사도 변변히 올리지 못하고 그이를 맞이하였다.

《오래 간만입니다.》

그이께서는 감격에 겨워 두눈만 습벅이는 송려수 지배인의 두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시였다.

몇년전 어느 한 경공업대회에 참가한 그를 만나 주실 때만 해도 수집음을 몹시 타던 30대의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쇠소리나는 일군으로 성장한것이다.

《장군님!...》

젊은 지배인은 가슴에 치미는 뜨거움을 삼키며 다음말을 잊지 못했다. 대견하신텐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신 장군님께서서는 어서 들어가자고 손짓하시였다.

뒤따르던 한석주는 어째선지 낮익은듯 한 송려수 지배인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을 모았다. 얼마전 그와 마주섰던 일이 생각난때문이었다.

그날 저 송려수지배인은 랑천사이다공장의 개건확장을 위한 문건을 가지고 그를 찾아왔었다. 그 문건을 읽어본 한석주는 안타까운 어조로 질책했었다.

《지금이 어느때니까. 동무네라고 식량공급이 별도로 되는건 아니지 않소?》

《압니다. 공장종업원들도 쌀공급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같은 때에 누가 사이다를 찾겠소. 지배인동무, 좀 기다립시다. 앞으로 인민생활이 풀리면 땀만저 사이다공장의 애로부터 풀도록합시다.》

한석주는 그가 나라의 전반실패를 놓고 속깊이 리해하길 바랐다. 그날 저 지배인은 머리를 떨군채 말없이 돌아갔지만 한석주는 어째선지 마음이 편안치 않았다. 무언가 잘못 처리한것이 아닌가 하는 위구가 그의 가슴을 답답하게 내리눌렀던것이다...

희끄무레하게 날이 밝아올 때인데 작업장에는 아직 불이 켜져있었다. 기계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던 그이께서 지배인에게 물으시였다.

《교대작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생산3반에서 밤 교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묵묵히 한자리에 서계시었다.

인민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긴 7월 8일…

이날에는 누구나 모두 수령님을 생각하고있을것이다.

그래서 여기 종업원들도 밥잠을 자지 않고 사이다를 생산하고있는것이다.

《종업원이 모두 몇명입니까》

또다시 물으시는 그이의 조용한 음성에 지배인은 당황한 눈길을 어디에 돌지 몰라하였다.

《저… <고난의 행군> 을 겪다나니 지금은 절반밖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흐리신 안색으로 공장구내를 둘러보시었다.

《고난의 행군》!… 이 나라의 력사에 피로 새겨진 그 나날들은 참을수 없는 배고픔과 쓰라린 상실의 아픈 나날이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고립과 봉쇄, 그우에 덮쳐지는 자연재해… 이 최악의 생사기로서는 민족이 영영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떨쳐일어서느냐? 우리 인민은 질식되지도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의 전쟁을 치른것과 맞먹는 《고난의 행군》을 맞받아 뚫고나갔으며 최후의 승리를 향해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어 결사전을 벌려왔었다. 그러나 시련을 이겨낸 이 나라의 구석구석엔 아직도 그날의 흔적들이 남아있는것이다.

《…다신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것입니다.》

누구에게라없이 조용히 되뇌이시는 김정일동지의 근엄한 안광에서는 서늘한 빛이 흘러나왔다. 마디마디 의미심장한 그이의 음성은 이른 새벽의 고요를 흔들며 공장구내에 메아리쳐갔다.

그이를 우러르며 서있던 지배인은 확신어린 그이의 발걸음이 생산현장으로 향해서야 서둘러 그이를 따라섰다.

깨끗하게 흰 타일을 붙인 작업장안에서는 음료공장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은근하게 풍겨왔다.

만부하로 돌아가는 기대앞에서는 위생복을 산뜻하게 차려입은 녀성로동자들이 긴장하게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흐름선을 타고 천천히 주입기를 향해 줄지어가는 깨끗한 병들… 세척된 병들은 원형콘베아에 실려 빙그르 돌면서 사이다를 가득 채워 마개를 눌러주는 타진기에 하나씩 물리웠다가 다시 흐름선을 타고 상표기에 다달았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목과 몸

체 사이다상표를 척 붙여가지고는 순서대로 상자에 들어가 창고로 운반되였다.

향기롭고 시원한 사이다를 보시는 순간 그이께서는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땀흘리며 훈련하고있을 병사들이 생각나시였다.

땀으로 물침방이 된 전사…

《힘들지?》

《힘들지 않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누구였더라?… 그래, 군사훈련을 하고있던 오성산의 어린 병사였지. 집은 항구도시라고 했고…

또다시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렇지! 강계사람들이다. 맹물을 마시면서 발전소를 세웠고 세벌농사를 하느라 애썼지 그이께서는 한쪽에 무드기 쌓여있는 사이다상표를 유심히 눈여겨보시였다.

정교한 흰 눈꽃을 바탕으로 《랭천사이다》라고 짝 채워 써넣은 하늘색상표, 그 한쪽에 명확히 찍혀있는 사이다 주성분과 보관기일, 생산년도…

이윽도록 상표를 들여다보시는 그이의 눈썹이 서서히 젖어드시였다. 하루에도 수많은 붙어 나가는 이 작고 평범한 사이다상표가 또다시 수령님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킬줄은 그이께서도 짐작하지 못하셨던 일이었다.

어느해인가 김정일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 책임일군들이 올려보낸 새 식료품과 그에 따른 여러가지 상표도안들을 수령님께 드리였었다. 그 시제품들과 상표도안을 보아주신 수령님께서서는 여러개의 상표도안중에서 그중 한개를 골라드시였다.

《사이다상표로서는 이 상표가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예, 수령님. 제 보기에요 이 상표도안이 제일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선정해주신 상표가 바로 이 《랭천사이다》 상표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뜻 자리를 뜰수 없으신듯 다시한번 상표를 새겨보시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창고에는 생산된 사이다상자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이미 천정에 닿을듯 가득 쌓여있는 사이다들을 만족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한 상자에 다가가시여 상표가 잘못 붙여진 사이다 한 병을 꺼내드시였다. 아직 풀이 마르지 않아 상자에 넣으면서 그렇게 된것 같았다. 손에 힘을 주어 상표를 제자리에 바로 붙이신 그이께서는 병을 쳐들어 흔들어보이시였다.

《그전의 랭천사이다는 거품이 부글부글 일고 맛

이 좋은데다가 쫓하고 시원해서 인민들이 좋아했소. 그때만큼 질을 보장하오?》

《그렇습니다. 장군님, 지금도 사람들은 사이다라고 하면 먼저 이 랭천사이다를 찾고있습니다.》

지배인의 대답에는 은근한 궁지가 비껴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랭천사이다는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생산해오는 좋은 음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들고 계시던 사이다병을 제자리에 다시 놓으시었다.

지금의 이 랭천사이다공장은 비록 크진 않지만 전통사이다로 인정될만큼 수십여년의 연혁사를 가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첫 음료공장인 이 랭천사이다공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수십차례의 가르치심을 주시었던것이다.

지배인은 위대한 장군님께 복잡한 생산공정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에 팔을 엇걸으신채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가끔 도중에 간단한 질문도 하시며 주의깊게 생산공정을 파악해나가시었다.

《가만, 그러니 톤당 허실되는 량이 얼마라는겁니까?》

그이께서는 지배인의 설명이 끝나자 생각하고계시던 문제를 물으시었다.

생산공정을 손금보듯 꿰뚫고있는 지배인은 거침없이 머리속에 있는 수자를 말쑤시켰다.

《많지는 않구만... 강계포도주공장에서는 손실이 없소. 거기 경험을 배우면 여기서도 손실을 완전히 없애는 방도를 찾아낼수 있을겁니다.》

지배인은 갱뿔할사한 얼굴을 숙이며 낮을 붉혔다. 《하루 시네상점들에 나가는 사이다는 얼마나 되오?》

상점들에 매일 나가는 수많은 사이다수자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머리를 저으시었다.

《적구만, 그건 너무 적어...》

《...》

지배인 송려수는 황황히 눈길을 떨어뜨렸다.

잘못을 저지른 총각애의 죄스러움같기도 하고 그 무엇에 대한 불만같기도 한 어두운 기색이 언뜻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기분은 그를 지켜보고있는 한 석주에게도 옮겨진듯 하였다. 어째선지 장군님께서 상기시키셨던 사이다매대의 길게 늘어진 줄이 다시금 되새겨와 창끝처럼 가슴을 찔렀던것이다. 무언가 자기 사업에 대한 의혹이 그를 괴롭혔다.

《저건 뭘니까?》

한석주는 다시금 들려오는 그이의 음성에 눈길을

들었다. 창고옆에 잇닿은 작은 지붕을 가리키시는 그이께 지배인은 자체로 꾸린 병마개공장이라고 말쑤올렸다.

그이께서는 누가 안내해드릴새도 없이 먼저 그쪽으로 걸음을 옮겨 짚으시었다.

여기저기서 모아들인 유희자재들과 얹은 도금판을 잘라 수동으로 찍어내게 된 작은 기계옆에는 이미 완성된 병마개들이 무드기 쌓여있었다.

그이께서는 그중 한개를 집어드시고 유심히 들여다보시었다.

《괜찮구만. 사이다보관에서는 뭉니뭉니해도 가스가 새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하오.

참, 전쟁때 여기를 지나다가 한 로인에게서 들은 문수봉전설이 생각나는구만 몇발자국만 가도 약섬의 기운이 빠져버린다는...》

그이께서는 어린 시절에 들으셨던 그 전설속의 동화세계로 다시 들어서신듯 밝은 미소를 지으시었다.

미소속에 주위를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송려수 지배인을 일군들앞으로 내세우시었다.

《이 지배인동무가 바로 랭천자랑을 끄찍이 하던 그 로인의 손자입니다.》

그날의 쌍태머리치녀였던 송려수지배인의 어머니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으로 일떠선 이 랭천사이다공장에 자기의 한생을 바쳐 온 이름없는 녀인이었다.

60년대초에 일떠선 랭천사이다공장과 나이가 똑같은 송려수가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데에 나가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앉히었다.

《군데에 나가서도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문수봉에서 수령님을 뵈웠던 그날을 가슴에 새기고 랭천과 이 사이다공장을 잊지 말거라 군사복무가 끝나면 다른데 갈 생각 말고 꼭 고향에 돌아와서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한다. 랭천가문사람이라면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평가해 주신 이 랭천사이다를 위해 한생을 바치는것을 자랑으로, 긍지로 여겨야 한다 알겠느냐?》

그후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송려수는 자기의 희망대로 경공업대학 식료학부를 졸업하고 여기 사이다공장에 배치되어 기사로, 기사장으로 일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반세기전의 이 랭천가문을 잊지않으시고 송려수의 장래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오늘은 어엿한 랭천사이다공장의 지배인으로 키워주시었다.

《이제 곧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 지배인동무의

어머니도 사이다공장의 오랜 기능공인데 참 성실한 공로자입니다.》

그이께서는 그날의 감회와 상념에 다시 잠기시는 듯 샘초롱을 안고 뛰어오던 그때의 쌍태머리치녀를 회상하시며 환하게 미소지으시었다.

이때 사람들에게 가리워 별로 눈에 띄지 않던 당비서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지배인동무의 어머니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 병마개기대앞에서 순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이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에 놓였던 병마개를 줍만에 꼭 쥐시었다. 그이의 손바닥에는 작은 톱날모양의 원형무늬가 아프게 새겨졌다.

《...그렇게 됐구만.》

문득 그이께서는 자기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장수의 숨결을 이어준 전설속의 그 처녀가 눈앞에 어러오시었다. 예로부터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우리 민족의 기풍은 오늘도 그대로 전해지고있는 것이다.

잠시 깃들었던 침묵을 깨뜨리며 무언가 적어나가던 당비서가 다시금 말쑤올렸다.

《장군님, 이번에 벗어선 공장을 다시 돌리는테 지배인동무의 역할이 컸습니다.》

강단이 내비쳐지는 당비서의 네모질사한 철색얼굴에는 장군님앞에 자기 지배인을 더 내세우고싶어하는 당일군의 웅심깊은 마음이 비껴있었다. 당황해난 지배인이 급히 그를 당겼다.

《아닙니다. 장군님, 종업원들모두가 떨쳐나...》

그이께서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들을 긍정해주시고는 한발 뒤로 물러나시어 다시 공장구내를 둘러보시었다.

비록 낡긴 했지만 정성껏 회칠을 한 공장건물과 담장둘레를 따라가며 곱게 심은 어린 감나무와 아카시아나무들, 새로 만든 구호판들과 티 하나없이 말끔히 쓸어놓은 마당들... 어디를 보아도 식료공장답게 정갈하고 깨끗하게 꾸려놓은 공장이다. 그러나 그이의 주의깊은 눈길은 앞전등이 깨진채로 차고에 서있는 낡은 화물차와 보이라굴뚝의 얼룩덜룩한 양철땀들을 놓치지 않으셨다.

《장군님, 큰 공장,기업소들도 자력갱생으로 일떠서고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을뿐입니다.》

다시 침착해진 지배인이 정중한 몸가짐으로 기운차게 대답올리었다.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니 좋습니다. 하지만 해결받아야 할 문제도 적진 않을게구... 음? 지배인동무.》

송려수는 별안간 가슴이 몽클해지었다.

《장군님,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까. 더는 나라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 공장만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지금같은 때에 제가...》

《허-》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웃으시었다.

《지배인동무가 나라에 손을 내밀었다가 단단히 비판받은 모양이구만 그래, 얼마나 요구했었소?》

잠시 머뭇거리던 지배인은 드디어 결심한듯 고개를 들었다.

《저... 사이다조작설비 하나를 더 받았으면 했습니다. 지금 설비는 너무 오래된것이어서 사이다수를 충족시킬수 없기에...》

장군님의 안색이 흐려지시었다.

《조작설비라...》

《장군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라에 손내밀생각부터 하면서... 하지만 장군님! 오늘날 사이다가 부족하다고 투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있는 지배인을 보시다가 당비서에게로 돌아서시었다.

《동무도 그렇게 생각하오?》

《우리 인민은... 모든것을 리해하고있습니다.》

《모든것을 리해한단 말이지...》

당비서의 대답을 되뇌이시는 그이의 심중은 무거워 지시었다. 가슴에 팔을 엮었으신채 생각에 잠기시어 그자리를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생각나신듯 정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한석주를 비롯한 수형원일행은 영문을 모른채 묵묵히 그이의 뒤를 따를뿐이었다.

4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음을 멈추신 곳은 어느 공장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수수한 공장전망도앞이었다.

그이께서는 공장에 들어서신 첫 순간 얼핏 눈에 띄었던 이 전망도를 기억에 새겨두시였었다. 공장의 얼굴과도 같은 전망도를 남이 안보는 한구석에 몰아넣은것이 가슴에 걸리셨던것이다.

전망도에는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위생문화적인 측면은 많이 혁신할것을 계획했으나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진확장하는 사업은 매우 조심스럽게, 지어 소심하게 반영했었다. 우에 제기했던 새설비를 부결맞고 위축되었다는것이 한눈에 알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소박한 전망도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었다. 새 설비 하나를 더 놓고싶어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송려수의 안타까움이 그이의 심중에도 미쳐왔던것이다.

(그래, 송려수가 대답한것처럼 지금 이 공장의 능력으로써는 인민들에게 사이다를 충족시킬수 없다. 결코 이 공장 하나만으로는…)

불쑥 그이의 사색속에 사이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던 송려수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다시 뛰어들었다.

인민들이 리해한단 말이지…

그이의 심중에는 송려수지배인과 당비서 그리고 고여느때없이 심각해있는 한석주의 얼굴이 서로 엇갈려 떠오르시였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요구를 소홀히 대하는 이 편견과 관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 수령님께서 평생을 두고 사랑해오신 인민이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품어 안아키우신 귀중한 인민이다.

한생 인민을 위한 길에 계셨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논머리와 건설장에서 찬물로 땀을 들이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몸이 가슴아파하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풍족하게 공급할수 있겠는가고 늘 마음써오시였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전후시기.

…폐허… 송기죽…

나쁜놈들이 기계에서 쌀이 나오는가고 떠들며 당정책을 반대해나서던 그때에도 수령님께서는 빈터 위에 사이다공장을 건설하시여 인민들에게 시원한 청량음료를 공급하시였다. 어렵던 그 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뜨거운 로앞에서, 혁신으로 들끓는 건설장과 종다리 우짖는 발머리에서 마신 그 사이다는 단순한 청량음료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을 사회주의 대건설로 힘있게 추동한 비약의 생명수, 사랑의 생명수로 되였었다. 그런데 수령님의 념원이 깃든 그 사이다공장이 《고난의 행군》을 겪어오면서 체구실을 하지 못해 오늘 또다시 인민들이 찬물을 그냥 마시고있는것이다.

문득 차창에 비졌던 뽕차매대가 떠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슴이 미어지시였다.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해오신 우리 인민! 바로 그 인민이 지금 모진 곤난을 겪으면서도 불평 한마디없이 당을 따라 어려운 길을 가고있는것이다.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유족하게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시였다. 식량이 모자라고 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어디에나 흔한 물을 가지고 조금만 마음쓰면 될수 있는 청량음료야 왜 풍

족히 공급하지 못하겠는가. 우리 일군들이 인민들의 깨끗한 마음에 위안을 가지면서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민은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려야 하며 견디어야 한단 말인가.

김정일 동지께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시였다.

《아니!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없습니다. 인민들이 사이다를 풍족하게 마시도록 하라는것은 수령님의 유훈인데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인민생활문제에 대해 큰 일, 작은 일로 가르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석주는 불편하게 잡고있던 서류가방을 앞으로 당겨잡으며 저도 모르게 눈길을 떨어뜨렸다.

이 순간 한석주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며 오늘의 엄혹한 난국을 뚫고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엔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 자기 인민에 대한 생각이 꼭 차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가슴뜨겁게 느끼고있었다.

그런데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그이의 의도대로 일해온다고 한 자기가 작은 설비 한대만 달라는 것도 부결해버렸으니… 그는 자기가 부결했던 송려수지배인의 문건문제에 얼마나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가를 다시 의식하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한석주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신듯 송려수지배인에게 소탈한 웃음을 보내시였다.

《지배인동무, 이 전망도에 고작 조작설비 하나만 들여놓으려고 했소? 젊은 사람이 왜 그리 쪼쪼하오. 이왕이면 대담하게 공장을 개진확장하고 물이 좋은 곳에 현대적인 새 사이다공장을 크게 세우면 더 멋있지 않겠소. 지금처럼 사이다 한가지만 생산할게 아니라 여러가지 향료를 넣은 사과단물, 배단물. 딸기단물같은것도 팡팡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주고 건설장들에도 보내주면 음료매대에 줄을 서는 사람들도 없어지게 될거요. 동무의견은 어떻소?》

어둡던 지배인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졌다.

《장군님. 그렇게만 되면 수도시민들뿐만아니라 인민군구분대들과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끌고루 사이다와 단물을 공급할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가슴에 엇걸으셨던 두팔을 풀어내리시며 일군들쪽으로 돌아서시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사람들같으면 지금있는 능력으로 어떻게나 해보겠다고 결의나 다지는것으로 끝나겠는데 여기 지배인은 제일처럼 기뻐합니다. 일군이라면 모든것을 이 동무처럼 생각하고 대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이 걸음걸음 우리 당을 따르자고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웨치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겠소.

인민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그것이 곧 로동당을 위해 일하는것으로 되고 나의 걸음을 따르는것으로 될것입니다.

모든 일꾼들이 이 지배인동무처럼 인민을 위해 마음쓰고 애쓰다면 우린 앞으로도 일이 잘되어나갈 것입니다.》

《장군님!》

젊은 지배인은 사과처럼 물든 얼굴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몹시 허둥거렸다. 주집어하는 지배인의 거동은 그이의 입가에도 가벼운 웃음을 띄워올렸다. 젊고 때묻지 않은 그를 보시는것이 내심 기쁘시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이 공장뿐만아니라 앞으로 새로 지을 사이다공장도 새 세기에 맞는 최첨단의 현대적공장으로 꾸리고 사이다, 단물직장과 함께 우리 나라에 흔한 약수와 샘물직장도 내와야 한다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새라 귀담아 적고있는 지배인과 당비서를 바라보는 한석주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음료공장을 꾸려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은 오늘 한순간에 결심하신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연시찰과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킨 전국의 토지정리, 만년대계의 물길공사와 현대적인 닭공장들과 목장들 그리고 세계를 놀래운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시내의 곳곳마다 문을 연 메기탕집들...

크고작은 이 모든것들이 어려운 고난을 겪고있는 오늘날에 이루어진것들이 아닌가!

생각에 잠겨있던 한석주는 그이의 부르심에 머리를 들었다.

《한동무. 상점들에 내놓은 약수와 샘물이 어떤것들입니까?》

《강서약수와 신덕샘물입니다.》

《강서약수와 신덕샘물... 이것보시오. 우리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좋은 약수와 샘물이 있소.

창성약수, 삼방약수, 옥호동약수, 옥류약수...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나라> 라는...》

그이를 우러르는 지배인 송려수와 당비서의 얼굴에는 이름할수 없는 환희가 빛나고있었다.

《우리 랭천이 얼마나 좋은 물이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물에 고급향료와 영양첨가제를 넣으면 우린 얼마든지 세계적인 음료를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우리 룡성맥주는 아시아와 유럽나라들에서도 인정하는 훌륭한 맥주지만 사이다는 그렇지 못하거던.

지배인동무, 동무가 주인이 되어 세계에서 으뜸가는 음료를 만들어보라구. 그래서 가까운 앞날에 군대와 인민들에게 풍족히 공급할뿐아니라 우리 나라에 오는 모든 외국사람들이 숙소에 려장을 풀자마자 랭천사이다를 찾게 만듭시다.

지배인, 당비서동무, 자신있소?》

흥분한 지배인이 목갈린 소리로 그에게 대답올렸다.

《예, 해보겠습니다. 아니, 꼭 해내겠습니다!》

믿음어린 눈길로 신심에 넘쳐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별안간 추연한 빛이 어리시였다.

《수령님께서 그런 고급음료를 마음껏 마시게 될 우리 인민을 단 한번만이라도 보실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장군님, 저희들이 구실을 하지 못해서...》

눈물에 젖은 지배인의 목소리는 끝을 맺지 못하고 흐려졌다. 그와 함께 장단이 느껴지던 당비서도 머리를 떨구었다.

그이께서는 별들이 희미해지는 먼 새벽하늘에 눈길을 주시였다.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올수록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어깨우에 무겁게 실린 나라와 인민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절감하시였다. 그이의 눈썹은 심장속에는 기어이 이 땅에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우리 인민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던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실 원대한 뜻이 신념과 의지의 산악으로 솟구쳐오르시였다.

《사이다는 결코 단순한 청량음료라는 소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준엄한 이때 사이다를 생각했는가.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자기의 일관한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난관을 이겨내며 쉬임없이 투쟁해왔습니다.

우리가 선군정치를 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입니다.》

순간 한석주의 가슴은 크나큰 충격으로 뛴뛴하였다. 인민의 참된 총복임을 온 세상에 선언하시는 그이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숭고한 인생관이 그의 심장을 울리며 이 땅에 뜨겁게 메아리쳐가는것이다.

한석주는 달아오른 심장의 박동을 지그시 눌렀다.

수령님께서 계실 때부터 인민생활부문의 책임일군으로 세계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국제회의들에도

빠짐없이 다녀온 그였고 경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해 지금껏 뛰여다닌 자기였지만 진정 총대를 앞세워 우리 인민에게 최상의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이었다.

어느 누가 핵참화의 전쟁접경으로 치달아오르는 엄혹한 이 시각에 청량음료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민족의 운명, 인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에 충만되시고 수령님의 념원이 깃든 이 땅위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지닐수 있는 위인의 거대한 세계인것이다.

그러하기에 제국주의자들과 맞설수 있는 새로운 자위의 무장력이 갖추어질 때나 길가의 어린애가 고뿌를 기울여 사이다를 마시는것을 보실 때나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서로 똑같은 크기의 기쁨을 느끼시는것이다.

한석주는 그 어떤 힘과 용기가 온몸으로 내뻗치는것을 느끼며 머리를 한껏 들었다.

밝아오는 새벽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었다. 그 빛발을 받으며 우렛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문수봉골짜기로부터 싱그러운 숲속의 새벽기운이 밀려왔다.

승용차가 소리없이 그이앞으로 다가와 멎었다. 얼핏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셨던 그이께서는 아직 못다준것이라도 있는듯 공장을 둘러보시며 지배인과 당비서의 손을 굳게 잡아주셨다.

《자, 일 잘하라우! 난 동무들을 믿고 가겠소.》

《장군님!》

지배인과 당비서는 깊숙이 허리굽혀 그이께 인사를 올리였다.

기운차게 손을 들어 답례하시고 차에 오르시려던 그이께서는 문득 생각나신듯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시였다. 그러시고는 영문을 몰라하는 그들에게 활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참, 사이다공장에 왔다가 그냥 가겠소? 훈련에 땀이 마를새 없는 우리 병사들은 시원한 사이다를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장군들이 마셨다는 약썸물이니 더 좋아할것입니다. 난 고조선때의 단군도 그렇고 고구려 때의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도 이 썸물을 마셨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얼굴에 유쾌하고 즐거운 웃음이 비졌다.

승용차는 서서히 공장정문을 빠져나가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시야에서 사라지는 문수봉의 울창한 수림을 바라보시며 랭천약썸을 생각하시였다. 죽은 사람도 되살려 전장을 내달리게 했다는 장수썸이 장수사이다를 받아놓고 기뻐할 전연구분대 병사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시였다.

인민들이 만들어보낸 랭천사이다니 더 힘을 줄것이다. 이 장수약썸사이다를 마시고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자랄것이다...

차창으로 비껴드는 새벽노을이 열정과 기백에 넘치신 그이의 안광을 붉게 물들였다.

시내중심을 벗어난 승용차는 서해안지구의 전선구분대를 향해 쾌속으로 달리였다. 점점 멀어지는 고층살림집 창문들에 연한 노을빛이 물들기 시작하였다.

명언해설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이 전진하며 수령의 품속에서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난다.》

김정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없이는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인민의 참된 삶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 뜻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혁명의 최고뇌수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고 직접적담당자이지만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지 못하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없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는 어버이이다. 수령의 자애로운 품속에서만 인민대중의 값있고 보람찬 삶이 꽃피날수 있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핵이고 최대의 애국애민이다.》

김정일

철령에 산다

김연

철령

내 아직은 한번도 오른적 없어도
마음속에 늘쌍 네가 솟아있어
그리도 자주 오르는것이리

이 아침도 서둘러 나서는 출근길우에
너의 령길은 보여오고
길가에 소담히 핀 이름모를 꽃송이에서도
철령의 철쭉꽃향기는 물씬 풍겨와...

내 사는 북변의 철의 도시
여기서 철령은 아득히 멀어도
내 때없이 오르고 또 오르는
정깊은 산정이어

내가 아니더나
우리 장군님 그리도 자주 오르신
뜨거운 령길
쪽잠과 췌기밥...
선군혁명의 출근길처럼
넘고 또 넘나드신 못잇을 그 길이

아, 우리 사는 고향의 길을 지켜
장군님 찍어가신 눈물겨운 그 자욱 못잇어
자다가도 문득 깨어나 그려보는 철령
내 맘속에 높이도 솟았나니

진정 우리 장군님 철령에 찍으신
조국수호의 그 자욱이 없었다면
이 땅은
제국주의군화자욱에 어지러워졌으리
우리 삶은 노예로 짓이겨져
피눈물을 흘려야 했으리

하기에
너의 굽이굽이는 몇몇이나 되는지
가파로운 협곡은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해도
너의 령길은 피줄처럼 내 심장에 뻗었고
너의 령봉은 삶의 분수령되어

내 심장속에 솟았거니
오르리라, 철령이어
내 언제나 너의 산정을 오르리라
만일 안일한 순간이
잠시라도 나에게 찾아온다면
철령의 눈보라를 부르리라

아, 몸은 비록 천리밖
북변땅에 살아도
결사옹위로 불타는 삶의 자욱
너의 령길에 새기며
내 영원히 너를 오르며 실리라
내 한생 철령을 내리지 않으리라

그 사랑의 한끝은

박웅전

잊지 못할 그 새벽
범안리에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
소문도 없이 들어서시여라
한 젊은 제대군인부부 사는 집뜨락으로
친아버지가 되시여
사랑의 자옥을 남기시여라

세간넌 자식네 산접살림인듯
칸칸이 구석구석 보아주시며
그쫘히 갓춘 부엌세간앞에선
그리도 기뻐하시더니

아궁에 놓인 장작가치 보시고는
못내 아쉬우신듯
떠나시며 당부하시여라
전기로 밥을 지을 때
자신께 꼭 편지하라고

마을에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도
사계절 돌고돌아 좋다하시더니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엔
그리도 끝이 없으신가
그 한끝까지 보아주시자고

남기고 떠나신 사랑의 편지약속

온 마을이 전기온돌에
전기밥가마 걸어놓은 날
행복한 제대군인부부가 올린
그 편지 보아주신 장군님
좋은 소식 알려주어 고맙다고
친히 회답서한 보내주셨어라

아 쏘아지는 해빛
설레는 오후백과
선경마을 백학의 처마들도
하늘중천 둥둥 떠오를듯

어디에 있었던가
온 나라 방방곡곡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발전소들
우리 장군님 전기화구상의 그 한끝은

뜨거운 전기밥가마에서 쌀밥을 푸는
이 나라 너인들의 흐뭇한 미소
그 기쁨, 그 행복속에 있어라
아버이사랑의 그 한끝은

백두의 푸른 버들

송재하

그 무엇을 속삭이느냐
그 무엇을 일깨워주느냐
줄줄이 푸르름으로 단장하며
무르녹는 봄빛아래
한껏 머릴 든 백두버들이여

날새마저 얼어떨어지는
한겨울의 흑한도 견디여내고
나무도 뿌리채 뽑아던지는
광야의 그 폭풍도 이기여내고
너 이 봄을 맞이했으니

쓰러지면서도
백두산을 우러르던
선렬들의 불같은 뉘을 지니여
줄기 하나
잎새 하나도
그처럼 억세인것인가

내 고향의 수양버들은
봄바람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만
백두버들이여, 너는
하늘도 땅도 얼어터지는

그 겨울앞에서도 머릴 들었거니

뿔뿔하구나

자랑스럽구나

눈바람 세차면 세찰수록

폭풍이 광야를 뒤흔들수록

보란듯이 솟구친 너

선렬들의 그 넋을 안아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져내린대도

너는 언제나

백두산을 우러르며 끄떡없으리니

나 또한 다름없어라

선렬들의 붉은 피

온몸에 굽이치는 이 땅의 아들

백두산과 더불어

시련도 웃음으로 이기는 청춘이기에-

나는 축복이를 봅니다

류영순

찬이슬 내리는 전호에서

나는 축복이를 봅니다

그 애가 글썽

총창에 맺힌 이슬방울속에

생글거리며 웃습니다

밤이면 그 애가

저 하늘의 별들속에 나타납니다

축복받는 제 이름 내가 아는데도

가만히 귀가에 속삭여줍니다

전호가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소리

그 애의 발자국소리만 같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면

우리 제도가 아니라면

그 애가, 축복이가 아니라

불행아로 태어났을 운명

그래서 우리 장군님

나라의 경사로 지어주신 이름

나는 봅니다

그 애가 별스레 자꾸

나를 찾아오는듯 만 싶어

총멘 어깨를 으쓱

그 애앞에 돌구어보입니다

그러면 캐드득-

행복이 쏟아집니다

나의 총창에 부딪치는 웃음

나의 군복에 부비는 어리광

나는 의젓이 받아줍니다

병사인 까닭에

축복이가 더 사랑스럽고

그 애가 걸음마때는 이 땅이 더 중해

내 가슴은 절로 무거워집니다

나는 분명 축복이의 행복을

지켜주고있습니다

축복이는 나의 조국

나의 인민

나의 미래

우리 장군님 가꾸시고

꽃피워주시는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입니다

장군님 아니계시면

축복이도 없고 나도 없을 이 땅

장군님 위하여 축복이가 자라고

축복이를 위하여 굳건한 총대

총대는 내 손에 틀어쥐여있습니다

아. 병사는 축복이를 생각하며

밤을 새웁니다

축복이와 함께 전호를 지키며

이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의 제도

장군님식솔

내 나라의 안녕은 총대로만 담보되기에...

위대한 공헌

주체35(1946)년 12월이었다.

그 시기 녀맹일군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습들을 광범히 조직진행하면서 정치과목의 하나로 《혁명사》를 취급하였다.

그런데 《혁명사》 강의에서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사 전반을 배워준다고 하면서 해방전에 이러저러한 형태로 전개된 반일투쟁들을 잡다하게 언급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에 대하여서는 단편적인 문제들만 취급하는데 그치었다.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날 녀맹중앙일군들에게 지금 강습들에서 《혁명사》를 취급하고있는데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김일성**장군님의 혁명력사를 배워주는것이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그러시면서 《혁명사》라고 하니까 지난시기 벌어진 이러저러한 투쟁을 다 포괄하여야 하는것처럼 잘못 인식하고있는데 진정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사라고, 그렇기때문에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를 기본으로 하여 배워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순간 녀맹일군들은 정치적안목이 무디었던 자신들을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심한 자책감에 싸여있는 그들에게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에게 **김일성**장군님의 투쟁력사를 옹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루빨리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종합체계화한 책이 나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책으로서 장군님의 전기나략력,략전같은것을 낼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지금 당장 전기를 편찬한다는것은 어렵지만 잘만 하면략전은 편찬할수 있다고, 우리는 힘을 넣어 먼저 **김일성**장군님의략전부터 내고 경

험이 축적되고 준비가 갖추어지는데 따라 앞으로 전기와 혁명력사도 편찬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었다.

김일성장군략전편찬사업, 그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빨찌산청년장군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가지가지의 전설같은 이야기들로 흥미의 정을 끌려왔으며 해방후에는 수령님의 반일투쟁력사를 알려줄것을 열렬히 갈망하던 우리 인민의 념원이었다.

아직은 그 누구도 위대한 수령님의략전이나 전기와 같은 책을 편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해방직후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략전부터 편찬할것을 받기하시고 이 사업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신 백두의녀장군 김정숙동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장군님의략전을 내는것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길이 빛내이기 위한 의의깊고도 영예로운 사업일뿐아니라 우리 인민들을 장군님의 사상대로 살며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 조국건설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고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던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있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로 튼튼히 무장하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김일성**장군의략전》의 출판은 백두의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우리 당과 인민을 위해 이룩하신 불멸의 위대한 공헌인것이다.

절세의 위인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늘 깊이 간직하고 사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신다.

가사

김정숙어머님 모습

한영빈

따뜻한 미소가 넘쳐흐르는
군복입은 그 모습은 해발입니다
자애론 그 해발 강산에 넘쳐
온갖 꽃 아름답게 만발합니다
아 김정숙어머님
이 강산 꽃피우는 해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뿌리는
총잡으신 그 모습은 성새입니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용위한

녀장군 그 모습은 성새입니다
아 김정숙어머님
수령결사옹위의 성새입니다

새 세기의 우리 태양 안아올리신
어머님의 그 업적은 끝없습니다
천만년 길이 빛날 태양조선의
영원한 미래를 주셨습니다
아 김정숙어머님
무궁토록 길이길이 모시립니다

주작봉마루의 이름들

곽명철

한사람
또 한사람
주작봉에 서있는 투사들의 이름들
바라보면
낯선 이름 하나도 없구나

우리 수령님 몸소 쓰신
회고록의 갈피갈피에서
또 투사들의 회상기를 읽으며
한고향사람들처럼
그 이름 정이 든 사람들

그래서인가
여기에 오르면 오를적마다
따로
누구의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음은

한 이름 조용히 불러보면
원썬들의 그 모진 악형에
별갈던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치던
그날의 그 모습 방불히 떠오르고

또 한이름 마주하면
붉은기앞에 다진 그날의 맹세지켜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혀를 물어 끊던
백절불굴의 그 모습이
이 가슴에 다시 파고들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만으로
여기에 오른이 하나도 없구나
조국이 그토록 못잇는
그 피어린 년대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것으로 하여
뿔뿔이 엄숙한 그 자리 차지한 사람들

아, 진정
빛나는 삶의 거울처럼
뚜렷한 이름들
누구라없이 그 이름 불러보면
이 가슴에 불같은 신념 더 억세게 해주고
대를 이어 끝까지 혁명할 생각만을
더더욱 북돋아주누나

여기에 번지는 폐지는 따로 없다
허나 주작봉마루의 저 이름과 이름들은
그대로 우리 혁명전통의
또 하나의 빛나는 글발이 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슴마다
새겨지고있어라

오늘도 전호가에 마음을 얹고 산다

신형길

세월의 눈비속에 무너진
옛 화점앞에 서니
나는 눈길을 떼지 못한다
움켜쥔 한줌의 흙에서

처절한 격전장
오늘도 수두룩이 널려진 탄피

50년 그날에로 마음 이끈다
열여덟 청춘을 바쳐
리수복영웅이 가슴으로 막은 화구

피젖은 흙
금시 나의 손을 붉게 물들이는듯
불굴의 그 넋이 숨배여

이 가슴 바이 진정하지 못해라

귀기울이면

심장을 울려주는 그 웨침

-돌격 앞으로!

지금도 산발 넘어 뚝뚝 울려퍼지는듯

얼마나 감회깊은 추억이라

해방된 조국의 품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새삶의 씨앗을 묻던 희열에 찬 나날들

이 행복 앗으려

달려든 원썬들이기에

천백배 복수를 다짐하며

조국수호의 맹세다지고

결전의 길로 내달은 전우들

내 오늘은

귀밀머리 희여졌어도

옛 전호가에 마음을 엮고사는

선군시대 장군님의 병사

원썬들 이 땅에 또다시 덤벼든다면

나의 전우 리수복영웅의 넋을 안고

그날의 피끓는 젊음을 안고

침략자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선녀들을 부른다

김파

저 《무회대》에 밤이 지새도록
노래하며 춤추며 즐기었다는
아름다운 전설만 여기에 남겨놓고
하늘로 날아오른 선녀들아
칠보산의 선녀들아

장군님 오셨던 자옥을 따라
승선대에 올라 내 너희들을 부른다
아득한 옛적 그때 그날처럼
초가집바위 문을 열어놓으며
풍금바위 선물을 다시 올리며
벽계수의 흐름소리 저리도 유정하고
천불봉의 신묘함은 여나 다름없어도
선군시대 장군님 사랑속에 변모된
동해명승 칠보산 새 모습이 그만 취해
어여쁜 너희들을 부른다

내려오너라 선녀들아
오솔길에 덤불 쌓여 한적만 하던
옛날의 칠보산이 아니란다
끝안마다 활짝 열린 관광도로며
저 봉우리들에도 열려진 하늘길들

노래길 굽이굽이
웃음길 굽이굽이
온 나라, 온 세상이 찾아온다고
산새들도 청을 돋귀 은방울 구울리니
명승지의 황홀경이 아니냐

내려오너라
그러면 칠보산이
천하절경 명산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수답바원 해를 치며 기쁜 소식 알려주고
치너바원 반겨주며 길안내 따라서리

아, 락엽속에 빛을 잃고
흐른 세월 얼마더냐
칠보산을 인민의 명산으로 빛내여주신
장군님 그 사랑에 눈굽을 적시며
내 오를 승선대에서 너희들을 부른다

어서들 내려오너라
꿈에도 너희들은 못그려보았을
선군시대의 새 칠보명산이거니
선녀들아 이제 내린다면 내린다면
다시 더는 저 하늘로 오를 생각 못하리

집

조근

1

허물어진 이 집터자리에 어떤 집이 서있었으며 어떤 사람이 살고있었는지는 알수 없으시였다. 삽질을 하실 때마다 묵은 잡초밑에 드러나는 갈비뼈처럼 앙상한 수주대산자며 비에 씻기고 해별에 굳어진 검붉은 진흙덩이들, 깨어진 오지그릇조각이며 벽돌부스레기들, 꺼떻게 그을음이 낀 구들장들... 가난의 흔적이 눈에 밝히실 때마다 어머님께서서는 아픔을 느끼곤 하시였다. 나라 잃고 조국이 없던 탓에 가정과 집을 떠나 흩어진 이 얼마며 돌아오지 못한이 얼마였던가 아마 이 집 터주인도 해방전 살길을 찾아 타향으로 술가해간것은 아닌지 ...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저택옆의 이 집터자리를 오래전부터 유심히 살피오시였다. 해방이 되었으니 혹시 집주인이 고향으로 돌아올수도 있지 않을까. 주인이 돌아오면 여기에 새집을 세우고 이웃으로 함께 살면 얼마나 좋으랴 싶은 생각이 들곤 하시였다. 그런데 해방된지 두해가 지나도록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버림받은 집터에는 능쟁이며 쑥이며 가라지풀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귀뚜라미며 메뚜기 등 곤충들의 좋은 서식터로 되었다.

아까운 땅을 그냥 묵여둘수 없다고 생각하신 어머님께서서는 손수 삽과 괭이, 삼태기를 들고나오시여 밭을 일구고계시였다. 돌멩이들과 벽돌부스레기들을 쳐내고 흙에 묻힌 구들장들을 뽑아내시고... 구들장들은 달라붙은 흙을 정히 긁어내여 이 집의 유일한 부동산처럼 남아있는 대추나무밑에 나란히 세워놓으시였다.

3월중순의 해는 하늘중천에서 빛나고있었다. 대동강쪽에서 봄볕에 덥혀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한창 일에 열중하시던 어머님께서서는 누구인가 저택쪽에서 이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다가 우뚝 멈춰서는것을 느끼시였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돌리시니 돌각담옆에 회색중절모를 쓰고 단긴깃옷을 입은 키가 큰 사람이 서 있었다.

《김책동지!》

어머님께서서는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얼른 마주가시였다.

《언제 오셨습니까?》

어째서인지 김책은 대답이 없었다. 묵묵히 어머님을 지켜보는 강마른 얼굴에 피로운 빛이 실려있었다. 동해안지구의 산업복구로 출장갔던 일이 시원치 않은것 같아 어머님의 마음도 어두워지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건강하십니까?》

이윽고 김책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에 김책동지가 돌아오시면 꼭 쉬게 하라고 이르고 서해안의 농촌으로 나가셨습니다.》

김책의 눈빛이 비로소 부드러워졌다. 그는 저택쪽을 향해 부관을 불렀다.

《준호동무- 빨리 좀 오라구.》

저택모서리에서 부관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이쪽으로 달려왔다. 김책은 어머님께서 쥐고계시는 삽자루를 당겨잡더니 부관에게 내밀었다.

《준호, 우리 땀 좀 흘려보자구.》 하고는 집터자리를 한바퀴 둘러보고 허리를 굽혀 무거운 구들장을 안아들었다. 어머님께서 당황하여 만류하시였다.

《김책동지. 그만두십시오. 이젠 제가 소일거리로 하는건데...》

김책은 웅대없이 구들장을 들고 대추나무밑으로 걸어갔다. 어머님께서서는 의아함을 느끼시며 삽질을 하는 준호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준호동무, 김책동지가 건강을 상하신건 아닙니까? 동무도 그렇구. 왜들 얼굴색이 그렇습니까?》

준호는 삽날에 담긴 흙을 저쪽 웅덩이에 끄- 던지며 안타까운 표정이였다.

《정숙동지, 김책동지는 내내 정숙동지 근심만 했던 말입니다. 병세가 더하지나 않는지 모르겠다면... 돌아올 땐 경성료양소에 들러 정숙동지를 잘 모실수 있도록 준비해놓으라고 지시까지 주었습니다.》

《그런걸 난 또...》

어머님께서서는 마음이 놓이시여 미소를 지으시였다. 준호는 여전히 뿌루퉁해서 말쑥드렸다.

《저택에 들어설 때는 또 어떤줄 아십니까. 정숙동지가 침상에서 놀라실수 있으니 차를 소리나지 않게 살랑살랑 몰라고... 그런데 정숙동지가 어디 그런 마음을 알아주기나 합니까. 집은 비워두시구 이렇게 밖에 나와 찬바람 맞으며 <쳐너지개간>을

하시는걸 보았으니 속이 좋겠습니까.》

비로소 어머님께서는 왜 차소리를 듣지 못했든가 하는 의혹이 풀리시며 가슴이 뜨거워지셨다. 자신을 걱정해주고 녀려해주는 동지들의 성의가 고마우시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괴롭기도 하시였다.

김책과 같은 사람들까지 자신을 남다르게 대하며 존경을 표시할 때면 먼구스럽고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모르게 되시였다. 그저 산에서 싸울 때처럼 허물없이 대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언제인가 이 준호의 입에서도 《사모님》이라는 소리가 튀어나와 어머님을 몹시 실망케 한 일이 있었다.

《동생》, 《누나》라고 부르며 항일전에서 맺어졌던 혈육적인 뉴대에 금이 가는데 서글픔이 갈마드셨다. 그때 어머님의 해쓱해진 안색에 질겁하여 준호는 《정숙누나》라고 정정하며 용서를 빌었다. 이와 비슷한 일을 가끔 당하실 때마다 어머님께서 남모르는 마음속 고충을 겪으시였다. 필경 이것은 어머님께서만이 당하시는 괴로움이였다.

대추나무밑에 구들장을 내려놓은 김책이 되돌아왔다.

《정숙동무, 저 구들장들은?》

《혹시 집터주인이 돌아올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새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김책은 어머님의 가룩한 마음씨에 감탄을 했다.

《김책동지, 어서 들어가십시오.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정숙동무가 먼저 들어가보시오. 이왕 손뎌 김에 우린 일을 마저 끝내구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점심차비를 하셔야겠기에 자리를 뜨시였다.

댁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님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준호가 의문이 실린 눈길을 김책에게 돌렸다.

《아니 김책동지, 집터주인이 돌아온단 말씀입니까?》

《준호, 그게 바로 정숙동지의 마음이 아니겠소.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요. 이제 공화국이 창건되고 나라의 권위가 세계에 빛나면 집터주인이 돌아올수 있구말구. 정숙동지는 벌써 먼 앞날을 내다보았소. 장군님과 함께 어떤분을 녀장군으로 모시였는지 우리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거던.》

김책은 저으기 흥분하였다.

2

부엌에 들어서신 어머님께서는 손을 씻고 국수마는 일에 달라붙으시였다. 마침 댁에는 소련군사령관 쓰띠코브가 보내여온 밀가루가 있었다. 장군님과 허물없는 사이인 그가 예고도 없이 불쑥 댁에 들어섰다가 너무도 겸소한 진지상을 보고 보내여온 것이였다. 국수꾸미로는 닭알부침을 하시였다. 만경대할머님께서 닭을 쳐서 한알두알 모아 보내주신 것이였다. 두세가지밖에 안되는 반찬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식성이 좋지 못한 김책의 구미에 맞게 만들겠는가를 생각하시며 심혼을 쏟으시였다.

밭일을 끝낸 김책과 준호가 마당에 들어서자 어머님께서 소랭이에 물을 떠가지고 나가시였다. 김책은 로동의 열기로 불깃불깃해진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을 돌아보았다.

《땀을 흘렸더니 몸이 거뜨해집니다. 역시 로동이란 몸에는 보약인가 봅니다. 허허...》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일손을 잡지 않으면 몸살이를 한답니다.》

어머님께서 응수하시자 김책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정색해졌다.

《아니 그건 나처럼 건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정숙동무는 의사들의 권고대로 첫째도 둘째도 안정해야 합니다. 의학이야 부인할수 없는 과학이 아닙니까.》

《호호... 또 그런 말씀을...》

《정숙동무가 건강해야 장군님께서도 건강하실것 아닙니까. 정숙동무의 건강이자 장군님의 건강이라는것을 명심해주시요.》

어머님께서 가슴이 뜨거우시였다. 자기는 새나라 건설로 뛰어다니느라 체품 돌볼 생각을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는 무던히도 애쓰는 김책이였다.

김책은 준호와 함께 국수상을 마주하자 과묵한 얼굴에 감회깊은 빛을 띄웠다. 인차 수저를 못들더니 문득 남야영시절 이야기부터 꺼냈다.

《정숙동무, 난 장군님댁에서 국수를 대할 때마다 남야영시절이 생각나군 합니다. 장군님과 하바롭스크에서 상봉하고 남야영에 갔을 때 정숙동무가 국수를 눌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국수맛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추억에 잠기시였다. 장군님께서 김책을 데리고 오셨는데 마음뿐이지 변변히 차리지 못한 국수상을 드리며 송구스럽던 일... 그때 김책은 오래동안 북만에서 싸우다보니 이젠 맛조차 잊을번 한 조선국수를 맛본다며 여간 기뻐하지 않았

다. 엄격하고 과묵한 용장으로만 아시었던 김책의 소탈한 품성에 어머님께서서는 대변에 만오라버님과 같은 친근감을 느끼시었다.

《그때 식사를 마친후 장군님과 함께 밖에 나와 산책을 했습니다. 눈이 하얗게 덮인 숲속길을 끝없이 걸었습니다. 난 장군님과 상봉한 감격에다 정숙동무가 눌러준 국수까지 대접받고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허물없이 <장군님, 정숙동무의 음식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난 그저 북만에서 정숙동무가 용감하고 총 잘쓰는 녀장군이라는 소문만 들었는데 오늘 보니 소박하고 부드럽고 인정많은 그 성품에 탄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장군님께서서는 그저 웃기만 하셨습니다.》

《김책동지-》

어머님께서서는 당황하여 나무람을 하시었다. 김책은 다시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정숙동무, 내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지도 몇해되도록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있습니다. 산업을 책임졌다는 사람이 정숙동무의 부역일조차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니 면목이 없단 말입니다.》

《김책동지, 그만하십시오. 제가 응당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뭘 그러십니까.》

김책의 깊은 심중을 헤아리시며 어머님께서서는 생각에잠기시었다. 일전에도 준호가 찾아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

《정숙동지, 요즘 김책동지가 뭔가 고민하며 몹시 괴로와하고있습니다.》

《무엇때문입니까?》

《제가 자꾸 물었더니 이렇게 묻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준호, 동무생각엔 이 김책이 건국사업에서 무엇을 놓치고있다고 보나?> 너무 뜻밖이어서 대답을 못하니까 김책동지는 가슴을 두드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을 놓치고있단 말이야. 기본을...>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아 부정했습니다. <부위원장동지, 부위원장동지야 새 조국건설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고계십니까.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하느라 언제 한번 편히 쉬지두 못하시구. 그래서 장군님과 정숙동지께서는 늘 부위원장동지 수고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이룰 생각도 못하고 속소생활을 하는걸 보면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시며.> 그랬더니 부위원장동지는 <준호, 동무도 그래 나도 그래 새 나라를 세우자니 모르는것이 많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뚝뚝히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철두철미 장군님의 나라라는것만은 명심해야

돼. 이게 우리 국가의 핵으로 되어야 해. 그런데 나라의 산업을 책임졌다는 이 김책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응? 물론 나라살림살이가 어려운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국내외에서 술한 손님들이 장군님을 찾아 구름처럼 모여드는데 숙소 하나없이 다 장군님덕에서 치르게 해야 옳겠나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정숙동지가 저자구력을 들게 해야 옳겠는가 말이야.>》

준호는 자기의 감정까지 섞어 김책의 말을 열을 올려 전했다.

《그래 그일때문에 갑자기 왔군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자 준호는 이때라고 자기의 속심을 터놓고말았다.

《정숙동지, 아직 나라형편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님들에 대한 국가적인 생활보장체계는 서야 한다고 봅니다. 정숙동지가 늘 손에 물마를 새 없이...》

어머님께서서는 난처한 기색을 지으시었다.

《준호동무, 그 마음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또 저 역시 웅색하게 살고싶지 않습니다.》

정녕 그러하시었다. 손님이 많다 해도 장군님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다 자신의 손으로 대접하고싶으시었다. 자신의 생활 역시 남이 헌신을 신으면 헌신을 신고 남이 조밥을 먹으면 조밥을 먹고 남이 기운 옷을 입으면 기운 옷을 입어야지 무엇때문에 남보다 튀어나와 웅색스럽게 살겠는가, 이 김정숙이는 예나제나 다르게는 못산다고 여기시는 어머님이시었다. 그 절절한 심정에 놀리운듯 준호는 락심한 기색을 지었었다. 이것이 얼마전 김책이 동해안으로 출장떠나기전에 있던 일이었다.

지금 국수상을 물리고 남야영시절을 상기시키는 김책의 눈빛에서 어머님께서서는 그것을 다시 읽으시었다. 김책은 손수건으로 입술을 닦으며 험험한 태도를 지어보였다.

《정숙동무의 빨찌산음식솜씨는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니 저도 기쁩니다. 김책동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한대도 빨찌산에서 배운 생활만은 절대 변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웁습니다. 말이 난김에 요전에 쓰픽프브사령관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장군님을 만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김책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심중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장군님덕에 가볼 때마다 한 나라 령도자의 부인께서 수수한 옷을 입고

밭일, 부엌일까지 하는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더우기 어린 장군까지 기운 양말을 신은것을 보고 어머님의 변함없는 빨찌산식생활에 경탄하지 않을수없습니다.> 라고 하더라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김책동지, 그건 저에 대한 최상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김책은 안색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 말을 나에 대한 비판으로 들었습니다. 얼굴을 들수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 내 오늘은 정숙동무와 한가지 문제만은 락착을 짓자고 합니다.》

김책은 단호한 태도를 지었다.

《난 자그마한 술공장 하나 차리자고 합니다.》

《예?!》

어머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라시였다. 술은 혁명과 인연이 먼 금물로 되어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사람들은 물론 국내외혁명가들, 독립운동자들, 민족주의자들... 그때마다 매번 되병을 들고다닐수야 없지 않습니다. 더우기 이 문제는 장군님의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조금도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세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머님께서서는 생각에 잠기시였다. 김책이 고맙게 생각되시였다. 사실 그이께서 시장에 다니시며 식료품들을 구입하는것은 술과 같은 음료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마음놓으실수 없기때문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산에서부터 견지하여오신 생활준칙이였다.

《김책동지, 그건 저도 찬성입니다.》

김책은 회색이 만면했다.

《됐습니다. 정숙동무의 동의를 얻었으니 이젠 됐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장군님께 말씀드리지 말아주시오. 우리끼리 합의하고 제할바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책은 만족하여 껄껄 웃었다.

《내 그래서 두루 알아봤습니다. 해방전에 평양에서 유명한 술로는 <룡강술> 이라고 합니다. 그 양주업자가 룡강 어딘가에 살고있다고 합니다. 딸 하나 데리고 술을 뽑는데 양주기술이 대단하답니다. 그래 그령감을 당장 만나보자는것입니다.》

《아니 지금 말입니까?》

《소별은 단김에 빼됐다구 준호동무, 이젠 가자구.》

김책은 움쭉 자리를 일었다. 어머님께서 좀 쉬고

가라고 만류하셨으나 그는 벌써 마루에 나가 구두를 신고있었다. 열려진 미닫이사이로 별로 수척해보이는 김책이 마당을 가로질러가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였다. 어머님께서서는 얼른 부엌칸에 들어가시여 자그마한 사기단지를 들고나오시였다.

《준호동무-》

준호는 단지를 보더니 우뚝 굳어져버렸다.

《이건?!》

《보약인데 끼니때마다 김책동지에게 한두술갈씩 드려요.》

《안됩니다. 무슨 경을 칠려구.》

준호는 마당 저편 차결에 서있는 김책을 흘금 눈짓했다.

《일없어요. 장군님께서 김책동지의 건강을 두고 녀려하시기에 만들어두었던거랍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준호의 등을 떠미시였다. 이윽고 발동을 걸고 떠나는 차를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주시였다.

3

엇그제 봄비가 내렸다. 이랑을 지어놓은 밭은 흙이 보실보실해져 씨뿌리기에는 안성맞춤이였다. 자그마한 밭이지만 명색이 밭이라고 품은 품대로 다 들었다. 씨를 구해야 하고 거름을 내야 하고... 어머님께서서는 분망하신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하시느라 언제 밭을 돌볼 짬을 낼수 없으시였다. 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신 어머님께서서는 점심참을 리용하여 씨뿌리기를 하고계시였다. 눈에 차지도 않는 작고 가벼운 부루씨를 줄에 쥐시고 고루 뿌리신 다음 흙속에 배기도록 푹푹 밟으며 나가시였다. 신 밭에는 흙과 먼지가 묻어올랐다.

일에 여념이 없던 어머님께서서는 언덕아래 큰길로 웬 젊은 녀인이 사위를 살피며 올라오는것을 문득 보시였다. 대단히 이채로운 차림새였다. 쪽 빠진 늘씬한 큰 키에 까만 세루양복을 입고 손에는 러행용 가죽트렁크를 들었다. 길바닥을 따각따각 울리는 구두소리가 푹 끊기더니 다시 대추나무쪽으로 가까이 왔다. 어머님의 주의깊은 시선과 마주치자 녀인은 수심이 어린듯 한 얼굴에 상냥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저 말씀 좀 물어봅시다.》

어머님께서서는 무중 반가운 심정이 솟는것을 느끼시였다.

《어디서 오십니까?》

《여기 김책선생님택을 모르십니까?》

어머님께서는 대뜸 짐작이 가시었다.

《룡강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장점순동무가 아닙니까?》

《아이- 누구십니까?》

너인이 가늘게 부르짖었다. 어머님께서는 햇빛같은 웃음을 함뱉 지으시고 반기시었다.

《점순동무, 잘왔습니다. 김책동지가 몹시 기다렸습니다.》

너인은 묻는듯 한 눈길로 어리둥절해하였다.

《알고 지냈시다. 전 김점숙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사모님... 성함은 익히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인은 깅긋이 인사를 했다.

《점순동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저 한식술로 생각하구 동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제부터 한집안식구처럼 지내자요.》

어머님께서는 점순이를 댕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었다.

룡강양주업자의 딸 점순이-자세히 보니 눈귀의 가는 주름살이며 세련되고 기품있는 몸매머가 퍼그나 나이지숙하고 현숙해보였다.

요전날 룡강에 다녀본 김책은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점순동무, 한가지 시름은 풀렸습니다. 양주업자령감이 꽤찮은 사람이였습니다. 내가 술공장을 차려야겠는데 기술자가 없다고 했더니 대뜸 자기 딸을 데려가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건국을 위해 뭐든 하려던 참이라면서. 알고보니 장령감은 해방전에 민족적량심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온 애국적인 기업가였습니다. 딸을 당장 데리고 가라는걸 며칠 더 있으면서 준비랑 해가지구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점순이가 찾아온것이였다. 어머님께서는 점순이와 마주 앉으시여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사정형편이며 살아온 래력이며... 점순은 어머님의 인정미에 끌려 속을 다 털어놓았다. 듣고보시니 그 역시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어온 녀성이였다. 식민지 지식인의 울분, 청춘의 정열, 불타는 사랑, 푸른 꿈을 자기식의 《애국》에 깡그리 쏟아부었다. 하지만 갈길몰라 방황하던 《애국의 꽃》은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렸다. 민족기업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매관자본의 압력에 못견디여 기업이 완전파산을 당하자 점순에게는 《애국》이니 《독립》이니 하는 리념보다도 당장 입에 풀칠하는 문제가 급

선무로 나섰다. 끝내 울밑의 봉선화를 부르며 동무들과 뛰놀던 모란봉기슭의 기와집을 빼앗기고 아버지를 따라 가족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갔다.

《점순동지.》

점순이는 스스로없이 어머님을 《동지》라고 불렀다.

《설음 설음해도 가장 큰 설음이 집없는 설음이란 걸 뼈에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낯선 이국땅, 비내리는 남의 처마밑에서 우들우들 떨 때면 고향집 온돌방이 어찌나 그립던지... 앓고있던 어머니는 <날 따뜻한 구들에 좀 눕혀다오.> 하고는 눈을 감았답니다.》

점순이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었다. 어머님께서는 그의 손을 따뜻이 감싸주시었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나시였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었군요.》

《어머님을 이국땅에 묻고 아버지와 함께 방황했습니다. 그런 나날에 항일유격대의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왜적을 삼대배듯 끌어눌히시니 조만간에 나라를 찾아주실거라고 하시면서 고향에 도루 가서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 룡강땅에 나와 자리를 잡구 양주업을 다시 차렸습니다. 저도 사회운동을 단념하고 양주기술을 배웠답니다.》

《그랬군요.》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겪은 갖은 고생이 떠올라 목이 메시였다.

《그래요. 나라없는 설음, 집없는 설음보다 더 큰 설음이 없습니다. 나도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나 두만강을 건넌답니다.》

불현듯 말씀이 나가지 않으셨다. 오산덕의 작은 초가집이 눈에 삼삼히 떠오르시였다. 지금도 그대로 서있는지 아니면 저택옆의 집터자리처럼 쑥대밑에 구들장만 묻혀있지 않는지... 가보고싶으셨다. 하지만 인민의 새 나라라는 큰집, 공화국이라는 큰 집을 튼튼히 세우기전에는 가보실수 없다고 생각하시였다.

《점순동무, 한가정의 가장 큰 설음이 집없는 설음이라면 한 민족의 가장 큰 설음은 나라가 없는 설음, 자기 조국이 없는 설음입니다. 우리는 그 피맺힌 설음을 씻기 위해 장군님을 따라 설한풍이 휩쓰는 남북만주를 누비며 수십년을 싸워 승리할수 있는거랍니다. 김책동지를 잘 도와주십시오. 김책동지도 이국땅에 부모님을 묻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헤어져 소식도 모르면서 새 조국건설에 모든것을

바쳐가고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김책이며 함께 싸워온 전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었다. 점순이는 황홀한 심경에 잠겨 투사들의 세계에 깊이 끌려들었다.

《정말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싸운 항일투사들이야말로 참된 혁명가, 참된 인간임을 전 똑똑히 알았습니다. 김책동지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전 첫 인상에 매혹되어버렸답니다. 그분의 언행, 그분의 인품, 그분의 말씀에서 전 장군님의 건국사상을 알게 되었고 비록 기업가의 딸이지만 새 나라를 세우는데 한몫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점순동무, 정말 생각을 잘했습니다. 김책동지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서 오직 장군님만 받들어 싸워 온 훌륭한 혁명가랍니다. 그의 애국열의와 인간의 됃됨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서울의 유명한 변호사인 허헌선생까지도 감복하여 감옥에 갇혔던 그의 변호를 맡아주고 석방된 후에는 로자까지 주어 그를 혁명의 길로 떠나보냈겠습니까. 김책동지와 같이 훌륭한분은 응당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 마련입니다. 점순동무가 일을 하면서도 곁에서 그를 잘 도와주십시오.》

점순이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였다.

《전 아직 준비정도가 어리고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숙동지가 잘 가르쳐주십시오. 전 그저 정숙동지를 스승으로 모시구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점순동무야 나이도 우인데 우리 그저 한식구가 되어 손잡구 장군님의 건국사업을 힘껏 받들어나갑시다.》

어머님께서는 또 한사람의 동지를 얻으신 기쁨으로 얼굴을 환히 빛내이시며 점순이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었다.

4

이듬해 봄에 들어서면서 어머님의 일손은 더욱 바빠 지었다. 터밭변두리의 돌각담을 들어내고 밭을 더 넓혔으며 자그마한 온실까지 지으시었다. 저택옆의 구석진 곳에는 돼지우리까지 짓고 새끼돼지를 두마리씩이나 넣으시었다.

점순이와 준호며 경위대원들이 짹짹이 어머님의 일손을 도와주었다. 준호는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내놓고 반대는 못하면서도 속으로 끔끔 앓음소리를 쳤다. 돼지우리를 짓느라 톱질을 하던 끝에 역이 막혔는지 한마디 쏟아놓았다.

《아니 정숙동지, 정말 집집승까지 치시겠단 말씀입니까, 예?》

《왜 그렇게 놀랍니까. 집도 크고 트랙도 넓은데 집집승을 키우면 좋으면 좋았지 나쁠게 뭐 있습니까.》

《야- 이진 정말...》

머리를 썩썩 긁으며 안절부절 못하는 준호를 보시며 어머님께서는 웃음을 머금으시었다. 그의 심중을 왜 모르시랴.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작년 봄에 있는 리부관장의 결혼식때 일이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으시었다. 장군님의 탄생일을 앞두고 만경대집과 칠골집에서 콩나물을 가져왔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콩나물이 많이 들어온걸 보시고 기뻐하시며 콩나물이라도 있을 때 리부관장의 결혼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었다. 어머님께서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탄생일 이튿날에 잔치상을 차렸는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 갖가지 음식을 만들었지만 원자재가 콩나물뿐이라 고기점 하나 없는 《콩나물잔치》가 되고말았다. 신랑신부는 잔치상을 받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지만 어머님께서는 항일의 혈전속을 헤쳐온 전우에게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콩나물상밖에 안겨주지 못한것이 가슴에 맺히시었다. 올해에는 저 준호도 장가를 가겠는데 어떻게 하나 돼지라도 길러서 경위대와 혁명학원에도 보내주고 잔치상도 섭섭치 않게 차려주고싶으시었다. 그런 심중을 준호가 알수는 없었다.

한편 장점순은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을 극성스레 도우면서도 아주 로숙하게 은근히 조언을 주곤 하였다.

《정숙동지, 꼭 온실농사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점순동무, 이제 4월이면 남북련석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명망높은 인사들이 평양으로 오겠는데 그들에게 묵은 남새보다 풋남새를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저 돼지치는 일만은 삼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책동지가 알면...》

장점순은 모든것을 김책에게 밀어붙이곤 하였다. 한것은 어머님께서 김책과 같은 선배들의 의견만은 고려하지 않을수 없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어머님께서는 점순이의 속내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시었다. 점순이의 의사이자 김책의 권고였다. 작년 봄 김책의 숙소에 양주장을 꾸릴 때 어머님께서도 종종 나가시어 일손을 거들어주시었다. 김책은 정무를 보는 바쁜속에서도 짬을 내어 양주장일을 보아주었다. 점순이에게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 특히 발효와 가열, 령각과 려과를 비롯한 매 제조공정에서의 알콜성분과 조성의 과학적

수치를 요구하여 점순이를 찢절 매게도하였다.

《달리 생각마시오.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니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나라의 권위와 관련된다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과학성, 위생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김책이 종종 같은 말을 외우는것을 보시였다. 그때마다 점순은 귀뿌리가 빨갛게 익어 눈길을 어디 돌지 몰라 허둥거리곤하였다.

《김책동지, 점순동무를 믿으십시오. 점순동무가 어디 마음놓고 일하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점순이의 편역을 들어주면 김책은 껌은 웃음을 짓곤 하였다.

《허 참... 미덥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공화국이 창건되면 국가의 연회상에도 이 술이 올라야 하지않겠습니까. 로씨야의 위드까나 중국의 빠주, 프랑스의 샴파도 건줄수 있는 술을 만들자는것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술이 처음 나왔을 때 김책은 시계품을 들고 장군님부터 찾아갔다. 그리고 다시 어머님께로 달려왔는데 회색이 만면했다.

《정숙동무, 됐습니다. 장군님께서 술을 보시고 언제 이런 생각까지 했느냐며 매우 만족해하시였습니다. 술맛이 좋다시며 이젠 남조선과 해외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손으로 만든 좋은 술을 대접할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장차 김구나 김규식선생과 같은 우익민족주의자들과도 손을 잡고 전 조선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평양에 왔다가 이 술을 보면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책동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로 말하면 정숙동무와 점순동무가 했습니다. 점순동무가 기술도 있고 일도 잘하고 건국열의도 높은 좋은 동무입니다.》

그 과정에 김책과 점순은 부부가 되었다. 어머님께서도 못내 기쁘시여 그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그후부터는 김책이 직접 나서는 일보다는 점순이가 어머님께서 험한 일을 못하시도록 권고하는 일이 잦아졌다. 모름지기 김책은 점순이를 통해 어머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하고계시는 일을 낱알이 보고 받고 뒤에서 이러이러하라고 지시하는것이 분명하였다.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심중을 점순이에게 털어놓으시였다.

《점순동무, 산에서 총을 들구 적들과 싸울 때도

우린 전투만 한것이 아니였습니다. 농사도 짓구 밭도 하구 옷도 짓구... 혁명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백가지든 천가지는 다 해냈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여 달리는 살수 없는 몸이 되었답니다. 해방된 조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군님의 건국사업을 받들구 인민의 나라를 세우는데 리로운 일이라면, 도움되는 일이라면 한가지라보 더 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습니다. 혁명을 위한 일, 새 나라를 세우는 일, 동지들을 위한 일에는 높고 낮은 일, 천하고 고상한 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따로 없습니다. 다 같이 고상하고 영예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숙동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책동지도 정숙동지의 건강때문에 마음놓지 못하는 거랍니다. 육체적힘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료양도 끝내 거절하시구.》

《점순동무, 제몹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전 아직 일없습니다. 또 내외정세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국토가 영구분렬의 위기에 처해있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 밤 잠을 잊으시고 사업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순간이나마 자리를 비울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의 극진한 말씀에 점순이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였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건강을 더 잘 보장해드릴수 있을가, 어떻게 하던 장군님의 사업부담을 덜어드릴수 있을가, 어떻게 하면 동지들과 학원원아들을 더 잘 돌봐줄수 있을가, 하는 생각뿐이시였다. 생각할수록 일감은 산더미같고 시간은 모자라 심신을 불같이 태우며 달려 사시였다. 자신을 걱정해주고 위해주는 인민들과 동지들의 성의는 고마웠지만 그럴수록 그들을 위해 한가지 일이라도 더 해야겠다는 의욕이 불같이 일군하시였다.

4월중순이 되자 북과 남조선 각지에서 정견과 신앙, 당파와 소속을 달리하는 수많은 인사들이 평양에 모여들었다. 그들중에는 해방전 상해 《립정》에서 활동하던 우익민족주의 거두들도 있었고 해방직후 북에 들어와 장군님을 만나뵈웠던 김책의 은사 허헌도 있었다.

장군님께서 허헌을 만나시여 회의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중요한 담화를 하시고 김책과 함께 맥으로 오신다는 기별을 받으신 어머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장군님께서 허헌을 처음 데리고 오셨을 때 급하던 일이 생각나시였다. 변변한 식찬감도 없는데다 장에 다녀오실 시간도 없어 바빠하시자 장군님께서

너그럽게 웃으시며 있는 그대로 차려오라고 하시였다.

그때 너무도 겸손한 진지상을 마주한 허헌은 장군님과 어머니의 소박한 생활에 크게 탄복하였지만 돌아가서는 김책에게 이런 소리를 하였다.

《난 일생을 법률에 바쳐온 사람으로서 제판에는 동서고금의 국가제도, 정치체제, 법률제도를 연구하고 도통했다고 자부해왔소. 서방의 제국들과 동방의 약소국들을 돌아다니며 제 눈으로 보기도 했구. 해방후에는 우리 조선에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겠는가 하고 제 나름의 고민도 많이 했소. 그러다가 외세를 배격하고 한중도 못되는 친일, 친미파, 매국노들을 제외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민주를 지향하는 진 조선민족의 총의에 의한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장군님의 건국로선에 접하여 흥분을 금할수 없었소. 장군님의 건국로선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절감하고 복에 들어왔소.·· 장군님덕으로 가면서도 난 왜놈들을 벌벌 떨게 하셨다는 백두산 너장군을 뵈옵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울렁거렸소. 차마 진지상을 차려들고 들어오신분이 김정숙어머님일줄이야 꿈엔들 상상할수 있었겠소. 놀랍소 정말 놀라운 일이요. 어머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를 먼저 받았으니 경거망동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 무슨 온당치 못한 행위란 말이요.》

허헌은 자책으로 탄식을 했다.

《선생님의 심정을 잘 알겠습니다. 제 잘못이 큼니다. 사실 저는 산에서 싸울 때부터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 김정숙어머님을 국모로 잘 모시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만은 저로서도 어찌할수가 없습니다.》

김책이 사과하자 허헌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요. 이런 일에서는 김책선생과 같은 분들이 응당 법도를 세우고 수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소. 우리 새 조선을 세우는데서 기본은 장군님과 어머니를 잘 모시는것이라고 난 생각하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거든 선생님이 제때에 종아리를 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소. 아무쪼록 김책선생이 곁에서 장군님과 어머니를 잘 받들어주시오.》

어머님께서는 점순이를 데리고 온실에 나가시였다. 온실에는 두달 가까이 자란 부루가 벌써 손바닥 같은 잎새를 펼쳤고 쑥갓도 한뼘이상 컸다.

《보세요. 시작할 때는 힘 들었지만 벌써 먹게 되

었으니 얼마나 보람잡니까. 일이란 이런 재미에 하는가봅니다.》

점순이도 다래끼에 부루잎을 정히 속아넣으며 감탄을 했다.

《정말! 신기한 생각이 들군 합니다. 글썄 씨를 뿌릴때 같으면 눈에 차지도 않는 요것들이 언제 자랄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클줄은 아마 수천배로 자란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아닙니까. 생명의 힘이란 그렇게 크답니다. 내가 터밭을 가꾸는 일이나 점순동무가 술을 만드는 일이나 다같이 새 나라 건설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에서 인민의 나라라는 거목이 자라고 무성한 숲이 우거진다면 그보다 보람차고 영예로운 일은 없을것입니다. 나나 점순동무나 우린 새 조국건설의 씨앗이 됩시다.》

《알겠습니다, 정숙동지.》

그날 저녁 장군님께서는 김책과 함께 허헌을 데리고 들어오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소박하나 정성껏 차린 진지상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상을 놓아드리고 다소곳이 머리를 숙여 허헌에게 인사를 하시였다.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수고많으셨습니까. 변변치 않지만 많이 들어주십시오.》

《어머님, 건강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뵈게 되어 기쁩니다.》

허헌은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였다. 그리고 장군님과 김책과 함께 상을 마주하자 못내 즐거워 마지 않았다.

《장군님, 장군님덕에 오면 꼭 제집에 온것 같이 마음이 폭 놓입니다. 김규식선생이 남은 망하는 집안같고 복은 흥하는 집안같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신통합니다.》

장군님께서는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며 그에게 《통강술》을 부어주시였다. 허헌은 동서방의 이름난 술을 다 마셔보았지만 장군님덕에서 마시는 새 조선의 술맛이 최고라며 노상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더우기 상에 놓은 부루를 보고는 계절이 한두달 앞선 남쪽땅에서도 보지 못한 부루를 보니 희한한 생각이 든다고 좋아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준호가 어머니를 찾아와 뜻밖의 소식을 전하였다. 장군님덕을 나선후 허헌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 하였고 김책은 종아리를 맞았다는 것이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놀라시자 준호는 불이 부어 말씀드리었다.

《다 정숙동지때문입니다.》

《뭐라구요?!》

…장군님댁을 나선 허헌은 차츰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를 차에 태우고 숙소로 향하는 김책은 저으기 불안해졌다.

《선생님,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

허헌은 외면하였다.

《일전에 선생님은 제가 잘못된 일이 있거들랑 사정없이 종아리를 쳐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김책이 잘못된 일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숙소의 방안에서 허헌은 김책과 마주앉았다. 준호가 차를 끌어가지고 들어갔다. 허헌은 노여움이 서린 음성으로 말했다.

《김책선생, 나라의 큰 간부한테 내가 어떻게 매를 들겠소만 종아리를 맞는 심정으로 들어주시오.》

허헌은 결상에 앉아 고불통을 꺼내 물었다. 천천히 담배연기를 피워 올리는 허헌의 얼굴에 노여움과 안타까움, 자책의 복잡한 심정이 엇갈려 떠올랐다.

《김책선생, 내 일전에도 당부했지만 김책선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조선의 녀장군으로 명망높은 김정숙동지를 어떻게 그렇게 모실수 있소? 더우기 김책선생이야 늘 어머님곁에서 일하면서도 말이요. 난 오늘 저녁에 해방직후나 조금도 다름없이 험한 일을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소.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큰사람들이 어머님 한분을 그렇게 모셔야 옳겠소?》

《선생님, 옳습니다. 저도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일만은 자신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절 줌도와주시시오.》

허헌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머리를 들었다.

《알겠소. 내가 어머님을 찾아뵙구 말씀을 올리겠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준호동무, 늙으신분이 찾아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표들의 숙소를 돌아보려던 참이었습시다.》

이틀후 어머님께서는 점순이와 함께 허헌의 숙소를 찾아가시었다. 저자구럭에는 선생이 좋아하는 록두묵과 쑥갓도 담으시었다. 그 쑥갓은 전번 진지상에 놓지 못하시었다. 미처 자라지 못해 아수하시

였는데 날이 더워지니 이들사이에 쑥쑥 커서 손을 댈수 있게 되었다.

어머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받은 허헌은 조선바지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대문밖까지 황황히 달려나와 정중히 맞아들였다.

《어머님, 귀중하신 몸을 돌보지 않으시구 제가 뭐라구 어려운 걸음을 다 하십니까?》

《선생님, 말씀을 낮추십시오. 저야 젊은 사람이 아닙니까. 어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어머님께서는 허헌의 팔을 잡아 부축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시었다. 년로한 몸에 음식은 입에 맞는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는가 일일이 알아보시었다. 허헌은 감격하여 몸돌바를 몰라하며 어머님을 쏘파에 모시었다. 어머님께서는 사양하시며 방바닥에 단정히 앉으시여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선생이 걸어난 곡절많은 인생사며 복잡한 남조선정치정세를 듣기도 하시고 국내외정세를 분석도 하시면서 미제와 이승만의 《단선단정》 책동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적이며 통일된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들이 큰 몫을 담당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시었다.

허헌은 시종 경탄의 시선을 어머님의 모습에서 떼지못하였다.

《어머님, 제 일찌기 청운의 뜻을 품고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이름난 정치가, 병사들도 많이 만나 보고 녀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같은 출중한 녀걸은 처음 봅니다. 과시 우리 조선에 대통령님이 났습니다.》

《선생님,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런데 저와 같은 녀장자들이 제구실을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우리 새 조선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아셔야 합니다. 더는 험한 일을 삼가해주시시오. 이것은 나라를 잃고 고아신세가 된 설음을 뼈저리게 체험한 조선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국가가 세워야 할 법도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지난날에도 그랬구 앞으로든 변함없이 장군님의 전사일따름입니다. 그리고 인민의 딸입니다. 장군님께서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인민의 나라, 인민의 국가를 세우시는데 제가 응당 인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허헌은 격동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어머님께서도 자리를 이시었다. 부디 몸조

리를 잘하라고 당부하고 떠나시는 어머님을 멀리까지
바래우는 허헌의 주름깊은 눈귀에 맑은것이 어
리였다.

(아, 내 한생 참다운 나라, 인민의 국가를 찾아 방
황했는데 오늘 비로소 어머님의 모습에서 그것을
보는구나! 조선의 앞날은 해와 별처럼 무궁찬란하
구나!)

그해 가을 공화국이 창건되었다. 어머님께서
점순이와 함께 터밭에서 남새를 거두시였다. 공화
국창건을 경축하는 연회상에 보낼 남새였다. 봄철
남새가 끝난후 여름, 가을남새를 잇달아 심었더니
받은 가지, 고추, 무우, 배추속에 묻히였다.

점순이 신이 나서 고추를 따며 물었다.

《정숙동지, 저 구들장들을 치우지 않겠습니까?
밭도 넓히는걸… 보기도 밋하구.》

어머님께서서는 잠시 허리를 펴시였다. 그윽한 눈

길을 들어 파랗게 들린 가을하늘을 바라보시였다.

《혹시… 집터주인이 올지 알겠어요?》

《예? 아직도… 이름도 얼굴도 어디 있는지도 모
르는 사람을 어떻게 돌아온다구 하십니까.》

《어쩐지… 그렇게 생각되는군요. 새 나라가… 인
민의 집이 서지 않았습니까. 저 기밭을 보십시오.》

저택지붕위에 어머님께서 띄워놓으신 람홍색공
화국기가 자랑차게 나뭇긴다. 문득 오산덕의 작은
고향집이 떠오르시였다. 이국땅에 일가식솔 다 묻
고 자신 한분밖에 가보실수 없는 고향집… 지금도
그대로 서있는지, 허물어진 집터에 구들장만 남아
있지 않는지… 가보고싶으셨다. 가보실 날은 언제
일가. 가슴이 찢릿이 젖어드시였다.

어머님께서서는 그리운 정에 잠기시여 점도록 하늘
가를 바라보시다가 다시 일손을 잡으시였다.

나의 《군인선서》

오피천

나의 병사수첩엔
가슴속 외우며 새기는
《군인선서》가 있다

군기아래서
군인선서 엄숙히 다지던 그날
굳게 틀어잡은 총가목에서
뜨겁게 울려온
나의 《군인선서》

-이 총 한자루를
백자루로 알고 쥐겠습니다
이 총알 한알을
백알로 알고 쏘겠습니다

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유격대에 입대하시던 날
장군님 우러러 다진 불같은 맹세가
내 가슴에 선서가 되었나니

이 선서를 외우며
나는 듣는다
미친듯 달려드는 원수들을
한몸 방패가 되시여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한

대사하치기결전장의 총소리

사령부의 안녕을 지켜 울려간
어머님 총대의 메아리가
내 가슴에 신념으로 새겨진
나의 《군인선서》여

이는
내 군사복무의 길에 수놓아진
삶과 투쟁의 군가
이를 떠나 나의 생이 없는
군공의 행진곡

아, 백두산호위장군의
수령결사옹위의 총대판을
심장에 붉은 피로 새긴
나의 선서여
장군님 지켜갈 충성의 맹세로
조국의 고지마다에 끝없이 울려가라

-이 총 한자루를
백자루로 알고 쥐겠습니다
이 총알 한알을
백알로 알고 쏘겠습니다!



《최대의 애국도 수령결사옹위에 있고 최대의 충정도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는데 있다.》

김정일

련시

흰눈우에 엿어보는 생각

박정애

12월의 흰눈은 무엇입니까

소곤소곤 속삭이며
나를 부르듯
사분히 내리는
12월의 흰눈은 무엇입니까

하르르 쏟아지는 꽃잎인듯
내 마음 즐거이 눈발에 잠길 때면
뜨거움이 교여오르는 눈가에
가까이 오시는 어머니

송이송이 내리는 흰눈우에
어머님의 정다운 그 모습 비껴오는가
복많은 이 강산에 늘 몸가까이 모시고싶은

간절한 내 념원
꿈결에도 그리운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가

수령님 따라서 별처럼 수놓아온 생의 자욱자욱
내리는 눈우에 흰눈우에 다 어려있는
짧아도 고귀한 어머니의 그 한생은
조국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위한 한생

우리 삶의 위대한 은인
어머님의 거룩한 생의 향기
하늘땅 끝까지 실리는 12월의 흰눈
김정숙어머님과 못잊을 상봉입니다

고산진의 눈송이

심산의 수수한 농가집
고산진 최고사령부 트랙에 지붕에
내려앉는 눈송이 눈송이
어머님과 다정히 속삭이는
내 마음의 눈송이

-눈내리는 이런 날이면
정숙동무 생각이 더 나오
그는 얼음물에 나의 옷을 빨아
눈보라치는 행군길에 품속에서 말리웠소

트랙의 흰눈우에 자욱을 남기시며
백두산시절의 어머니를 추억하시던
수령님 뜨거움에 목메여 하신 말씀
삼가 전하여주는 눈송이 눈송이

수령님곁에 어머니 계시듯
내리는 눈길우에 함께 걸으시듯
어머님의 나직한 대업인가
내 귀전에 들리는듯 싶구나

-수령님
그게 무슨 큰일이기에
그토록 잊지 못하십니까

동지를 위해 자신을 깎그리 바치면서도
늘 그렇게 소비하신 어머니
백두산 줄기줄기에 력력히 빛나는 그 자욱
수령님 조용히 새겨보신것 아니던가

눈보라 몰아치던 행군길
모자밑에 숨겨진 못잇을 머리채
눈속에서 뜯어왔던 취나물생각
미시가루 한흙마저 동지 위해 남기시던 모습

터갈라진 손 마를 사이 없던
그 정성 백두강설 녹이였는가
설한풍 모진 산야에서도 투사들 마음 혼넉했더라
수령님 추억속에 어머니는 봄

오, 수령님은 못잇어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추억하시고

어머님은 수령님 그리워
추억속에 오신 고산진 최고사령부

정가로이 내리는 고산진의 눈송이
수령님 추억에 실린 어머니의 눈송이
내 마음에 수령님과 어머니
그리움의 상봉으로 뜨거운 눈송이

내리여라
끝없이 내리고 내리여라
세월이 흘러도 내리고 내리여라
고산진의 눈송이 백두산의 눈송이 되어

오산덕의 눈

그리워 찾아온 사람들
그 꽃, 그 향기 가슴가득 안겨주시는가
내리는 눈속에 꽃을 안고계시는 오산덕의 어머니
항일의 군복입은 어머니품에 붉은 진달래
활짝 핀 꽃잎우에 햇숨같은 눈

내 심장에 스며드는 뜨거운 눈
눈속에 피여 웃는 꽃
꽃잎우에 담긴 오산덕의 눈
내 누리는 행복의 길을 다 말하여주는 눈

주작봉의 눈

내리는 흰눈도
다함없는 흙모의 정 불러내는
어머님 계시는 주작봉의 눈

하얗게 내리는 흰눈처럼
소리없는 흰눈우에 엎어보는 생각
흰눈을 맞으시며 이 땅에 오시여
눈과 인연도 깊은 어머니

어머님의 한생은
내리는 천만송이에 그 자욱 실려와
눈굽을 적시는 12월의 눈

송이 송이 어려오누나
한숨 담긴 종달바구니 들고
해종일 오르던 오산덕의 짙신자욱
나라잃은 설음 때일찍 느끼시며
타향으로 떠나던 나루터의 눈물자국

속삭여 전하여주누나
끓는 죽가마 머리에 이고 고지로 오르신
삼도만 가시발의 못잇을 그 사연을
밀림이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행군길에 젖은 투사들 신발 말리우시던 그밤들을

수령님 받들어 틀어잡은 총

목숨같이 간직하시고
눈보라 만리길 헤쳐오신 그 모습
배낭에 엮었던 양재기를 뚫고 지나간
아슬한 총알자욱이야기

내리는 눈송이 천만송이라면
어머니의 이야기도 천만가지
내 눈물에 네가 젖는것이나
네가 젖어 내 눈물로 되는것이나

아, 12월의 눈 주작봉의 눈
어머님 한생의 눈
차디찬 흰눈은 자신의 심장속에 다 안으시고
이 땅에 그 뜨거운 심장의 열만 남기신분
그 뜨거움에 눈이 오면 더욱 뽀글뽀글은 어머니

그리도 가벼운 흰눈우에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을 실어보니
그처럼 가벼운 흰눈이
꽃잎같은 고운 눈이 조국인양 무거워라

눈내리면, 흰눈이 내리면
정가로운 흰눈우에 어머니 오시는듯
사무치게 그리운 천만의 마음들이 달려가 안기는
영원한 상봉의 주작봉의 눈이여

어머님의 미소 외1편

최정옥

해빛처럼 맑고
봄빛처럼 따사롭습니다
우러를수록
안아볼수록
어머님의 미소는

기쁘고 즐거운 날에만
지으신 미소이라면
내 마음속에
그처럼 따뜻하게
그토록 아름답고 소중할수 있겠습니까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
친위전사된 영광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며

어머님 바치신 그 한생이 어려와...

어려울 때도
힘겨울 때도
장군님께 기쁨드릴 내 량심의 거울로
언제나 나를 비추어보는
어머님의 미소

길이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리 가는 천만리 자욱자욱에
어머님의 그 미소는
저 하늘의 해빛과 같이
이 땅의 봄빛과 같이
언제나 따스합니다

어머님과 우리 세월

하루 또 하루
우리 맞고 보내는
이 땅의 날과 날들이
어머님의 한생과 이어져있지 않는
그런 날은 없어라
일년 삼백예순다섯날
그 모든 날과 날들이
어머님의 자욱을 안고
어머님의 사랑을 전하며
해가 솟고
별이 뜨나니

백두의 밀림속 숙영지마다에
세월의 눈비도 지우지 못한 구호나무를 보아도
대홍단에 밀보리가 물결쳐 설레일 때도
풍치수려한 보통강언덕우에
높이 솟은 개수공사기념탑을 찾아도
어디서나 안겨오는 어머님모습

날과 달들에 찍어가신 어머님자욱
날과 달들에 남기신 사랑과 헌신이
인민의 행복이 되고 락원이 되어
어머님의 손목 잡고
이 땅의 세월은 흘러왔구나

아, 전하라 력사여
자신을 위한 날은 하루도 없이
가시는 곳마다 찾으시는 곳마다
뜨거운 사랑만을 남기신 어머님

어머님을 못잊는 그 마음들에
새날이 밝아지는 하루하루는
정녕 어머님의 날과 달이 아니더냐
먼먼 미래까지
우리 어머님 김정숙어머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나는 선군시대 어머니가 되었다

리 록

아픈 세월

얼마나 아픈 고난의 세월이
이 땅에 흘렀던가
얼마나 모진 고난속에
나는 어머니가 되었던가

꿈도 많았던 그 나날
귀에 선 차거운 날말이
어지러운 먼지처럼
숨막히게 떠돌았다
봉쇄, 고립, 제재...

허나 둘러보자
《고난의 행군》은 나에게
아픔보다 먼저 사랑을 주었다
나의 가정과 귀여운 아이들
이 사랑으로 하여 더 굳세어졌다

찾아보라
고난의 흔적 어디에 있는가를
제철소구내엔 함함한 불노을
저 앞산 허리엔 하야니 염소무리
고운 흰구름이 쉬었다 가는듯 싶어라

한가정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했다
발전소, 양어장, 소금밭...
엄마되어 나는 더 강해졌어라
엄마되어 나는 이기는 법을 알았노라

제국주의자들은 입에 거품물고
이 나라 가정을 모래성마냥 무너뜨리려 했어도
나는 시련속에
엄마가 되었다

선군 아이들

피눈물의 그해에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소학교 학생이 되어
학교로 간다

총포성없는
전장에서 자랐어도
아, 장군님 계시여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하나하나 총대같이
곳곳이 자랐어라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력사로 적으며 자란것인가
탁아소의 건강관리부에
유치원의 새참명단에
소학교의 학적부에
얼마나 고마운 폐지에

이름을 올리며 자란것인가

상점문들이 하나둘 닫겨져도
아이들을 위한 문은 닫겨진적 없었나니
이제 알것이리 선군시대 우리 아이들은
우리 말 배워주는 녀선생의 눈물어린 설명에서
자기들이 태어나 자란 년대가
얼마나 위대한 년대였는지
얼마나 크나큰 사랑에 받들린 나날이었는지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수령님을 알고
장군님을 알고
선군의 이 시대를 다 알게 되면
조국은 얼마나 굳세고 강해질것이라
선군이란 말과 함께
미덥게 자란 선군시대 아이들
래일의 총대주인들이
얼마나 역세게 자란것인가

소가 새김질을 하듯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 일군의 사업정형을 료해하실 때에 있던 일이다.

그 일군은 한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였다.

그이께서는 일군으로부터 지도사업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다가 문득 신중한 안색으로 당사업을 몇해나 하였는가고 물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보고를 받으시던중에 사람에게 대한 문제처리를 심중하게 하지 못하였다는것을 헤아려보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의아해하는 그 일군에게 사람에게 대한 문제처리를 생 나무껍질 한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기때문에 사람들의 생활도 다양하고 구체적이라고, 다양한 인간생활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대한 문제를 한가지 틀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고 다정하나 엄하신 어조로 의미깊이 일깨워주시었다.

일군은 심한 자책에 잠겨 그이앞에 머리를 수그

리고 서있었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일군을 던지시 바라보시며 소가 위탈을 만났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뜻밖의 질문을 받은 일군은 그이께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적이 없는 모양이라고, 소는 먹은것을 계속 새김질하기때문에 위탈을 모른다고 다정히 가르쳐주신 다음 사람에게 대한 문제는 소가 새김질을 하듯이 되새겨보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일군은 자신이 범한 결함을 적중한 비유로 순간에 깨우쳐주시고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것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말씀을 심장깊이 새기며 새 출발을 할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박봉운

선군은 사랑이었다

선군길을 걸으며
나는 장군님과
얼마나 가까워 졌는가
선군을 받들며
나는 또 얼마나 강해졌는가

선군으로 하여
우리 가슴 흔들던 뜨거운 이야기
매일 아침 보도를 들으며
나는 우리 장군님을 더 잘 알았노라
마음속에 신념으로 새긴 구호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그 어디나 불길같이 내걸었다

선군은
그 누구도 줄수 없는 사랑이었다
녀인들의 얼굴에 웃음을 주고

그 웃음을 지켜준 사랑이었다
아, 녀인들의 소중한 모든것을 다 지켜준
사랑이었다 선군은...

알지 못하리
어찌하여 행복한 날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남이 키우는것인지
어찌하여 시련의 날에
더 많은 자식들을 총대병사로 내세우는지

선군은 사랑이었다
추운 때 뜨거움을 더 잘 알듯이
고난에 찬 조국을 안고 기울이신
장군님 헌신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승리란 말처럼 가까워진것이리
아, 나는 선구시대 어머니가 되었다

고말산의 총소리

박창민

12월은 그리움의 계절이다.

해마다 12월이 오면 가슴속에 쌓이고 쌓이는 그리움 더더욱 절절해진다.

송이송이 내리는 푸지고 호함진 함박눈도 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리움을 싣고 저리도 쉬임없이 내리는 듯.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자욱을 따라 기행길을 이어온 나는 동해기슭의 고말산마루에 올랐다.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자욱이 찍혀진 사적지들을 찾아갈 때마다 나의 마음을 짝 채우며 언제나 내앞에 서계신 김정숙동지.

어머님의 모습 많이 떠올라도 더 친근하게, 더 가깝게 심장속에 뜨겁게 간직하게 되는것은 군복을 입으신 모습이다.

청진시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고말산마루에 오르니 가슴속에 쌓이고 쌓이던 그리움이 터져오르고 항일의 녀전사께서 높이 올리신 총소리 귀전에 들려왔다.

삼천리강산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환희로 설레던 그해 12월 중순.

항일혈전의 길을 헤쳐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전우들과 함께 눈덮인 여기 고말산마루에 오르신였다.

아, 얼마나 그림던 어머니조국땅인가!

너무도 감회가 깊으시여 벅차오르는 감격을 금치 못하시던 어머님께서는 근엄하신 눈길로 이윽도록 일제시기의 청진감옥을 바라보시였다.

철조망을 둘러친 높은 담장안에 악마의 소굴처럼 들어앉은 저 감옥안에서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쓰러졌는가.

왜놈들은 다시 올 날이 있을것이라고 독사의 이빨을 갈며 쫓겨갔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감옥과 왜놈들이 도주하며 파괴해 놓은 공장들을 보면서 그해 해방을 맞은 기쁨에만 들떠있었

다.

어제 밤에도 계급적원썬놈들이 옛 제도를 되찾으려고 수류탄을 던지며 발악하였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해방 만세!》 만 부르며 북을 치고 총을 추고있지 않는가.

총대로 찾은 조국이고 총대로 지켜가야 할 조국이기에 저렇게 해방일에만 들떠있을수 있겠는가고 일깨워주시였다.

해방은 되었어도 이 땅에 평화는 깃들지 않았으며 왜놈들이 쫓겨갔다 해도 결코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나라는 찾았지만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왜놈들은 패망했지만 지금 이 시각도 재침의 칼을 갈고 조국의 절반땅은 미제침략자들이 강점하고있는데 어떻게 안심할수 있겠는가고, 계급적원썬들을 종국적으로 소멸할 때까지 손에서 절대로 총을 놓을수 없다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의 뜻이라고 하신 그날에 백두산녀장군의 말씀 쟁-하니 가슴을 치며 울려왔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있는 한 우리는 손에서 총을 놓을수 없다고 하시며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고말산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조직하시고 뜻깊은 총성을 높이 올리시였다.

《땅! 땅! 땅!...》

과녁마다 백발백중 명중탄이 날아갔다.

항일의 그날처럼 교대없는 호위초소에 서계시는 백두산녀장군께서 올리신 총성!

그것은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항일혈전의 날 틀어잡았던 혁명의 무기를 수령결사옹위, 조국수호의 길에서 계속 억세게 틀어잡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우쳐준 혁명의 총성이였고 해방의 기쁨이 혁명의 열풍으로 되게 하신 투쟁의 총성이였다.

고말산기행은 끝났으나 나는 선뜻 산정을 내

릴 수 없었다.

항일의 녀성영웅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진 뜻깊은 혁명사적지를 다시 한번 둘러보는데 그날의 총소리가 세월을 넘어 나의 귀전에 메아리쳐왔다.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의 길에서 수령결

사용위,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깊은 뜻을 새기어 주며 이 땅에 미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손에서 절대로 총대를 놓을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가르쳐주며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 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날의 그 총소리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 울려온다.

시목음

대동강반에서

(총련) 오홍심

한쪽의 그림

어쩌면 한쪽의 그림이런듯
평양려관 내 방의 창문에 비끼
우리 수도의 풍경
불 때마다 달라지는 그림이라네

오른편엔 우아한 평양대극장
왼편엔 휘휘 늘어진 대동강 수양버들
그가운데 저 멀리
흰 안개속에 솟은 양각도호텔

이리 보면 이리 다르고
저리 보면 저리 다르네
창틀을 액틀삼아 바라보는 평양풍경은
그야말로 천하명승 명작품일세

대동강 저녁

1

낙시군들이 흥성이는 대동강반
미끼를 손질하는 아바이곶에 앉아
고기가 잘 물리는가 물었더니
못마땅한지
꼭지 않는 소리
-말도 마소, 대동강 고기들이
찌가 이만저만인줄 아오?!

미끼만 글썽 물어가지 않소?

2

고기에게 놀리운것이 분한지
긴 낙시줄을 거두려는데
동동이가 숨박꼭질, 걸렸구나!
낙시군들 부러워 저저마다 한마디씩
아바이 날 보고 한눈 깜짝이며 하는 말
-이래서 하루 한번
대동강에 척- 낙시대를 드리우지 않으면
밤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소

밤의 대동강

대동강 물결이어
어쩌면 너 이리도 아름다우냐
너 이리도 황홀하나
이랑이랑 번들거리는 물결은
노을을 안은듯 노을빛에 물든듯

활활 타는 주체사상탑 봉화는
하늘에 건듯
누리는 온통 붉거니 너 어찌 붉지 않으랴
내 맘을 잠근다 행복에 겨워 자랑에 넘쳐
아, 대동강은
해돋는 아침만이라 한밤에도 붉어라

새들은 날아가는데 외1편

김조규

강건너 들
들을 지나면 하늘에 닿은
연연 푸른 산맥...
산넘어 구름은 가고
구름따라 새들은 난다
눈부신 나래에 실은것
설음이나? 눈물이나?
아니면 푸른 꿈이나?

내가 사는 거리는
밟히고 짓이겨 풀도 못자라는데
겨울에도 눈속에 꽃이 핀다는
송풍라월은 어느 산 그늘이나?

구름우에 솟은 산은
백두산이요
계곡에 흐르는 물은 송화강이라
뜨거운 마음과 찬바람이

함께 어울져 흘러
승냥이도 가까이 못한다는
무릉도원 별천지 솟아났다는 곳

봄과 대지가 한몸으로 엉켜있어
산이 불러들어 화답하고
새들은 봄을 입에 물고 날아가는데
산넘어 아득한 그리움
미지의 새 세계로 향수는 부르건만

나는 어찌 못하누나
이 추악한 거리와 숨막히는 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탄식하고있구나

-1941. 9. 조양천에서-

송풍라월: 백두산밑에는 인적을 멀리한 송풍라월이란 경치좋은 마을이 있는데 야장간, 병원, 공부도 무료로 하는 학교도 있고 있는것은 서로 나누어 먹는 별천지가 있다는 향간의 전설이 있다.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

풀 한포기 돌지 못한 분묘의 언덕엔
빼만 남은 고목 한그루
깊은 가난속에 파묻힌 초가지붕들
창문은 우묵우묵 안으로만 파고들었다

여기는 류량의 정작촌
쫓겨온 이민부락

누구를 막으려
무엇을 경계하여
토성을 두세길 쌓고도 모자라
숨은 참호까지 깊이 뚫느냐

《형제를 미워하라
이웃을 경계하라》
아니면 칼을 받으라는 코란경의 주문인가
카인도 낫을 뽑힐

배리의 법전
(그래 마을창문들이 등을 돌린게구나)
아, 한많은 세상살이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이야 굽어들손가
마을은 침묵으로 외면하고있는 한낮

오늘도 또 한사람의 《통비분자》

뭉이여 성문밖을 나오는데
《왕도락토》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상장처럼 펄럭이고있었다

-1941. 8. 로두구에서-

코란경: 이슬람교의 주교 마흐메트의 경서. 그중에
《이슬람교를 믿겠느냐? 아니면 이 칼을 받겠느냐?》 라는 구절이 있다.

카인: 《구약성서》에 나오는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적현실을 반영한 해방전 김조규의 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과 그 과정에서 창조 발전한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영향밑에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는 진보적문학이 널리 발전하였다. 특히 일제가 야수적탄압으로 《카프》를 강제해산시킨 후 《카프》 출신의 문인들이 감옥에 끌려가거나 산간벽지로 쫓겨가고있을 때 날로 더욱 강화되는 일제의 박해속에서도 진보적작가들은 항일무장투쟁에 고무되어 온갖 애로와 난관을 박차면서 진보적 문학작품창작을 진행하였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그가운데는 통정에서 간도인민들의 원군운동을 형상한 중편소설 《소금》을 쓴 작가 강경애, 압록강대안인 삼수와 혜산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끝없는 동경심을 담아 《눈내리는 보성의 밤》과 같은 훌륭한 서정시를 쓴 리찬, 림강대안인 중강진에서 묘지에 붉은 기발을 그려넣은 동인문에잡지 《시건설》을 창간하고 항일무장투쟁을 동경하면서 조선독립을 바라는 혁명적인 시들을 많이 창작한 시인 김람인이 있다.

일제의 파썸적탄압과 민족말살정책이 극도에 이른 1930년대 후반기에 와서 그 이전시기에는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찬양과 동경을 노래한 이러한 작품들이 창작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검은 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우면 드리울수록 마치 얼음장밑에서도 강물은 흐르듯이 항일무장투쟁을 우리러 일제의 패망과 조국해방의 서광을 보며 신심과 락관에 넘친 진보적시인들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에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던 간도지방에서의 작가들의 체험, 항일무장투쟁의 총포성의 메아리가 그칠새 없던 국경지방에서의 시인들의 체험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당시 적지 않은 작가들이 일제의 검거선봉과 탄압을 피하여 국경대안으로, 간도 등지로 이주하여 삶을 지행하면서 창작도 했다고 생각할 때 그 어느 작가들보다도 항일무장투쟁의 감동적인 소식을 보다 가까이에서 자주 접할수 있었던 그들의 작품들에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지지와 동경이 여러모로 반영되었으리라는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의 문학예술작품들을 새로 발굴하여 정리하는 사업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진보적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으나 그가운데서도 당시로서는 발표할수 없었던 그러한 작품들을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찾아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김조규의 해방전 시작품들가운데서 지난해에 산문시 《전선주》를 찾아낸데 이어 시 《새들은 날아가는데》와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을 찾아냄으로써 항일무장투쟁현실을 반영한 또 하나의 귀중한 시작품유산을 가지게 되었다.

산문시 《전선주》와 함께 시 《새들은 날아가는데》와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이 우리의 각별한 주목을 끄는것은 그것이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적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모두 주체30(1941)년에 창작되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1930년대 후반기-1940년대 전반기 일제의 탄압은 극도에 이르러 우리 인민에 대한 일제의 파썸적폭압은 절정에 달하였다. 일제에게 조선의 말과 글, 조선사람의 이름까지 다 빼앗기고 노예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날길 없던 시기 항일무장투쟁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그 영웅적이며 격동적인 현실을 형상한 시를 쓸수 있었다는것은 김조규의 류다른 생활체험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일제의 끈질긴 추적과 탄압을 피해 김조규는 주체28(1939)년 6월 중국 연길현의 조양천으로 이주하였다.

조양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19(1930)년 10월 이곳에 오시여 당 및 공청간부들을 친히 만나시고 기층당조직을 급속히 확대하는데서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신 력사적인 곳으로서 룡정과 함께 혁명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그에 적극 호응해나선 이름있는 혁명촌이였다.

김조규는 조양천농업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력사와 영어를 가르치는 한편 비밀지하조직인 학생친목회활동에도 관여하면서 항일유격대의 투쟁소식도 알게 되고 그것을 적극 선전도 하였으며 선진사상보급사업도 널리 진행하였다. 조양천에서 생활한 나날은 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적현실을 폐부로 느끼고 체험한 나날이었으며 이 나날에 그의 마음속에는 항일무장투쟁과 항일투사들에 대한 찬양과 지지, 동경이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시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계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조국에서 창작한 시에서는 초현실주의, 상징주의적경향을 나타냈던 그가 이곳에서 시를 창작하면서 점차 현실에 눈을 돌려 고향과 나라를 잃고 친지들과 작별하고 정처없이 떠다니지 않으면 안되는 이역땅에서의 생활의 불행과 고통, 설움과 울분을 토로한 시들과 함께 일제에 대한 저주와 타매, 자유롭고 행복한 새 세상에 대한 갈망과 그를 위한 투쟁정신이 비친 시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그는 사실주의적작품창작의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 해방전 그의 시창작에서 절정을 이루는 산문시 《전선주》와 서정시 《새들은 날아가는데》,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지금 1941년에 그가 창작한 시로서는 13편이 알려져 있는데 그가운데서 《연길역 가는 길》, 《대두천역에서》, 《한 교차역에서》, 《3등대합실》, 《북행렬차》 등 열차와 역과 관련한 작품만 하여도 5편이나 된다. 한해에 창작한 시작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의 시상을 이역땅에서의 열차와 역에 두고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이었을까.

시인이 그런 열차칸, 대합실의 정상을 보자.

차바퀴소리 요란한걸 보니
두만강다리를 건너는가보다
벌써 대지는 얼어
북만엔 눈발이 섰다는데
훗적삼 토스레로 이제
대륙의 칼바람을 어이 견데낼것인가
(시 《북행렬차》에서)

대합실은 고달픈 삶에
현기증이 난다
너도나도 모두
지칠대로 지친 얼굴들...
(시 《한 교차역에서》에서)

우묵 패운 불
두드러진 뼈
눈동자는 저마다 닥쳐올 운명에
초불처럼 떨고있으니
빈궁의 한배속에서 나온 형제들이나
행복이란 손에 한번 쥐여 못본 얼굴들이다
...

쫓기는 신세라 이제 또한
얼마나 많은 눈물
무거운 근심을
이 대륙황무지에 쏟을것인가
(시 《대두천역에서》에서)

에서 고향이
몇백 몇천리뇨?
남행렬차에 탄 길손이 부러워라
...

인생은 못자옥 어지러운
3등대합실
행복보다도 불행으로 가득찬
3등대합실
(시 《3등대합실》에서)

우리는 여기서 정든 고향도 빼앗기고 삶에 시달리고 생활에 쪼들리면서 낯설고 물설은 이역땅을 정처없이 떠도는 사람들의 불쌍하고 가련한 정상을 본다.

누구나 잠시 들렀다 사라지는 역이건만 김조규의 시에서 슬픔과 불행으로 얼룩진 인생이 모여든 역은 바로 초보적인 생존수단과 조건마저 잃고 거처할 곳, 의지할 곳 없어 버려진 일제식민지 통치아래 우리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시인은 이처럼 집없고 고향없고 조국을 떠나 정착된 생활을 할수 없는 타향에서의 우리 인민의 비참한 모습을 사람들이 잠시 리용하거나 머물렀다 사라지는 열차나 역에 의탁하여 노래함으로써 간도이주민들의 생활과 운명을 사실주의적으로 일반화하였다. 여기에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밑에서 버림받고 짓밟히는 겨레의 운명을 두고 통탄하며 울분을 터치는 시인의 고뇌의 마음이 비껴있다.

이해에 시인은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 설움을 노래한 이러한 시들과 함께 모순된 현실을 투시하고 그에 대한 폭로와 항거의 기백을 담은 시 《밤과 너인과 나》, 《화로를 안고》와 같은 일련의 시작품을 창작하였는데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현실에서 힘을 얻은 시인의 서정세계에서의 한걸음 전진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고 볼수 있다.

시 《밤과 너인과 나》에서는 《거리에서는/ 목갈린 소리 창살을 부시고/ 달빛아래서도 물고 뜯고/ 죽이고 죽고...》하는 일제통치가 판을 치는 엄혹한 현실을 폭로하면서 《마을의 오솔길과 시내가 언덕》이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갈려도 못가는 이 불행을 참는것이 청년들의 운명》이라면서 차라리 《삶의 온갖것을 부정》해버리려는 현실부정, 저항의식을 보여주었다. 특히 작품에서는 일제통치시기의 현실을 《밤》에 비유하면서 《-밤도 깊었으니 / 이제 새일거예요/ 이 저주로는 숨막히는 밤도》라고 노래함으로써 암흑속에서의 몸부림과 저항의식과 함께 막연하게나마 밝은 날에 대한 낙관을

노래하였다.

이러한 서정세계는 시 《화로를 안고》에서 보다 심화되고 승화되었는데 이 시에서는 《진리를 찾아… 우주를 정복하려던 청춘의 날개》가 《가족채찍에 쫓박》난 가혹한 운명앞에서 젊음과 창창한 미래를 두고 절망과 고민에 모대기는 서정적주인공의 심정을 조국을 잃은 절통감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결부하여 노래하였다.

한번도 소리쳐 불러보지 못한
어머니조국의 이름이여
빼앗긴 강토
깨여진 반만년의 력사여

-자네는 이 슬픔을 참을수 있단 말인가
-자네는 이 압력에 숨쉴수 있단 말인가

언제나 기를 펴지 못하고 굴욕을 당해야 하는 인생, 강토와 반만년의 력사를 빼앗기고 짓밟힌 채 언제한번 《어머니조국》이란 이름조차 불러보지 못하는 그 처지가 너무도 절통하고 애달파 《자네는… 참을수 있단말인가》, 《자네는… 숨쉴수 있단 말인가》라고 토로하는 수사학적웨침에는 조국에 대한 애착의 감정을 안은 서정적주인공의 당대 현실에 대한 솟구치는 울분과 저항정신이 세차게 소용돌이치고있다. 여기에 더하여 서정적주인공이 《화로의 남은 재를 뒤》지며 《죽어서도 불씨안고 다시 사는/ 불의 어머니/ 솟덩이솟덩이》를 애타게 찾는것은 그 저항정신을 불길로 지퍼올리리라는 확신을 상징적형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한것이다.

리항민들의 불행과 설움에 대한 고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로부터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예리한 폭로의 기백을 거쳐 저항정신을 불길로 지퍼올릴 멸망의 분출에 이르기까지 시세계의 발전이 1941년에 창작된 시작품들에서 강하게 나타난것이라고 할 때 시인이 그해가 저물어가던 8월과 9월 그리고 12월에 항일무장투쟁현실을 반영하여 시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과 《새들은 날아가는데》, 산문시 《전선주》를 련이어 창작하였다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숨결이 거세차게 높뛰던 조양천에서의 체험과 그 체험을 안고 사색하고 탐구하여 진행하여 온 시창작의 필연적귀결로서 시인은 마침내 이러한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던것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산문시 《전선주》는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반영하면서 항일유격대를 민족의 총아로 내세운 유일한 작품으로 되고있다.

이번에 새로 알려진 시 《새들은 날아가는데》와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은

시인이 《전선주》를 창작하기 두석달전에 창작한 작품으로서 여기에는 항일무장투쟁의 격동적인 현실의 일단이 다양하게 노래되어있다.

시 《새들은 날아가는데》는 시인이 1941년의 시점에서 1930년대 전반기에 창설되어 4~5년간 거연히 솟아있었던 반일유격구-인민의 새 세상과 관련하여 널리 전해진 항간의 전설에 기초하여 인민의 락원으로 펼쳐졌던 반일유격구의 새 생활에 대한 찬양과 그리움, 동경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에서는 많은 경우 이러한 사상감정을 새들의 자유로운 날음에 의탁하여 노래하였다.

강건너 들을 지나면 하늘에 닿은 푸른 산줄기가 나지고 그 산 넘어가는 《구름따라 새들》은 자유로이 날아가는데 서정적주인공은 그 새들의 날음에 때로는 설음과 눈물울, 때로는 《푸른 꿈》을 엿어보며 하염없이 서있을뿐이다.

내가 사는 거리는
밟히고 짓이겨 풀도 못자라는데
겨울에도 눈속에 꽃이 핀다는
송풍라월은 어느 산 그늘이나?

구름우에 솟은 산은
백두산이요
계곡에 흐르는 물은 송화강이라
뜨거운 마음과 찬바람이
함께 어울려 흘러
승냥이도 가까이 못한다는
무릉도원 별천지 솟아났다는 곳

일제의 탄압으로 《밟히고 짓이겨 풀도 못자라는데》 황량한 폐허에서 고달픈 삶에 허덕이는 서정적주인공에게 있어서 《겨울에도 눈속에 꽃이 핀다는 송풍라월》에 대한 동경과 열망은 얼마나 뜨겁고 절절한것인가. 서정적주인공이 새들의 자유로운 날음을 그리도 부러워하며 간절히 그리는 송풍라월은 백두산에 자리잡은, 《승냥이도 가까이 못한다는 무릉도원 별천지》인것이다.

송풍라월을 두고 시인이 주해에서 《백두산밑에는 인적을 멀리한 송풍라월이란 경치좋은 마을이 있는데 야장간, 병원, 공부도 무료로 하는 학교도 있고 있는것은 서로 나누어먹는 별천지가 있다는 항간의 전설이 있다》고 하였을 때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의 송풍라월, 무릉도원 별천지에 대한 동경은 바로 반일유격구에 펼쳐졌던 새 세상, 인민의 락원과 같은 그런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며 동경인것이다. 이러한 그리움과 동경의 마음은 그자체에 그치는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창설되었던 반일유격구에 대한 열렬한 찬양, 거기에 펼쳐졌던 새 세상이야말로 참다운 인민의 새 세상이라는 절대적인

확신, 일제의 모진 탄압속에서도 장차 그런 생활을 미신으로 그려보는 인민들의 불타는 념원이 심원하게 반영되어있다.

작품에서는 마지막부분에서 다시금 《봄을 입에 물고》 가는 새들의 날음을 그리움에 가득차 바라보는 서정적주인공의 《향수》 속에 인민의 세상, 새 세상에 대한 동경을 절절하게 노래하면서 당시의 참혹한 현실에 대한 《탄식》을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감정을 힘있게 토로하였다.

시는 실재하였던 사실에 기초한 항간의 전설적 이야기를 시화하는데 맞게 풍부한 상상과 화상을 담아 서정의 나래를 활짝 펴고 새와 구름, 강과 산줄기 등 자연에 의탁하여 사상감정의 심오성과 섬세성을 보장함으로써 당시 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반일유격구-인민의 새 세상과 같은 그런 새 세상, 새 생활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훌륭히 일반화하였다.

시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격동적인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새들은 날아가는데》와는 다른 측면에서 특색있게 창작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일제가 괴뢰만주국을 조작한 직후 제창한 《왕도락토》(이른바 《임금의 덕으로 즐겁게 사는 땅》이라는 뜻)를 건설한다는 위선적인 선전이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벌어진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그 허위성이 여지없이 폭로 단죄되는것을 풍자적으로 형상하였다.

시에서 노래되고있는바와 같이 《왕도락토》 포스타가 붙어있는 《류량의 정착촌》, 《쫓겨온 이민부락》의 전경은 《풀 한포기 돋지 못한 분묘의 언덕》에 《빠단 남은 고목 한그루》 비껴선 《깊은 가난속에 파묻힌 초가지붕들》이 전부였다. 이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을에도 일제는 《누구를 막으며 무엇을 경계하여 토성을 두세길 쌓고도 모자라 숨은 참호까지 깊이 뚫》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라》, 《이웃을 경계하라》고 떠들면서 사람들사이의 철저한 《배리》를 강박해나섰다. 이것이야말로 제놈들의 강박대로 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일제의 강도적 논리 그대로 풍자한것이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극도의 공포와 겁에 질린 일제의 물골과 함께 그 공포속에서도 어떻게 하나 식민지통치를 유지해보려고 발광하는 놈들의 추악상을 날날이 발가놓으면서 놈들이 아무리 발악해 나서도 항일유격대의 영향밑에 거세차게 타번지는 인민들의 반일투쟁은 결코 막을 수 없으며 일제의 멸망은 불가피하다는것을 의미심장한 형상으로 잘 보여주었다.

아, 한많은 세상살이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이야 굽어들손가
마을은 침묵으로 외면하고있는 한낫

오늘도 또 한사람의 《통비분자》
뭉이어 성문밖을 나오는데
《왕도락토》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상장처럼 펄럭이고있었다

일제의 탄압과 가난한 생활에 쪼들려 비록 허리는 굽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굽어들지 않고 곳곳이 자라난것이 항일무장투쟁의 영향밑에 나날이 억세어진 반일정신, 혁명의식이였다.

밤에는 말할것조차 없고 봄비여야 할 대낮에도 침묵으로 외면하고있는 마을, 걸보기에는 일제의 탄압에 《순종》하여 침묵한 거리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속에서 지열처럼 끓어번지는것이 인민들의 반일정신이였으며 투쟁이였다. 이 반일투쟁과정에 《오늘도 또 한사람의 <통비분자>》가 놈들에게 체포되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벌어지는 애국적인민들의 격렬한 투쟁에 의하여 《왕도락토》 포스타는 갈가리 찢겨 장례행렬의 조상기신세가 되어버리고말았던것이다.

체포된 《통비분자》와 조상기가 되어버린 《왕도락토》 포스타, 이것은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애국적인민들의 건결한 투쟁정신과 멸적의 투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투쟁의 불길속에서 《왕도락토》의 허황한 꿈은 산산이 깨여지고 제아무리 발악해도 놈들의 멸망은 불가피하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증하였다.

모두 5련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전반에서 《왕도락토》를 떠드는 일제가 그 허장성세에도 불구하고 실지에 있어서는 항일유격대의 활동에 질겁하고 공포에 질려 인민탄압에 광분하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것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에 《통비분자》의 출현과 상장처럼 되어버린 《왕도락토》 포스타의 물골을 부각함으로써 사상정서적내용을 밝히는데서 특색있는 서정구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시적묘사가 일관하게 예리한 조소를 동반하고있는것은 작품의 풍자적양상을 두드러지게 한 이채로운 형상으로 되었다.

시 《새들은 날아가는데》와 《찢어진 포스타가 바람에 날리는 풍경》은 이처럼 영웅적항일무장투쟁현실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생동하고 특색있게 반영함으로써 이미 알려진 항일무장투쟁현실을 반영하여 창작된 작품들과 함께 해방전 진보적시문학유산에서 의의있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근대문학연구실

민족의 넋이 높뛰는 애국의 《종소리》

-총련시인들의 시집지 《종소리》를 읽고-

류 만

...

못귀신 외세를 죄다 내쫓고
북과 남 해외가 함께 눈뜨는 종
화음을 이루며 얼싸안을
세기의 종소리를 울리고싶다

지금 내앞에는 총련의 《종소리》 시인회 시집지 《종소리》가 무드기 놓여있다.

정화수, 김두권, 김학렬, 김운호, 정화흠, 홍운표, 오상홍 그리고 오홍심, 강명숙, 홍순련... 낯익은 이름들이다. 조국에 잘 알려진 시인들이다. 고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역땅에서 생활하면서 오로지 애국애국의 한마음으로 여러권의 개인시집과 종합시집도 내고 많은 시작품을 발표한 그들이 새 천년 기에도 변함없이 동포들의 마음을 애국의 열정으로 타번지게 하려는 숭고한 지향을 안고 시집지 《종소리》를 내고있는것이다.

한장두장 번저가느라 소리나는 크지 않아도 저력있게 울리는 《종소리》의 메아리가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자라나는 새 세대 동포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고 우리 나라의 역사와 지리를 잘 알려주어 그들이 조선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선사람의 넋을 지니고 조선사람답게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인들이 조선의 넋, 민족의 넋을 안고 작품마다에 기울인 그 숭고한 시정신, 서정의 세계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지향이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북과 남의 인민들 뿐아니라 재일동포들에게도 커다란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하나 된 조국을 가지며 통일된 조국의 품에 안기려는 재일동포들의 열망은 불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것이다.

우리는 《종소리》 2호와 3호에 특집된 총련의

여러 시인들이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쓴 시, 6.15북남공동선언을 열렬히 지지하여 쓴 시들에서 통일열망의 거세찬 숨결과 뜨거움을 절절하게 느낄수 있었다.

시들에서는 한결같이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 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사변을 두고 《얼마나 기다리던 이날》인가고 하면서 《력사를 움직이는 날 통일로 곧바로 이어지는 날》이라고 《목이 터질 기쁨》과 《말 못할 감격》을 터치였으며 그 길에서 《허물수 없는 7천만의 한마음》으로 《대결을 뿌리치고 단결을 수놓아가》자고, 《저 조국의 허리 자른 철조망을 걷어치우고 통일의 해돋이 맞으러 가자》고 통일열망을 환희와 격정에 넘쳐 뿔어올렸다.

이것은 벌써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 15북남공동선언에서 《래일은 하나의 조국! 새날은 우리의것, 우리의 힘으로!》 통일조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민족자체의 힘으로 부강조국을 건설해 가리라는 신심과 락관을 가슴벅차게 받아안은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의 시적일반화로 된다. 력사적사변에서 받아안은 재일동포들의 이러한 통일념원과 확신을 조국인민들의 사상감정의 높이에 따라세우면서 때로는 이역에서 신문과 텔레비죤화면을 보며 때로는 《꽃소식 회소식》에 접한 분회꽃놀이며 축배잔이 오가는 식당에서 그리고 때로는 흠어진 부모형제들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해외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특색있는 생활정황과 계기에서 노래한 여기에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 15북남공동선언과 같은 격동적인 사변을 통하여 조국통일지향과 념원을 노래한 《종소리》 시작품들의 참신한 서정세계가 있다.

재일동포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념원은 여러 시작품들에서도 특색있게 노래되였다. 북과 남에서 울리는 《아리랑》 선율이며 날리는 《통일기》에 의탁하여 조국통일 감정을 노래한 시 《축전의 메달》, 《아리랑선풍》이며 북과 남사이에 이어지는 철길을 두고 《조국이 동맥, 겨레의 혈맥》으로 노래한 시 《동맥》(정화수), 《철길이 이어졌다》(홍운표) 등 작품들은 그러한 실례로 된다.

특히 가사 《외세는 못믿어》 (김두권)에서는 《화약지고 불놀이 하는 전쟁광신자/ 부채들고 살랑 거리는 안팎의 주구/ 남녘땅의 영원한 강점 노리고 / 한사코 통일을 막아나》 서는 《외세는 못믿어 외세는 못믿어》하면서 《우리끼리 손잡고 통일을 하자》고 절절히 호소함으로써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6. 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론적인 열정으로 힘있게 노래하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구체적, 생활적정서로 노래한 시와 함께 통일의 원쑤를 타매하는 이런 정론적격조의 작품도 이채롭게 안겨온다.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노래한 시작품들과 함께 《종소리》를 펼치면 우리들에게 또한 인상깊게 안겨오는것은 이역땅에서도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동포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작품들이다.

그가운데는 《일본말만 쓰던 입으로 가가거겨...》 우리 말을 익히는 젊은이의 기쁨을 두고 《서툴기는 해도 자기 말, 자기 뿌리 찾은 안도와 기쁨》을 노래한 시 《가가표》 (홍윤표)가 있는가 하면 권투선수권방위전에서 련승하는 무죄주먹을 두고 《우리 학교마당에서 굶어》 지고 《민족교육의 손길》 아래 자란 《존엄있는 조선의 피줄》이 뛰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주먹이라고 노래한 《왕자의 주먹》 (홍윤표), 《링그의 새 왕자》 (정화수)도 있으며 《자그만 의자》 (홍윤표) 《손자》 (김윤희) 등과 같이 민족의 말과 민족의 마음을 배우는 후대들을 두고 해외에서 곳곳이 이어져가는 민족의 념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노래한 작품들도 있다. 작품마다에 맥박치고있는것은 살아 숨쉬는 민족의 념이며 조선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다.

동포사회에 대한 생동한 시적형상은 시 《손만 잡으면》 (김두권) 《큰상을 받으세요》 (정화수) 《하얀 저고리》 (김학렬)에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는데 생활이 다양한 그만큼 그 서정세계 역시 다양하게 펼쳐져있다. 그러나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들이 주는 충격과 감흥은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생활적으로 노래한 그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세계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별미가 생기면
이웃에 가져가고
뜯어온 미나리 민들레도
나누어먹고

처지가 어려워도
무서움이 없구나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에게는

부는 바람 모질어도
헤쳐날 길은 있다
손만 잡으면

(시 《손만 잡으면》에서)

이제는 쉬시여도 좋은 칠순에
조국의 통일로 잃은 청춘 찾는다며
오늘도 현역이신 우리 고문님
...

동포들의 살림이자 내 살림이라며
보살피는 시름을
보람으로 여기시며
기쁨을 더해주고 아픔을 덜어주는
그 재미로 평생을 바치시니

(시 《큰상을 받으세요》에서)

저고리는
검은 칼질 그때마다 이겨내고
더 깨끗이 희여지네

그리운 조국의 푸른 하늘물로
씻어입은듯
저고리는 언제나 하얗다네
언제나

(시 《하얀 저고리》에서)

마치도 친혈육, 가까운 친지들사이의 정과 생활을 보며 체험하고 느끼는 그대로의 서정세계이다.

서로 믿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동포애가 따듯이 넘쳐흐르는 동포사회의 참다운 모습에 대한 자랑, 나이 70이 되었어도 젊은 시절의 그 마음, 그 열정 그대로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 헌신하는 로세대 총련일군에 대한 젊은 동포들의 존경과 감사의 정. 일본반동들의 칼질과 먹칠에도 끄떡없이 《조국의 푸른하늘》이 비긴 하얀 저고리를 입고 민족의 념을 곳곳이 지켜가는 우리 나 어린 처녀들의 슬기와 기상에 대한 찬양, 이런 숭고한 서정세계는 작품의 사상정서적내용을 풍만하게 하고있다

시 《춤판》(김두권) 《보람》(김운호) 《동포》(홍윤표), 《꽃놀이》(정화수) 《스물일곱명의 정성》(김운호) 등 여러 작품들에서 화목과 단합이 무르녹는 동포사회의 참다운 모습을 정서적으로 감동깊게 느끼게 된다. 인간의 양심과 이웃간의 정의, 의리도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 한복판에 깨끗하고 뜨겁고 정이 넘쳐나는 우리 동포사회가 있다는것을 자랑하는 시적화폭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꽃피어나는 우리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지니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총련동포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활감정과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시란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감정의 정화라고 할 때 그 어떤 생활을 대상으로 하든 그 어떤 생활에 바탕을 두었든 뿜어올리는 서정에 시대정신이 비끼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적리상이 반영된다면 그런 시들은 독자들이 값높이 받아안는다.

바로 동포사회생활의 이모저모를 다양하게 노래한 시작품들이 그 생활적정서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느끼게 하면서도 고상한 사상감정을 받아안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경우 거기에서 조선의 녀, 민족의 녀이 울리게 하려는 시인들의 미학적리상이 안반침되었기때문이다. 그래서 시들은 생활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하며 정서세계 또한 제나름이지만 시마다 주는 충격과 여운은 다채롭고 개성적이며 크고 웅심깊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동포사회의 참모습을 노래한 시들과 함께 《종소리》에서 또한 이채롭게 느껴지는것은 민족적풍속, 향기, 정서가 진하게 풍기는 작품들이다. 그 대표적인것으로 민족음식을 노래한 시작품들을 이야기할수 있다.

민족음식은 동포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생활의 한부분이기도 한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족음식은 민족의 고유한 풍속과 전통의 한 내용을 이루며 또 그것을 지키고 이어가는데서 응당한 가치를 가지지만 특히 조국을 떠나 모든것이 낯선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보다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민족음식과 관련한 여러 시작품에서 풍기는 정서는 동포시인들이 동포들의 생활을 노래하는데서 줄곧 주체성, 민족성을 놓치지 않고 생활체험과 사색을 심화한 결과 이룩된 결실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시작품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우선 시의 제목부터 유난하게 안겨온다.

《종소리》 창간호에 실린 《꽃고추》(정화흠) 《썩은 썩국이요》(정화수), 《김치》(오상홍),

《마늘》(김운호)을 비롯하여 《호박찌개》(정화흠) 《비빔밥》(오홍심), 《김치가 <왕>》(정화흠), 《꽃고추가 제일이지》(정화흠) 등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음식과 그 관습에 대한 류다른 관심과 애착을 느끼게한다.

이러한 작품을 비롯하여 민속음식을 노래한 시작품들의 정서세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음식에 젖어있는 조선사람이 아니고 서는 체험할수 없는 그런 풍만하고 감칠맛있는 민족적정서로 충만되어있다.

이런 작품들에서는 김치면 김치, 마늘이면 마늘, 고추, 썩 호박 등 우리 민족이 애용해 온 음식의 맛과 냄새며 그 약효에 이르기까지에서 느끼는 다양한 정서세계를 펼치면서 음식 그자체를 노래하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체험된 민족정신을 짙은 정서로 지향시켰다. 그리하여 《김치가 <왕>》에서는 《지난날 뒤끝목에서도 수모받던 김치가 지금은 대도시 한거리 일류백화점 식료품판매장에서 활개치고 뱅친다》고 노래하였는가 하면 《꽃고추가 제일이지》에서는 《된장에 듬뿍 찍어 입에 넣으면 팔다리에 푸르싱싱 민족정기 솟는다》고 노래하였으며 《꽃고추》에서는 《오늘도 저녁상에 꽃고추라 그 맛은 조국의 맛 그 맛을 잃지 않고 내 삶의 한길에서 맵게 살아왔던가》고 노래하였다. 그리고 《마늘》에서는 《단군조선 그 옛날부터 우리 무쇠같은 몸을 지켜온 그 마늘》이라고 노래하였으며 이밖에 《썩은 썩국이요》에서는 썩, 냉이 음식을 통하여 이웃들과 함께 타향에서도 고향향기를 느끼는데 대하여 노래하였다.

해외에서 민속음식전통을 잊지 않고 살려가는 그런 생활에 대한 정서적탐구도 귀중하지만 그 하나 하나의 민족음식을 두고 거기에서도 민족의 력사, 민족의 정기를 자랑스럽게 느끼는 그 정서세계는 참으로 민족성을 생활에서 뿐아니라 시창작에서도 생명으로 간직한 시인들이 아니고서는 도달할수 없는 높은 시정신, 시세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그대로 이국땅에서 살아도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고유한 민족정신을 지켜 조선사람으로서의 자량과 긍지에 넘쳐있는 동포들의 사상정신세계의 진실한 반영이다.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종소리》의 메아리는 결코 여기에만 그치는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밝고 낙천적인 생활정서와 함께 동포들의 가슴에 서리고 맺힌 설움과 원한, 분노와 단죄의 절규도 있다. 간또대지진 때의 조선인학살사건 80돐을 맞으며 특집된 시들을 비롯하여 일제의 조선에 대한, 동포들

에 대한 역사적 침략책동과 만행을 단죄하고 오늘도 옛 《망령》을 되살려 해외침략과 반공화국책동에 열을 올리는 놈들을 규탄한 시작품들에서 반일정신이 절절하게 흐르고있다.

간포대지진때의 조선사람에 대한 야수적학살만행,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는 일제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력사의 죄이다. 로세대 시인들은 물론 젊은 세대시인들도 원한과 분노의 분화구를 터쳐 시 《피묻은 력사》(정화수) 《9월의 증언》(김학렬) 《봉선화야》(오홍심), 《고난의 물길》(오향숙), 《9월의 분노》(서정인), 《흰 치마저고리》(류계선) 등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조선사람에 대한 학살로 피바다를 이룬 일제의 야수적만행이 준렬하게 폭로단죄되면서 쌓이고쌓인 원한을 담아 력사앞에 청산되지 않은 그 죄악을 오늘도 꺼리낌없이 저지르고있는 일본반동들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감정이 격조높이 토로되었다.

이러한 시작품들과 함께 다른 여러 시작품들에서는 일본반동들의 전쟁책동, 반공화국책동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고있는데 여기서 주목을 끄는것은 김학렬의 시 《기가 차네》와 《백로보고 까마귀되라는가》와 같은 풍자적양상의 작품들이다.

《기가 차네》에서는 《유사립법》, 《히노마루, 기미가요》를 고아대고 《미싸일의 위협》, 《거덜난 <랍치>》를 떠드는 놈들을 두고 《이등박문의 그것이나니나, 도조의 그대로가 틀림없》다고 야유조소 하였는가 하면 《백로보고 까마귀되라는가》에서는 《어제는 식민지락탈, 오늘은 동화, 반통일》을 부르짖으면서 《민족의 얼을 앗아가》려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예나제나 역시 강도의 후예는 강도》라고 조소와 단죄의 기백을 높이였다. 시에서는 오늘도 저질러지는 일본반동들의 전쟁책동, 반공화국책동을 지난날 우리 나라에 대한 놈들의 침략사에 새겨져있는 구체적인 사실들과의 련관속에서 폭넓게 안으면서 높은 지성과 추상같은 경멸의 감정을 안받침하여 야유하고 조소함으로써 풍자적형상의 신랄성과 예리성을 특색있게 잘 보장하였다.

우리는 《종소리》에서 이밖에도 여러 울림의 메아리를 듣고있다. 거기에는 《꽃이 꽃을 들고 왔네》(김운호) 《대동강반의 까치》(김학렬) 등 작

품에서와 같이 조국땅에서 느끼는 인정의 뜨거움과 고결함, 약동하는 삶의 희열과 량만도 있고 《묘향산을 찾아서》(오홍심) 등 작품에서와 같이 류다른 감미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수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정서세계도 있으며 《분노》(홍운표), 《관결》(김운호) 등 작품에서와 같이 미군을 단죄하는 증오의 철추도 있고 《힘한 산길》(김학렬), 《옥친구》(정화수) 등 작품에서와 같이 평범한 생활속에서 찾아보는 인생의 교훈도 있다. 소재도 사상도 그리고 시적계기와 정서적 주장도 각이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굳건하고 순결하게 간직되고 아름답게 빛을 뿌리는 조선의 녀, 민족정신을 보며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겹쌓이는 이역땅에서 살아도 사회주의조국을 우러러 긍지와 자부심,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의하게 밝게 살아가는 동포들의 마음과 생활을 본다.

《종소리》의 시들은 생활이 있고 느낌이 강하면서 짧게 씌여진것이 매우 시사적이다. 시를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속에 시정을 펼쳐나간것도 좋았다. 이역땅에서도 민족의 녀이 어린 고유한 우리말을 찾아쓰고 하나하나의 언어표현을 다채롭게 엮어 시의 서정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려는 탐구의 흔적도 시마다에서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더 바라게 되는 생각도 있다.

시대정신은 주체시문학의 정수이며 시의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

시는 생활속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활이다 시가 되는것은 아니다. 생활속에서 시를 찾아야 한다.

오늘 재일동포들의 생활이 복잡하고 격동적인 현시대와 동떨어진것이 아니고 조국의 현실과 떨어져서 생각할수 없다고 볼 때 시대와 함께, 조국의 현실과 함께 호흡하려는 정서적지향이 더 강렬하고 높았으면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새 천년대의 정초에 고고성을 터친 《종소리》는 계속 울려퍼질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로 빛나는 사회주의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보다 시대정신의 높이를 지향하면서 동포들의 조선의 녀, 민족의 녀를 깨우치며 알리는 애족애국의 《종소리》는 다양하면서도 풍만하고 심오한 시형상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쳐가게 될것이다.

난알의 무게를 두고

김명익

젖빛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파스한 아침해빛을 받으며 여물어가는 이삭들이 자태를 드러낸다.

여기 연안군 비협동농장의 논벌에 가을이 왔다.

나는 이슬에 아래도리를 화락하니 적시여가며 가득해지는 마음을 안고 논둑길을 따라 걷고 걷는다. 봄내, 여름내 곡식포기들을 심고 가꾸어온 이 고장 농민들의 하많은 수고를 생각하며 그 마음마음들을 뜨겁게 되새겨보며...

예로부터 농민들은 난알이 알차게 여무는 가을을 안아오고저 온갖 고달픔을 달게 여기며 일해온다. 하지만 쌀로써 선군혁명로선을 받들어 오는 오늘의 시대에 사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만큼 절절했던적이 있었으랴.

의연히 흑심해지고있는 미제의 반공화국고립 압살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하여 그 어느 때보다 나라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민의 본분이 더욱 무겁게 어깨에 실리고있으니 포기포기 곡식을 자태우고 알알이 난알을 익혀온 이 해의 농민들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가 있을가.

저만치 이삭들이 어우러진 벼숲에 농립모 하나가 묻혀 점도록 움직일줄 모르는데 그와 마주 앉은 굵실굵실한 맨머리바람의 사나이...

나는 그들에 대하여 잘 안다. 농립모의 주인은 이곳 농장에서 30여년간 관리위원장사업을 맡아하고있는 60대 중반의 채동무이고 굵실머리는 《농장원연구사》로 알려진 정동무이다. 한알의 난알이라도 더 내기 위한 고심참담한 나날속에 그들의 인연은 깊어져왔다. 서른해전 채동무가 관리위원장으로 갓 배치되어왔을 때의 일이다. 중학교졸업생인 애송이 농장원청년이

찾아와 자기의 《농학연구실》을 《참관》해줄 것을 청원했다. 가장집물을 몽땅 들어낸 옷방 창문턱에 버찌앗이 움트고있는 몇개의 화분이 그의 《농학연구실》의 전부였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랴.

그러나 새로 온 관리위원장은 애어린 그의 손을 꼭 잡고 성실한 《조수》가 될것을 언약했으며 그에게 시간과 시험포를 톡 떼주었다. 그러한 관리위원장을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허나 그때부터 15년이 지난 후 그가 새로운 벼모기르기방법을 연구하여 마침내 학사의 학위를 받았을 때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변함없이 그의 성실한 《연구조수》로, 방조자로 일해온 관리위원장의 숨은 노력에 너나없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은 새로운 논벼재배방법을 연구완성하여 농장에 도입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할 이야기들이 많겠는가.

내가 가까이 다가가 인사말을 건넸으나 그들은 일에 어찌나 심취되었던지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한사람은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이삭수를, 또 한사람은 이삭당 알수를 세여보고 세여보면서 관리위원장은 벼이삭 한대를 휘여잡고 (한이삭한이삭이 얼마나 소중한으면 선뜻 꺾지를 못했으랴.) 알알이 세여보고 거듭 세여보고는 작은 수첩장에 토박토박 적어넣는다.

(이 포전에서는 정보당 수확고가 얼마나 걸릴가?)

아마도 관리위원장은 오직 이 하나의 생각에 골똘한듯 싶었다. 술진 눈섭과 사색질은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위원장동무, 새로 재배한 논벼 작황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다. 나는 이곳에서 현실체험의 나날을 보내는 과정에 도와 군의 일군들이 논벌을 돌아보며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저로서는 도무지 만족할수가 없습니다. 작가 선생도 아다싶이 이 이삭들이 어떤 이삭들입니까. 우리 연백벌의 이 이삭들이 말입니다.…》

그는 의미심장하게 뇌이며 이삭들을 한가슴 그리안아보는것이였다.

연백벌의 이삭들… 그렇다.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시려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연백벌에 찾아오시어 이삭들을 꺾어드시고 한알한알 벼알을 세어보시며 농사문제를 의논하여주신것이 그 몇번 이시였던가. 수령님의 평생소원을 실현하시려 토지정리의 휘황한 앞길도 열어주시고 프락프르도 보내주시고 결을결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이 어려있는 이삭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이삭들을 단순히 낱알의 무게로만이 아니라 나라의 국력을 강화하고 인민의 행복이 실려있는 무게로 여겨진답니다.》

그의 말을 듣고보니 이제까지 범상히 뇌여온 《낱알의 무게》라는 낱말이 깊은 의미로 안겨오는것이였다. 되새겨보면 낱알의 무게를 높이는 거기에 그의 한생의 전부가 바쳐지고있다고 볼수 있었다.

일년 내내 피땀흘려 농사를 지어놓고도 소작료와 《공출》을 다 바치기전에는 한알의 낱알도 먹을수 없다고 망에 봉인딱지까지 붙여놓아 피죽도 썬어먹지 못하며 살아온것이 조부모들의 비참한 인생이였으며 여덟살까지의 그의 운명이였다. 그랬던 그였기에 땅을 주고 배움의 길을 열어준 조국의 귀중함을 절감했으며 나라를 지켜 총잡고 초소에 섰었다. 그리고 제대후 고향

으로 돌아와 낱알을 가꾸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

탐스럽게 이삭을 지태우고 낱알의 무게를 높여가는것은 곧 은혜로운 조국에 바치는 전사의 도리였으며 본분이였다.

하건만 어머니당은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그에게 다함없는 사랑과 은정을 한없이 베풀어주었으나 바치는 충정보다 내리는 사랑은 더 크고 뜨거웠던것이였다.

그 사랑을 하늘에, 바다에 비길수 있을손가.

하기에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낱알을 가꾸는 밑거름으로 살리라 굳은 맹세속에 살아왔다. 그 맹세와 결심은 오직 높아가는 낱알의 무게만이 증명할수 있었으니 10년간 연구하던 새로운 논벼재배방법이 난관에 부닥쳐 절망상태에 빠지자 이제 그만 단념하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무엇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느냐구? 인간으로 얻을수 있는 명예를 다 얻었는데 여생을 편안히 살아간다 해서 누가 타트하겠는가구? 아니, 나는 그렇게 살수 없네.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낼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설을 지고 불속에라도 뛰어들어야 할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낱알의 무게를 내 삶의 무게로 여기고 살려고 각오했으며 달리는 살수 없는 몸이라는걸 알아두게》

이러한 그였기에 관리위원장의 직분을 알고 동분서주해야 하는 드바쁜 속에서도 끝끝내 새로운 논벼재배방법을 연구완성하여 농업재배학 박사칭호를 수여 받았을뿐 아니라 올해에는 그 재배방법을 온 농장에 받아들였던것이다.

이렇듯 낱알의 무게를 높여나가는 거기에 자기의 값높은 한생이 있다는 자각을 고 밤이나 낮이 벌에서 살고있는 이런 일군들로 하여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의 시대가 앞당겨지며 강성대국건설의 중요 전선인 농업전선이 믿음직하게 수호되는것이 아니겠는가.

끝나지 않은 결산

박혜란

고요한 바다도 세월이 흐르면 바위를 깎아내린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씻어버릴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조선인민의 원한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오늘도 《로동신문》을 펼치니 일제의 과거죄행을 규탄하는 기사가 또 실렸다. 기사를 읽어보느라니 언뜻 몇해전에 세상을 떠난 외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백살가까운 기나긴 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한시도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덜어보지 못한 나의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불우한 운명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국땅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할머니는 《불온》사상을 가진 집안이라고 하여 자식을 학교에마져 보낼수 없어 이국땅에서 또다시 낯설은 고장으로 가랑잎신세마냥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철부지 어린 시절 나의 머리속에 자리잡힌 이야기는 하늘나라의 달님과 별님에 대한 동화이야기보다도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짓밟았으며 착하고 부지런한 우리 인민을 어떻게 억눌렀으며 우리 가문의 씨를 어떻게 말리웠는가 하는 비참한 이야기였다.

그때로부터 어언 40여년간의 세월이 흘렀다.

아니,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인민에게 민족불행의 화근을 몰아왔던 조선강점이라는 침략의 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웅근 한세기라는 세월이 다가고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속에 사무쳤던 그 원한은 사라지기는 커녕 심장에 박힌 비수마냥 더더욱 아픈 가슴을 찌르고있다. 생전에 할머니의 가슴에 남아있던 깊은 상처를 백년이라는 세월도 씻어주지 못했다.

나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죽지 못해 살아오던 해방전 그 시기에는 조선사람이라면 제땅에서도 식민지노예요, 남의 나라 땅에서도 나라없는 민족이 당해야 하는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다.

3.1인민봉기에 참가하여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죄 아닌 《죄》로 고향 온성을 떠나야 했던 그밤, 배전 을 치는 두만강의 처량한 물

소리가 작별의 흐느낌소리처럼 들려 가슴에 찔던 눈물을 배전에 뿌렸다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중에서 한토막의 이야기만 전하려 한다.

할머니가 왕청현 석현이라는 골안중에서도 막바지 골안에 이국살이의 첫집을 풀어놓고 결혼을 하였을 때는 스무살에 잡힌 해였다. 그때 할머니는 이웃동네에 산다는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시집을 갔다. 시 아버지가 항일혁명에 참가하기 위해 먼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자식대라도 물려주려고 부랴부랴 잔치를 차렸던 것이었다.

할머니는 남편의 얼굴도 익히지 못한채 그를 떠나보내야 하였고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워야 하는 그 각박한 생활속에서 큰집의 살림을 떠메고 나가야 했다. 이듬해에 할머니는 딸을 낳았다.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다는 딸의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을 익히며 할머니는 나의 어머니를 키웠다.

어머니가 열네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가난속에서도 그처럼 공부를 하고싶어하는 딸들 위하여 학교에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학교에 갈수가 없었다.

일제경찰서에 리력문건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격근거지에서 내려온 불온사상이 농후한 요시찰대상》이라고 씌여있었고 빨간 줄로 밑줄까지 쳐있었는데 그런 문건을 가진 집안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증조할아버지는 목수일을 한 돈으로 장에 나가 책을 사서 손주들에게 자습교육을 주었으며 남달리 총명한 어머니는 어떻게나 공부를 시키자고 먼곳으로 보내여 학교에 입학시켰다.

우수한 성적으로 연길고려에 입학한 딸을 위하여 할머니는 뼈빠지게 샅일을 했다. 그러나 월사금을 제때에 바치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회초리로 손목을 맞아야 했다. 통통 부어오른 손목을 감싸쥐고 어머니가 집에 돈을 보내라는 전보를 날렸을 때 딸의 전보를 받아든 할머니는 샅일을 하며 번 돈을 고스런히 써서 고품끝에 매달고 역전으로 나왔다.

마을돌이나 고작이던 할머니가 난생처 음 역에

나왔을 때 또 하나의 민족적설움을 당해야 했다.

일본말을 모르면 기차표 한장도 살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신에 불리워야 했던 일본말 이름조차 불리보기 싫어 감감 잊고 살던 할머니가 어떻게 《연길까지 가는 기차표를 한장 샅시다》라는 일본말을 알수 있으랴.

길손한테서 일본말을 겨우 암송한 할머니가 매표구앞에 다가섰을 때 딸에 대한 생각에 움해있던 할머니는 금시 배운 일본말을 외우지 못했다.

《일본말 모르면 차표 살수 없어. 저리 물러나!》

다시금 끝에 가서 줄을 서나와야 했던 할머니는 이번에는 발음이 정확치 않다고 하여 또다시 밀려나오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세번째만에야 일본말을 익힌 할머니가 표를 떼려는 순간 할머니는 불쑥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이것이 어디 조선사람이 살라고 만들어진 세상이란 말인가. 딸한테 못가면 못갔지 일본말은 안할테다.)

후날 할머니는 바로 그 순간에 **김일성** 장군님의 슬하에서 싸우고있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 싸우고있는 남편이 일제놈을 멸망시키려고 간난신고하며 싸우는데 앵무새처럼 남의 나라 말을 외울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역박으로 나와 기적소리를 울리며 떠나가는 기차를 슬픈 마음으로 바라우면서 할머니는 월사금을 내지 못해 벌을 서고있을 딸을 생각하며 왜놈들을 끝없이 저주하였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이어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다음날의 이야기를 한토막 더 하려고 한다.

마지막수업이 끝난후 얼굴이 대리석처럼 차가워보이는 일본인교원은 월사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결상을 쳐들고 서있으라는 벌을 주고나서 말했다.

《모두 필통뚜껑을 열어 자기 필통에 빨간 딱지가 있는 아이들은 모두 교탁앞으로 나와!》

그때 일제는 조선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들도 일본말로 교육을 줄데 대한 《정책》을 실시하고 휴식시간에 마저 조선말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먼저 조선말을 하여 빨간 딱지를 받은 아이가 후에 조선말을 한 동무의 필통안에 자기가 가졌던 빨간 딱지를 넘겨주게 하였다. 결국은 조선사람끼리도 조선말을 통제하게 하는 수법이였다. 울며 겨자먹기로 학생들은 매를 맞거나 《물채우기》 벌을 서지 않기 위하여

누가 조선말을 하는가 귀를 도사리고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도 다섯명의 조선아이들이 교탁앞으로 끌려나갔다.

《모두 팔을 쳐들어!》

일본인교원의 말이였다.

획! 획! 하는 회초리의 바람소리와 함께 팔을 쳐든 아이들이 아츠러운 비명을 질렀다. 자리에 앉은 녀자애들은 비맞은 참새마냥 바들바들 떨었고 남자애들은 억울하게 매맞는 동무들이 불쌍하여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교실뒤에서 결상을 들고 벌을 서는 어머니의 가슴속에는 분한 생각이 치밀어올랐다.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하는것이 무슨 죄로 되는 걸가?

제 나라 땅에서마저 살수 없어 낯설은 이국땅에 와서 민족적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조선사람에게 무슨 죄가있다고 저렇듯 천대하는걸가?

아직은 다는 리해할수 없었지만 이날 어머니의 가슴속에 처음으로 싹튼것은 반항심이였다.

다음날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전이였다.

어머니는 어제 매를 맞은 동무들의 필통에서 빨간딱지 5개를 꺼내가지고 자기의 필통안에 집어넣었다.

동무들은 놀란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소곤소곤 조선말을 주고받았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시내물소리처럼 유정하게 들리는 조선말을 귀결에 들으며 어머니는 왜놈들과 싸우려 백두산으로 떠났다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 어서빨리 왜놈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수업이 끝나자 일본인 담임교원이 표표한 기상으로 교탁앞에 나섰다.

《모두 필통뚜껑을 열어!》

일시에 모두의 눈길이 어머니에게 쏠렸다. 어머니는 필통안에서 다섯개의 빨간 딱지를 꺼내들고 스스로 교탁앞으로 나갔다.

획! 회초리가 바람을 일구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라도 치는듯 일본인교원의 교함소리가 터져나왔다.

《불온사상이 가득찬 계집애! 너 의식적으로 나쁜짓 했지? 대일본제국에 항거하면 죽어야 한다는걸 잘

알테지. 그래 어디 한번 죽어봐라!》

획! 획! 회초리소리가 련이어 어머니의 손목을

내리쳤다. 그러나 그 시각 어머니에게는 아픈 마음을 가리워줄 따뜻한 품이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학교기숙사의 식당에 있는 물탱크에 혼자서 물을 채워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 그때 어머니가 흘린 눈물을 동이에 담아 솜을 센다면 열개는 더 넘었을것이었다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었다.

왜놈들에 대한 저주와 원한만은 어머니의 상처 깊은 가슴을 한꺼풀도 씻어낼수가 없었다고 어머니는 평생토록 잊지 못해 하였다.

나는 지금도 할머니가 생의 마지막순간에 우리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을 잊을수 없다.

《애들아, 백살을 눈앞에 둘 때까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으로 이 가슴을 꼭 채우고 살아온 내가 이 가슴에 남기고 가는것이 있다면 바로 그건 왜놈들에 대한 원한이다. 왜놈들의 총에 맞아 이국의 땅야에 봉분도 없이 쓰러진 남편과 시형제분 열다섯명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어디 그뿐이냐. 농사밖에 몰랐던 순박한 우리 집안의 아버지며 오빠들과 시집일가의 남녀로소 수십명이 왜놈들의 칼에 찔려죽고 불에 타죽고 매맞아 죽은걸 생각하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내 생전에 그놈들이 우리 조선인민에게 용서를 비는 꼴을 보자고 했는데 그놈들과 결산을 못하고 가는구나.

애들아, 왜놈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생명까지 잃은 희생자들을 대신하여 너희들이 피값을 꼭 받아내야 한다.》

이것이 나의 할머니가 혁명의 3세, 4세들에게 남기고 간 당부이다. 아니, 이것이 어찌 할머니만이 남긴 유언이겠는가. 일제의 폭정밑에 시달리고 쓰러졌던 이 땅의 모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수천수만의 희생자들의 웨침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해방전 일제가 우리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을 구태여 수자를 들어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천년세월이 흐른다 해도 역사의 갈피에 피로 얼룩진 일제의 만행은 똑똑히 계산되어야 말것이다.

일본은 아직 수치스러운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있다. 자기가 일본사람이라면 자기 부모의 과거, 자기 역사의 과거를 수치스러워하라. 그리고 그 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라.

이것은 나의 호소이기전에 해방전에 왜놈들의 채찍밑에 숨진 령혼들의 호소이고 징용과 징병에 끌려갔던 수십만의 할아버지들과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수많은 할머니들의 웨침이다. 그리고 그 웨침은 그들의 후손들인 우리의 목소리와 합쳐져 더 큰 웨침으로 파도쳐 간다.

우리 조선의 새 세대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일제의 만행에 의한 희생자들의 후손들이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들은 반드시 일본군국주의와 결산할 날이 올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결산을 두고 나는 웨친다. 고요한 바다물도 세월이 흐르면 바위를 깎아내리지만 우리의 가슴속에 서린 원한만은 씻어내릴수 없다는것을.

가사

장군님 마음속 가까이에는

김경준

눈비가 내리어도 병사들생각
과일향기 풍기여도 최전연생각
장군님 마음의 창문가에는
언제나 병사 먼저 실려온다네

새날이 밝을 때도 병사들생각
전선길에 별돌아도 병사들생각

장군님 마음속 제일 가까이
언제나 병사들이 곁에 서있네

병사들이 그리워 가신 길 천리
또다시 보고싶어 찾으신 길 만리
장군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병사들이 살고있어라

생활의 단면을 통해 밝혀진 의의있는 문제성

김선일

일반적으로 단편소설은 생활의 한 단면을 통해 시대와 생활의 진리를 밝혀낸다는데 그 중요한 특성이 있다.

시대가 제기하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해명하는 데서 장중편소설과 다른 단편소설의 기동성과 전투성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새 세기에 들어와 창작발표된 일련의 작품들의 창작성과와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더욱 뚜렷이 느끼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소설은 문학의 중심위치를 확고히 차지하고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비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문제, 일꾼들의 실력문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단편소설은 자기의 특성을 적극 살려나가려는 좋은 시도를 보여주고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잡지 《조선문학》에 발표된 단편소설 《대학시간》(오광철, 2003년 8호)과 단편소설 《퇴성나무》(리정옥, 2003년 12호)를 놓고 몇가지이야기하려고 한다.

두 작품은 다같이 정보산업시대가 제기하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려고 시도한 작품들이다.

단편소설 《대학시간》에서는 현시대 지식인들의 과학적량심과 시대적자각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소설은 대학생 정옥과 그의 스승인 허주성강좌장, 허주성과 막역한 친구간이며 연구소 실장인 정옥의 아버지 그리고 정옥의 대학동창생인 차호남의 관계를 파고들면서 이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였다.

작품에서 이들의 관계는 극적인 사건을 놓고 심리정서적으로 예리하게 맺어진다.

사건은 바로 허주성강좌장의 박사론문심의회와

정옥의 학사론문 포기다.

허주성강좌장의 박사론문은 그가 새로 개척한 컴퓨터 조종분야의 새 과목교재였다.

허주성이 수년세월 노력하여 완성한 새 과목교과서는 그의 피타는 탐구와 뼈아픈 노력이 합쳐진것으로서 제자들의 지지속에 박사론문으로 심의에 제출된다.

그 론문을 다름아닌 정옥의 아버지가 심의하게 된것이다.

여기에는 벌써 작품의 극성을 야기시킬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것은 허주성의 교과서에서 취급한 컴퓨터조종체계는 한마디로 《교》 체계에 관한것이였는바 이것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정보기술추세에 비추어 보면 벌써 낡은것이였기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새롭게 출현한 《기》 체계를 담지 못한것으로 하여 론문의 가치가 당당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인정》과 《도의》에 못이겨 박사론문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정옥의 아버지 심리는 매우 복잡한것이다.

더우기 허주성은 지금 무서운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이고 또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지 않았는가.

하면서도 딸에게는 학사론문을 포기할것을 요구한다.

사실상 정옥의 지도교원인 허주성의 심혈이 비낀 론문을 포기한다는것은 허주성의 《가슴에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일로 된다. 또 정옥이 자신으로서도 대학생으로서 얻을수 있는 《명예》를 잃게 될것이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절절한 소원과 사랑을 부어 공부시켜준 어머니조국의 진정을 가슴깊이 간직하였기에 또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의 지도를 받은 론문이라고 해도 그 학술적내용이 발전하는 오늘의 과학기술발전추세에 따라지지 못한것임을 안이상 정옥은 학사론문발표를 서슴없이 포기할 결심을 하게 된다.

자체의 정신적모태김속에 오늘의 시대적요구와 강성대국건설의 담당자라는 자각을 절감하면서 스스로 참된 탐구의 길을 걸어나가려는 정옥

의 모습에 새 세대청년지식인의 면모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허주성강좌장 역시 결코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앞세우는 용렬한 인간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논문이 오늘의 과학발전추세에 미쳐 따라가지 못한것임을 알자 단호하게 자기의 박사론문을 취소한다.

그리고는 자기 제자인 정옥에게서 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ㄱ》 체계에 대한 강의를 진지하게 받는다.

이러한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해 소설은 과학기술이 《빛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우리의 지식인들은 기성의 과학연구성과나 지식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높이에서 솟아오르려는 목표를 내걸고 부단히 새로운 탐구의 세계를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그 길에서 제자가 스승을 따라앞서고 스승이 제자에게서 배우는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있을수 있는일이며 또 있어야 하는 정보산업시대 생활로 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작품이 제기한 문제성을 해명하는데서 차호남의 성격형상은 무시할수 없다.

그는 인간적으로 나무랄데 없는 성격이다. 남들의 피로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줄 알며 계기에 맞게 처신할줄 아는 차호남은 진정한 탐구의 세계에 뛰어들려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편안하고 걱정없이 넘기고있는 《현재완료형》이다.

이런 인간들이 흘러보내는 《만족의 시간》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끼치는 후과는 매우 크며 종당에 우리는 남의 뒤꼬리만 따르게 되는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작품은 심각하게 제기하고있다.

소설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는데 리용된 《인삼화분》 세부도 인상깊다.

산에서 캐온 인삼을 산삼으로 알고 가꾼다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세부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작품에 그려지고있다.

이 세부는 남의 기쁨을 위해 한생을 바쳐온 허주성강좌장의 성격적면모를 부각시켜주는데 이바지하면서도 보다는 과학탐구의 열매는 가짜 《산삼》이 아니라 진짜 《산삼》으로 되여야 한다는 뜻깊은 주장을 밝히는데 복종되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학위논문심의라는 지식인들의

생활단면을 설정하고 진지하게 파고들면서 정보산업시대가 제기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해명하고있다.

단편소설 《퇴성나무》는 우의 작품과는 달리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자신의 실력을 따라세우지 못하는 한 일군의 체협세계를 통해 교훈적인 인간문제를 밝히고있는 작품이다.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문제성은 《퇴성나무》라는 상징적인 세부에 집약되어있다.

단풍든 계절, 누렇게 황이 든 잎사귀들이 스스럼없이 땅에 떨어지는데 유독 한 나무만이 고집스럽게 잎을 달고 다가오는 엄혹한 겨울을 맞이한다. 모진 추위와 눈바람, 비바람을 이겨내면서... 그런데 겨울을 이겨낸 그 나무가 새봄의 우뢰소리에 묵은 잎을 떨구어 버린다...

작품은 현대화, 정보화의 수준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벌릴것을 요구하며 강성대국건설의 길로 줄달음쳐나가고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묵은 잎》은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고있다.

소설은 제사공장의 기본생산설비인 14호자견기의 기술개조라는 생활단면을 통해 이 문제를 해명하는데로 지향하고있다.

여기서 기본은 기사장 한성민의 내적체험세계에 대한 진지한 추구이다.

30여년간 공장기사장으로 일해온 한성민에게도 《푸른 잎》 시절이 있었다.

그 첫 기슭이 바로 대학시절이다.

젊은 그 시절 그는 나라의 과학발전을 중심으로 놓고 그 어떤 《의리》 감이나 《도덕》과 《체면》에도 구애됨이 없이 낱고 뒤떨어진것을 서슴없이 부정하고 래일의 조국에 보탬이 될 가치있고 새로운 과학적발견만을 인정했으며 또 실제로 가치있는 성과도 내놓았었다.

그 열정, 그 기세로 기사장생활 30여년간 공장을 남부럽지 않게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오늘의 한성민은 어떤 사람인가.

소설에서는 바로 여기에 력점을 찍고있다.

한마디로 한성민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점과 안목으로 현실을 볼줄 모르고 오늘의 현실에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는 인물임을 소설은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형상적해명은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 공장에 배치되여온 리명석과 공장의 최신식설비로 인정되는 14호자견기 개조문제를 놓고 차이나는

립장과 태도를 두고 실현된다.

한성민은 그 기계가 자동식이므로 설비개조를 하려면 낡은 2호자전기부터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리명석은 반대로 오래된 2호자전기는 무시해버리고 현대적인 14호자전기를 갱신하고자 주장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설비갱신과 관련한 기술실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적요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두 인물의 성격적 차이가 놓여있다.

그러므로 14호자전기개조가 성공하게 되었을 때 한성민은 자기가 시대에 뒤떨어졌음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괴롭지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마당에서 한성민은 자기의 처지를 두고 사색과 번민에 잠기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작품은 강성대국건설의 미래는 곧 오늘의 현실이며 현실로 전환시켜야 할 래일이라는것, 그 래일을 현실에 빙자하면서 부정하는것은 이미 그 인간의 사고방식이 낡았음을 의미한다는것을 밝히면서 시대의 요구를 따를만 한 능력을 잃은 인간이 다름아닌 《목은 잎》으로 된다는것을 해명하고있다.

결국 작품이 해결하자고 한 문제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새 세기의 높이으로 치달아오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자신이 진군의 길에 장애물로, 낡은 드렁기로 되고있다면 설사 보람차고 긍지높았던 지난날이 귀중하다고 해도 대담하게 자리를 내놓을줄 알아야 한다는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경제과학전선에서 나서는 인간문제의 한 측면을 풀어나가려고 한 여기에 소설의 긍정적성고가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시대의 《푸른 잎》의 형상을 도외시한것이 부족점으로 느껴진다.

《목은 잎》을 대신할 《푸른 잎》은 어떤 인간인가.

리명석이가 여기에 대답을 주어야 할 인물이다.

그런데 작품에서 리명석의 성격적면모가 매우 어설피게 그려진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있다.

소설에서 리명석은 정보산업시대 기술자로서 지향과 이상이 높고 실력이 있으며 열정적인 청년이다.

그런데 그의 성격적면모를 생활속에서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주로 한성민과의 관계속에서 드러

나는 표면적인 대사나 간단한 외형묘사로 대치하다보니 산 인간의 모습으로 생동하게 안겨오지 않는다.

시대의 《목은 잎》으로 되어버린 인간의 체험 세계를 추구하는데로 형상의 기본선이 나가다보니 전반적으로 소설이 어둡고 무거운 인상만 남기면서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데 지장을 받게 된것은 앞으로의 창작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소설형상에서 불만스러운 점은 《대학시간》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과학탐구의 길에서는 극성을 예리하게 추구하고 시도하던 나머지 성격형상에 손상을 주고있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값죽은 《도리》나 《인정》에 과학자가 포로되어서는 안되며 때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의 심리적곡절과 극적체험을 그릴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정옥이가 스승인 허주성이 불치의 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정황에서 학술토론회에 가게 만든것은 새 세대 청년지식인의 성격형상에 흠집이 아닐수 없다고 본다.

아무리 탐구의 열망으로 불타는 인간이라고 해도 《난치의 병마》로 앓고있던 스승이 쓰러졌는데 연구소로 발길을 돌리는 정옥의 모습은 공감이 가지 않을뿐더러 심장이 너무나도 차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론바 《극성》이 때로 형상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겸해서 한가지 더 말하고싶은것은 허주성강좌장의 병때문에 당에서 《수만금을 들여 외국의 어느 한 병원에서 그 치료를 위탁》했다는 설정은 억지스럽다고 보아진다.

사실상 교육과학자들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은 결코 그 어떤 물질적인 평가에만 있는것이 아닌것이다.

혹시 소설에 그려진 허주성강좌장이 외국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전제와 타당성이 주어졌다면 몰라도...

작품에서 극성은 어디까지나 성격론리, 생활론리를 벗어난것으로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시대가 제기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단편소설이라는 작은 그릇에 원만히 담아낸다는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작가자신에게 달려있다.

소 생

박종상

내가 속한 총련교육일군조국방문단 일행은 사회주의조국에서 두번째로 맞는 일요일을 대성산에서 휴식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조국의 안내원들에게 늘 타고다니는 전용버스를 타지 말고 지하철도로 가자고 제기하여 락원역까지 지하철전동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일요일의 전동차는 대단히 붐비었다. 젊은 사람들도 많거니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도 많다.

사람들의 표정은 한없이 밝다. 인류사에 류례가 없는 시련을 이겨낸 자신심이 그 밝은 표정에 스며있는것이나 아닌지 그들은 간단없이 떠들며 구김새가 없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강행군에 펼쳐나선 수도의 시민들에게는 일요일은 좋은 휴식의 날이요, 가족의 단란한 즐거운 기회인지도 모른다. 엿저녁부터 차비를 해두었다가 새벽에 밥을 지어먹고 점심밥이며 단물이랑 파자랑을 싸들고 산으로, 들로 혹은 만경대로 혹은 대동강변, 보통강변의 공원들로 나가는것이나 아닐가.

매마침 5월초의 꽃계절이다. 평양시민들에게 휴식터는 얼마든지 있는것이다.

우리들은 지하철도 봉화역에서 전동차를 타고 승리역, 통일역, 개선역을 지나 전우역에서 내려 전동차를 갈아탔다.

어느 역이나 사람들이 붐비었다.

나는 즐겁게 답소하며 떠드는 끝없이 명랑한 남녀로소의 승객들을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아, 조국, 우리 사람. 이것이 모두 우리 사람이고 이것이 모두 우리 조국이다.)

나는 조국의 숨결을 참관지들에서도 느꼈으나 이 전동차칸에서 그것을 절실히 느끼었다.

산천도 사람도 제사람 아닌 이역에서 살아온 나에게 조국은 그 모든것이 정답고 그림고 가슴에 뜨겁게 안겨왔다.

전승역에서 전동차를 갈아탈 때였다.

나는 유심히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 고개를 돌렸다.

초로의 한 녀인과 눈길이 맞부딪쳤다. 녀인은 나의 시선에 약간 당황해하면서도 주름진 눈가에 알릴락말락 미소를 띄웠다.

그 미소에 나도 당황하였다. 어색하게 나도 웃음

을 띄웠다가 고개를 꾸벅하였다. 녀인은 중년의 원숙한 아름다움을 지니고있었다.

나는 부신듯 눈길을 피하였다가 다시금 녀인을 바라보았다.

꽤 낮익은 느낌이였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본 사람인지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락원역전광장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붐비었다. 봄을 맞은 수도시민들에게 대성산은 안성맞춤의 휴식터요 그들의 수도시민된 자부심을 충족시켜주는 자연조건과 규모, 설비를 갖춘 대자연공원인것이다.

송림으로 뒤덮인 아담하고 그윽한 산세, 우거진 소나무숲속을 흐르는 사슴떼, 푸른 소나무가지에 날아앉은 황새며 왜가리떼, 은은하게 울리는 뱀꾸기, 딱따구리, 두견새, 꼬찌리 울음소리...

안학궁터를 비롯하여 고구려의 옛 도읍이였던 당시의 면모를 전하는 고적들도 많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선민족으로서의 정서와 슬기를 키워주는 가지가지의 전설들도 전하여오는 대성산.

높이 솟은 남문을 거쳐 가면 주작봉, 장수봉, 소문봉, 울지봉... 그 이름도 유서깊은 봉우리들이 한눈에 안겨오고 그 봉우리들에 장수각, 소문각 등 정각들의 합각지붕이 하늘을 날듯 아득히 솟아있다. 복구한 옛 성벽도 사람들에게 옛 정기를 되살려준다.

이 유서깊은 땅에 로동당시대를 자랑하는 식물원과 동물원, 갖가지 유흥시설들을 설치한 유원지...

나로서는 이번이 세번째로 되는 조국방문이지만 전에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도 대성산에 와서 혁명렬사릉에 화환을 드리고 동물원도 보았는데 그때에는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정비되어있지 않았었다.

이번에 10여년만에 와보고 나는 참으로 놀랐다. 평양시내의 변모된 모습은 말할것도 없고 대성산도 나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말한다면 별천지로 보인다.

산은 그전의 그 산이로되 어떻게 이렇게 다른 느낌인가?

단순히 유원지라든가 놀이터, 휴식터라는 그런 느낌만이 아닌것이다. 산 전체가 말그대로 싱싱한 생기를 막 뿜어내는듯 힘있어보인다.

유구한 역사가 오래동안 숨을 죽였다가 참다운 주인을 만나 살아났다. 푸른 산이 살아났다. 아니 현대가 거기에 살아있고 창창한 미래가 힘있게 숨

쉬고 있지 않는가.

나는 끝없이 맑은 하늘을 다 들이기기라도 하려는듯이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조국의 맑은 공기와 그윽한 향기가 심장과 폐부와 혈관을 통하여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모든 세포가 싱싱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다. 조선사람인 나 자신이 기상이 소생한듯 한 느낌이다.

2

우리 일행은 동심세계에 돌아가서 아이들 틈에 끼여 관성렬차도 타고 대관람차도 타고 뛰놀기도 하였다. 즐거운 휴식의 시간은 빨리도 지나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밥먹을 자리를 잡느라고 돌아다니다가 나는 저쪽 자동차놀이터와 야외매대사이에서 내쪽으로 걸어오는 너인을 보았다. 전동차에서 눈길이 마주쳤던 그 너인이었다.

무늬고은 옥색치마저고리를 입고 초록색바탕에 연한 고동색잔줄무늬가 박힌 천구력을 들고있었다.

전동차칸에서는 알지 못했는데 양복을 입은 동년배의 젊잖은 남성과 염화비닐가방을 든 스물너댓되어 보이는 파마머리를 한 젊은 여성이 함께 걸어오고있었다.

그들은 에스키모매대앞을 지나 등산길쪽으로 가다가 나란히 길아래 잔디밭에 가앉았다.

(어디서 보던 얼굴인데...)

나는 다시 또 의문에 사로잡혀 려치없이 힐끔힐끔 너인을 살폈다. 대성산의 환경과 들뜬 기분이 나로 하여금 일본에서는 거치장스러운 걸치레라고 하는 체면을 벗어던지게 한것인지도 모른다.

얼굴은 동그스름하고 키는 약간 작은편이다. 눈귀와 입가에 잔주름이 새겨졌다. 커다란 눈에 온화한 빛이 넘친다. 남자는 그의 남편인것 같다. 로동자인지 사무원인지 알수 없다. 얼굴이 길죽한 키가 큰 사람이다. 젊은 여성은 딸인가.

그들은 서로 웃으며 쳐다보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누구던가?)

나는 옛 기억을 더듬어보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자꾸 그쪽을 바라보는 바람에 너인도 눈치를 챘는지 이쪽을 보았다. 우리 두사람의 눈길이 다시 마주쳤다.

순간 너인이 일어섰다. 그는 이쪽을 향하여 곧바로 걸어왔다. 아까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너인은 왼쪽발을 옮겨디딜 때 약간 몸이 기울어지는것 같았다.

그것은 주의하여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미미한 것이었다.

《?...》

나는 너인을 의아쩍게 바라보다가 《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말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다가오는 너인의 놀람과 기쁨이 뒤범벅이 된 얼굴에서 옛 기억이 되살아났던것이다.

《선생님!》

《정자동무!》

거의 동시에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급히 다가왔다.

나는 서너걸음 저쪽에 서서 공손히 머리숙이는 너인에게 그냥 다가가서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자그마한 그 손을 통하여 40년이란 기나긴 시간의 단절을 다시 이어보려는듯-

나는 그 자그마한 손을 잡고 흔들다가 한참만에야 놓았다. 그리고는 너인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정말 정자동무로군. 틀림이 없군...》

너무나도 뜻밖이고 너무나도 감개무량하였다. 나는 연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모를수밖에》하고 중얼거렸다.

너인의 눈굽에는 물기가 어리었다. 그것을 손수건으로 살며시 누르면서 너인은 말하였다.

《예,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성한 사람과 같이 서다니나나니...》

그는 긴 치마를 입은 하반신을 내려다보며 흔히 소녀들이 새옷을 입었을 때 하는것처럼 약간 흔들여보였다. 살래살래 소리내어 흔들리는 옥색치마자락이 해빛을 받아 여러 색깔로 변하여 한결 아름다웠다.

《아까 전동차칸에서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총련에서 오신 손님들같고... 선생님같기는 한데 너무나 의젓하시고 훌륭해서 혹 아니문 해서... 그땐 선생님이 아직 학생복을 입고계시지 않았습니까.》

너인은 뒤컨을 돌아보고 세대주(남편)와 머느리라고 나직이 말하였다. 아들은 사업때문에 함께 오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옛일을 추억하듯 그윽한 눈매로 잠시 해빛에 풍선을 뚜렷이 드러내보이고있는 산마루를 올려다보다가 다시 나에게로 시선을 옮기면서 측은히 말하였다.

《선생님도 펍 늙으셨습니다. 흰 머리칼이 많아지고... 옛날에는 그렇게도 얼굴이 교우시더니.》

나는 다시 또 당황하였다.

나는 그 옛날 청춘시절의 한때 정의감과 동정심에서 진심으로 이 너인의 평생의 반려가 되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칠혹과도 같은 청춘에 바늘구멍에서 새어나는 한가닥의 광명이라도 잡으려

는듯 애절하게 나의 시선에 감겨드는 처녀-정자의 그 시선에 끌리었는지도 몰랐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어느날 단둘이 방안에 남게 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자기 심정을 고백하려 하였다. 정열에 이끌려졌을 나의 두눈동자를 정자는 눈물을 가득 담은 눈으로 뚫어지게 응시하며 세계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의 얼굴은 무참히 이그러졌었다. 그것은 나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정자의 내심의 고뇌를 여실히 말하여주고있었다.

그때 나는 자기의 억지스러운 청혼이 도리어 정자의 고통을 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 나는 달콤하고도 씁쓸한 청춘시절의 감각을 더듬고있었던 터라 그 당자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보니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아니 머리사 세지 않고... 내 나이 얼마길래.》

나는 쓰겁게 말하고나서 《신문에서 귀국소식을 알고 있었는데도...》하고 새삼스레 감탄한듯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사실 눈앞에 있는 이 초로의 녀인이 자신이 그전날 동정하고 사랑하였던 그 금정자와 같은 인물이라는것이 좀체로 믿어지지 않았다.

3

그것은 40년전의 일이었다.

총련이 결성되고 재일본조선인운동이 바야흐로 주체의 로선을 따라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당시 나는 도쿄에서 총련의 교원양성소를 졸업하고 효고현의 《ㄷ》라는 도시에 있는 조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었다. 그것은 나의 생애에서 가장 꽃다운 청춘시절이었고 정열과 포부에 넘쳐 일하던 잇을수 없던 나날이었다. 재일동포들속에서 공화국에로의 귀국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은 료원의 불길같이 일본전국 동포사는 곳마다에 번져졌다.

귀국운동을 계기로 동포들의 권리의식, 민족자주의식, 공화국공민된 자각은 급격히 높아가고 그에 따라 조선학교 학생수가 대폭으로 늘어났다. 곳곳에서 성인학교, 청년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우리 글 우리 말을 배워서 사회주의조국으로 간다는 것이었다.

나도 학교사업을 마치고나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성인교육사업을 맡아 돌아왔다.

내가 맡은 청년야학중의 하나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요네싱》이란데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거기서 학교까지는 교통수단이 없고 게다가 청년들이 거의 모두 그곳 텃밭공장이나 벽돌공장, 기와공장들에서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밤에도 일하기때문에 효률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방을 하나 빌려서 숙식하는것이 나왔다.

나는 그 야학준비로 수업후나 일요일은 요네싱에서 살다싶이하며 수강생들을 모으고 그들의 힘을 빌어 방을 하나 얻었다.

그 얻은 방이 정자네 집이었다.

수강생명단이 다 작성되고 청년야학이 시작되는 날 내가 거기 총련분회위원 한사람을 앞세우고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집에서는 인기척을 느낄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 분회위원은 성큼성큼 방문으로 다가가서 방문을 열었다.

《선생님 오셨다. 오늘 밤부터 여기서 야학한다. 알겠지.》

누구를 보고 말하는것인지 분회위원은 이곳 특유한 사투리가 섞인 일본말로 혼자 말하고 문을 닫았다.

《선생님, 7시면 밥을 먹을테니 8시부터는 할수 있을겁니다. 학생이 한 대여섯이나 됩니까?》

《예, 지금 약속을 받은것은 열세명입니다만...》

《절반 쳐도 한 여섯은 되겠군요. 젊은 사람들이 당초에 좋은것을 안배올려 하니...》

분회위원은 끌고온 자전거를 타고 일터인 텃밭공장으로 훌 가버렸다.

홀로 그 집 뜰에 남은 나는 그때 인기척은 느껴 돌아보았다. 창호지를 바른 방문이 빠끔히 열렸다가 소리없이 닫히는것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텃밭공장이며 동포집들을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그 집으로 갔다.

방은 6조방도 8조방도 아닌 4조방들을 가운데를 뚫어낸것이였다. 일반 일본인들의 집과는 달리 흙벽에다 종이틀 바른 벽에 낡은 벽시계가 걸려있었다. 방바닥은 온돌이고 장관지로 세멘트포장종이를 발랐다. 아래목의 조그마한 지게문 저쪽이 부엌칸인것 같다.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아직 동리 청년들은 몇명밖에 와있지 않았다. 제일 뒤켠 책상에 얼굴이 동그스름한 처녀가 수줍은듯 눈을 내리깔고 앉아있었다.

그 처녀를 본 순간 나는 가슴을 강하게 쥐여박힌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처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어둡고 침침하였다. 저승이라는것이 있다면 아마 그곳에서 온 사람이란 이렇가 싶도록 생기라고는 찾아볼수도 없었다. 그것은 살아있다가보다 살아있기를 거부하는듯한 아니, 이 세상의 모든것을 저주하는듯 한 그러한 절망적으로 어두운것이였다.

나는 아직 젊었지만 몇해 교원노릇을 하면서 학생들 가정의 이루 헤아릴수 없는 빈궁과 고향에로의 길이 막힌 이국살이의 외로움, 극절많은 생활의 역사에 접하여왔고 사람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는데는 익숙되어있었다. 사회전체가 통채로 조선사람을 덮어놓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본사회, 그속에서 사는 제일동포들의 생활이, 그들의 마음과 표정이 밝을리아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어두움은 무엇인가?

나는 숨막힐듯 한 압박감을 밀어제끼며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하였다.

처녀는 약간 얼굴을 들었다. 그 얼굴은 전등빛아래 창백하다 못해 퍼렇게 투명한 그집마저 주었다. 성그런 커다란 두눈을 가진 단정한 용모가 그 인상을 더해주는것 같았다.

그가 이 집의 큰 딸 정자였다. 이 집에는 그외에 일본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둘째 딸 순자가 있었다. 순자는 언니와는 정반대로 볼이 빨간 쾌활한 처녀애였다.

나를 보자 순자는 사내애처럼 머리를 꾸벅 하고는 책상을 타고넘어 언니곁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청년들이 거의 다 모였을 때 나는 앉은 자리를 좀 정리하도록 하였다. 키 큰 남자들에게 가리워 뒤편에 앉은 정자나 순자에게 자그마한 칠판의 잔잔한 글이 잘 보이지 않을것 같았기때문이다.

그런데 정자는 뒤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수그리고있는데 그앞에 앉았던 남자들이 가녀으로 비껴났고 키작은 처녀애들이 가운데 앉는것이였다. 그들은 아무 말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였다.

그때 나는 판자책상아래 정자의 무릎을 덮고있는 폭넓은 수건을 보았다.

정자의 용모는 어둡기는 하지만 그렇게도 아름답고 그의 가슴은 젊음이 넘쳐 부풀어올랐는데 그의 허리춤에서부터 아래도리는 무참할 지경으로 알파하고 부피가 없어보였다. 나는 그제야 아무리 빈한한 동포부락이라 하더라도 이 동네에 이 보다 조건이 나은 학습장소가 없는것도 아닌데 하필 이곳에서 청년야학을 하게된 까닭을 비로소 깨달았다. 숨이 막히는듯 한 갑갑함을 그때 나는 느끼고있었다.

금정자는 오사까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나 10개월만에 원인모를 고열로 심히 앓았다. 그후 그는 세살에 접어들면서 하반신이 오그라들기 시작하였다. 소아마비에 걸린것이였다.

전쟁중이어서 병원은 폭격에 거의다 파괴되고 의사도 약품도 없는 형편에서 손 쓸 재주가 없었다 게다가 정자의 아버지는 징용에 걸려 규슈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정자의 어머니는 운신을 못하는 어린 아이를 안고 방공호를 드나들면서 불안스러운 가슴을 달래며 저주로온 전쟁이 끝나기만 기다렸다.

해방후 아버지는 돌아왔으나 징용에서 얻은 병으로 몇해를 함께 살지 못하고 정자와 갓난아이 순자를 남겨놓고 한많은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어머니는 불구로 된 딸을 안고 일본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근근히 세식구의 입에 풀칠을 해왔다.

그들이 일본땅에서 당한 학대와 수모를 무슨 말로 표현하라.

조선사람에 대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일본에서는 조선사람이란 그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임금을 받아야 했으며 박해를 받고 모멸당하여야 하였다. 게다가 불구의 몸이었으니...

별 수단을 다 써서 치료비를 구하여 한가닥 희망을 안고 수술을 했지만 수술은 매번 성공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때마다 다리와 허리에 보기에도 끔찍한 흠자국만 붙어났다.

이것은 소녀기를 벗어나려던 정자에게 도저히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이였다. 절망한 그는 몇번이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들켜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는 자라면서 밝은 하늘을 보는것이 두려운듯 바깥출입을 하지 않게 되였다. 동생 순자가 자전거 뒤 짐받이에 실어주면 목욕이나 가고 가까운 텃밭마공장에나 가서 어머니의 일손을 돕는 외는 바깥에 나가는 일이 없었다.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었다. 다만 어머니가 불쌍해서 살아있을 따름이였다.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가 자기때문에 늙어서까지 말할수 없는 고생을 다해야 할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그는 살지도 못하고 죽을수도 없는 지경에서 밤낮 우울하게 지냈다. 16, 17살의 꽃나이에 그의 얼굴은 피기 하나 없고 웃음을 몰랐다.

정자가 만으로 열일곱살나던 해의 늦가을에 있는일이였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밤 10시가 되기를 기다려 동생이 모는 자전거짐받이에 얹히여 목욕을 갔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목욕탕문을 닫기 직전에 가는것이 이들의 습관으로 되어있었다. 낮에 텃밭마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나면 목욕을 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다.

목욕탕주인의 재촉을 받기전에 그들은 재빨리 목욕을 마치고 목욕탕을 나섰다.

그들이 자전거의 희미한 전등불에 의거하여 비칠거리며 다리로 통하는 울리막길을 오르는데 갑자기

통하는 소리와 함께 어둠속에서 커다란 물건이 튀어나와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 받았다.

가득이나 힘겹게 비칠거리면서 울리막길을 오르던 터라 자전거는 여지없이 나자빠지고 정자는 길바닥에 나딩굴었다. 어둠속에서 왁작하는 망나니들의 환성이 터졌다.

급해맞은 순자는 어쩔바를 몰라 허둥지둥 덤비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순자는 언니를 부축하여 길바닥에 앉혀놓고 자전거를 일으켜세우려고 하는데 머리끝에 피가 솟구쳐 마음만 급했지 뜻대로 되지 않아 그저 씩씩거리기만 하였다.

그런데 다시 어둠속에서 일본말로 《얏은뽕이 조선계집, 얏은뽕이 조선계집, 데굴데굴 굴려서 조선에 가라!》하는 여럿이 합창으로 희롱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참을수 없는 모욕이었다.

순자는 일으키려던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길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손에 잡히는대로 돌맹이를 쥐여다가 어둠을 향해 힘껏 던지고 또 던졌다 나중에는 손가락으로 흙바닥을 파헤쳐 흙을 던졌다. 두 자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튿날 새벽이었다.

새벽잠이 없는 어머니는 잠자리가 썰렁하여 여느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깬다.

늘 곁에서 자는 정자의 잠자리가 비어있었다. 변소에 가는데도 자기나 순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자가 어데 갔을가 하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자 어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부리나케 일어나 부엌문을 확 열어제켰다. 부뚜막에서 달았는지 다락끝에 줄을 매놓고 거기에 정자가 매달려있었다.

어머니는 기급하여 줄을 끊어 내려놓았다. 숨소리는 없으나 아직 몸은 더웠다. 순자를 깨워 의사를 부르러 보내놓고 어머니는 팔이 끊어지라고 정자의 가슴을 누르고 누르고 또 눌러댔다. 입에다 숨을 헐끗 불어넣었다.

날이 희붐할 때 정자는 숨을 내쉬었다.

파랗던 정자의 얼굴은 더욱 파래지고 더욱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숨을 돌린 딸을 부여안고 그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였다.

《이것아, 에미를 두고 너 혼자 죽다니 웬말이냐! 죽을라거든 이 에미부터 먼저 죽여놓고 죽어라야, 응이!》

이러한 정자의 일가에 한가닥 희망의 불빛을 비쳐준것은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의 길이 트일는지도 모른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온 가족은 귀국운동에 떨쳐나섰고 맨 선참으로 귀국할것을 신청하였다. 이리하여 정자는 내가 하는 청년야학에서 배우게 된것이였다.

그는 이 청년야학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사회주의조국에 대하여 배우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배우고 《애국가》와 《내 나라》를 배웠다.

그의 가슴에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재일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이 실현되자 그는 이내 오매에도 그리던 어머니 조국에 귀국하였다.

4

북방도시 청진에도 봄기운은 완연하였다. 한결 부드러운 4월의 해풍은 사람들에게 조국땅을 밟은 기쁨을 더하여주었다.

부두는 꽃과 기발을 든 사람들로 메워지고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동하였다.

사람들은 열광적인 환영속에 배에서 내리면서 누구나 걱정해 휩싸여 말을 못하였다 그들은 뜨거운 눈물로 조국땅을 적시하였다.

귀국자들은 환영군중에게 안기고 목마에 실려 휴게소로 갔다.

정자는 조국에서 준비한 환자유들것에 누워 귀국선을 내리었다. 그는 담요에 얼굴을 묻고 쏟아져내리는 눈물과 북받쳐오르는 걱정예 몸을 내맡기고있었다. 그렇게도 그림던 조국에 와 닿았는데 제 발로 그 조국땅을 디디고 설수 없는 《얏은뽕이》.-

정자는 폭풍같이 일어나는 걱정속에서 자기의 불구된 몸을 저주하였다.

그의 고관절이래 량다리는 제멋대로 거들렁거리었고 말라버린 나무처럼 꺾꽂하였다.

그는 청진에서도 평양으로 가는 렬차칸에서도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따듯이 환영해주는 조국의 혈육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그의 눈은 울어서 툭툭 부었다.

평양에 함께 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희망하는 직장예로, 학교기숙사예로 떠나갔다. 정자는 다시 또 운신할수 없는 병신인 자기를 원망하며 울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귀국자초대소에서 눈물속에 잠겨있던 그들 모녀에게 웬 키가 후리후리한 젊은 사나이가 찾아왔다. 그

의 뒤로 하얀 위생복을 입은 녀성 둘이 이동침대를 밀고 따라들어왔다.

《금정자동무 아니요?》

《?...》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눈이 휘둥그레가지

고 쳐다보는 그들 모녀에게 사나이는 상냥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중앙병원에서 왔습니다.… 생활에 무슨 불편한데는 없습니까?… 자, 저희들하고 함께 갑시다.》

모녀는 불안과 희망이 뒤범벅이 된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정자는 그들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워서 바깥에서 대기하고있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사회주의조국에서는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는 말은 귀국하기전부터 들었으나 과연 어떤 큰 수술이라도, 장기간의 입원치료라도 돈없이 할수 있을가, 일본에서 세번이나 실패한 수술인데 조국에서 과연 성공할수 있겠는가, 가혹한 조국해방전쟁을 겪었는데 병원에 그런 큰 수술을 할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을가.…”

불안은 그들 모녀의 가슴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러나저러나 정자는 평양의 중앙병원의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의사며 간호원들은 모두 친절했다. 특히 의사들은 일본에서의 그 위험넘치고 사람-환자를 물건 취급하듯 하는 그 태도와는 비슷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아주 다정하고 소박하고 흰 위생복만 벗으면 자기들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을

상싶었다.

《이 애가 제 발로 조국땅을 밟게만 된다면 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담당의사를 보고 반 울상이 되어 말하였다.

《예. 힘껏 해보겠습니다. 말겨주십시오.》

의사는 어머니의 훌쩍한 두어깨를 조심스럽게 잡고 쪼글쪼글 쪼그라진 얼굴을 들여다보며 자신있게 말하였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정자의 건강상태와 종래의 치료과정을 대강 료해하고 이것이 여간만 어렵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예측하고 저으기 걱정하고있었다.

정자의 비틀어지고 오그라붙은 발육부전의 다리는 이미 너무나 심한 고질로 되고있었다.

19년간 꼼짝않고있었던 하반신의 근육은 거의 기능이 마비되고 관절이 쇠퇴고정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들 모녀의 가궁한 처지를 생각하고 점점 쌓인 곤난을 뚫고 조국의 품에 안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 진정한 기쁨을 안겨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의사의 가슴은 옥죄이는것만 같았다.

정자의 구체적진찰을 해갈수록 의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입은 무거워졌다. 예측보다 훨씬 어렵

다는것이 명확하게 되었기때문이다.

담당의사의 류달리 짙은 량눈썹은 경련하듯 떨리었고 그아래 우뚝한 눈가에는 얼기설기 잔주름이 얹혀었다.

그는 유리창밖에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아란 하늘아래 우뚝우뚝 솟은 고층건물, 우뚝 솟은 공장굴뚝, 정원에 돌아나는 파릇파릇한 새 잎새… 싱그러운 봄향기가 풍겨오는것 같다.

(이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조국의 품에 모처럼 안기였는데도 그는 영영 청춘을 꽃피우지 못하고 평생 앓은뱅이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는 숨막힐듯 갑갑함을 느끼 었다

(의사란 과연 무엇인가?… 아니다, 이 처녀에게 조국의 대지를 활보하게 해야 한다 그에게 조국땅을 디디고 밝은 웃음을 줘야 할 의무가 우리들 조선의 의료진에게 있다! 아니, 있구말구!)

그는 결심하였다.

그날 병원에서는 정자의 진단결과를 놓고 오래동안 협의가 계속되었다. 담당의사는 자기 결심을 말하고 기어이 고쳐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협의에서는 정자의 다리는 의학적으로는 《병》이 아니기때문에 고칠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담당의사는 환자를 눈앞에 두고 며칠동안 번민하던 끝에 한가지 치료방도를 세웠다. 그는 자기가 생각해낸 치료방도를 제출하고 동료들에게 이 문제를 한번 더 협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의사들은 다시 협의하였다. 의사들도 정자모녀의 처지를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자에게 조국에서의 희망찬 앞날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정자는 근육 및 골정형수술을 받게 되었다.

거들거리는 고관절, 꼬여 오그라붙은 다리… 정자의 하반신은 말이 아니었다.

기형적으로 꼬이고 비틀어지고 말라붙은 다리를 바로잡으며 하반신의 굴신작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술은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것만 같았다.

병원 정형외과의 의사집단은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을 검토하고 토의에 토의를 거듭한 끝에 일정한 가

능성을 타산하였다.

며칠후 정자의 수술은 시작되었다. 팽팽한 긴장속에 수술은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술은 예측한대로 진행되어 성공하였다. 그러나 수술이 예측대로 되었다고 안심할수는 없었다. 수술칼이 닿은 모든 국소마다에 신경이 회복되고 기능이 소생되는가 어떤가 그것이 문제였다.

담당의사는 정자의 침대결에서 떠나지 않았다 담당의사만이 아니었다. 기술부원장을 비롯한 의사들,

간호원들이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정자를 간호하였다.

열흘이 지났다. 여러 사람들의 절절한 념원과 희생적노력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였는지 정자의 발에 감각이 회복되고 발가락이 약간 움직였다. 수술은 성공한 것이었다.

《성공이다.》

누가 웨쳤는지 모른다. 순간 담당의사의 눈이 번뜩이고 다음에는 그 눈에 눈물이 고여올랐다. 간호원들은 걱정이 북받쳐 오열하였다.

의료집단은 불면불휴의 간병으로 지질대로 지쳤으나 누구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말할수 없는 기쁨만이 그들을 감쌌다. 신심과 용기를 얻은 병원의료집단은 첫번째 수술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한 다음 제2차 수술을 단행하였다.

다시 긴장한 장시간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2차 수술도 성공리에 끝났다.

병원의료집단의 극진한 간병은 계속되었다.

침대에 죽은듯이 누운 정자는 마취에서 깨면 아픔을 참지 못하여 심한 신음소리를 내었다. 그의 창백한 이마에 구슬같은 붉은 땀방울이 내뿜고 얼굴 전체가 이그러지군 하였다.

2차수술이 끝난 후 1주일이 지났다.

이때부터 정자의 얼굴에 동통에서 오는 그 이그러지는 표정이 점차 가시여지기 시작하였다.

조국의료일군들의 자기희생적인 노력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수술을 성공시키고야 말았다.

정자의 하반신은 동통이 가시여지면서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정자는 입원한지 석달만에 쌍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있게 되었고 그후 오랜 물리치료를 통하여 거의 정상에 가깝게 하반신의 굴신작용도 회복하게 되었다.

×

《놀라셨겠습니까.》?

정자는 수줍은듯 눈에 미소를 지으며 저쪽 산봉우리쪽으로 돌리고있던 시선을 나에게로 옮기었다.

《놀랐습니다.》

나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대성산의 등산길을 천천히 거닐고있었다. 저 앞쪽에 정자의 남편과 며느리가 걸어가고있는것이 보였다.

나는 새삼스러이 정자의 아래우를 신기하듯 훑어보았다. 아직 흰머리칼이 거의 보이지 않는 파마한 머리가 부드러이 물결치고있는 그 아래에 의젓한

얼굴이 건강함을 말해주듯 빛나고있었다. 눈귀와 입언저리의 잔주름살마저도 점잖은 품격을 더해주는듯 싶었다.

나는 언젠가 정자를 아름답다고 느낀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그때의 그 아름다움과 오늘의 이 아름다움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 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름도 고쳤습니다. 이제는 정순입니다. 호호...》

저주로운 일본에서의 모든것을 지난날의 그 지긋지긋한 절망감과 함께 깨끗이 씻어버리고 조국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선포하는 그의 음성은 명랑하였고 그의 웃음은 밝고 아름다웠다.

조국의 대지의 감촉을 통하여 자신의 오늘의 행복을, 삶의 기쁨을 확인이나 하는듯 한걸음한걸음 정확히 옮겨놓는 정자, 아니 정순의 발걸음에 맞추어 걸으며 나 자신도 조국의 대지의 감촉을 지그시 맛보고있었다.

지금의 이녀인에게서 그 옛날의 투명하리만치 퍼렇던, 행복을 체념한 처녀의 그 음산한 그림자는 찾아볼래도 찾아볼수 없다.

나는 정순의 옆얼굴을 쳐다보면서 다시금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다.

내면에서 피어나는 충족감이라고나 할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한탄하던 지난날의 그 우울함과는 근사하지도 않는 생의 기쁨이 건강한 아름다움이 되어 그의 검실검실한 얼굴에서, 아니 몸전체에서 함뿔 뿜겨나는듯 하였다.

재일동포들의 공화국에로의 귀국이 실현되어 40여년, 당시 10만에 가까운 동포들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소리치는 가운데 귀국하였다. 이 40년의 세월이 흐르는동안 그들은 어머니조국땅에 진정한 삶의 뿌리를 내렸고 수십만으로 늘어 났다.

그런데 오늘 귀국한 동포 2세,3세들과 재일동포2세, 3세, 4세들이 귀국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아니, 재일동포 1세인 나 자신 오늘은 조국에 여러번 다녀 조국의 산천을, 사람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의 그 목마르던 그리움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사회주의조국을 자기의 진정한 조국으로 가지고 있는 참뜻을 깨닫지 못한채 그 혜택만을 누리고있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고있다는것이다.

나는 정순의 발걸음에 맞추어 조국의 귀중함을, 그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듯 한걸음 또 한걸음 조국의 대지를 힘주어 디디었다.

고구려왕자 호동과 락랑공주

여기에 적으려는 고구려의 왕자 호동과 락랑국의 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 고구려왕실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널리 민간에까지 전파되어 여러 세기를 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고무하고 희생성과 용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실머리로 되어온 것이다. 그것은 봉건궁정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간 신비로운 외피를 덮어쓰고 또 모든 것이 봉건궁정에서 결정되는 듯이 얹어져 있으나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고 싸웠으며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문화를 꽃피워나갔는가의 일단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호동의 아버지는 대무신왕이고 어머니는 왕의 둘째왕비인데 그는 곧 고구려의 가까운 나라 갈사국왕의 손녀의 소생이었다.

무신왕은 왕자의 이름을 호동이라고 지었다. 그 뜻은 좋은 아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왕자는 날 때부터 얼굴이 아주 아름답고 영특한 기상이 온몸에 가득차 있었다. 호동은 점점 자라면서 그 뛰어난 천품을 무럭무럭 키워갔다. 그는 이미 고구려사람들이 우수한 전통으로 간직하여오는 생활풍습에 따라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창과 칼을 쓰는 무술훈련을 통하여 몸을 역세게 단련하고 또 다른편으로 글공부를 열심히 하여 식견과 지략을 키워 문무를 겸비하여 나가는 일을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호동은 아버지 국왕과 어머니 그리고 온 궁중의 사랑을 한몸에 모으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때 사람들은 왕실 귀족들이나 일반백성들은 물론하고 장래가 크게 촉망되는 이 청년왕자에 대하여 주목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이처럼 뛰어난 자질이 특히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이게 된 것은 고구려에서 매년 3월 3진날에 진행되는 사냥경기에서였다.

이날 고구려도읍가까이의 락랑덕에서 큰 사냥경기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국왕을 비롯하여 귀족 대관들과 5부의 모든 장병들 그리고

민간의 남녀로소 할것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기서 잡은 짐승과 새들로 하늘과 산천의 신들을 제사지내며 그해의 풍년과 사냥의 풍부한 수확을 빌면서 대중적오락을 벌리는 것이었다. 이 사냥경기가 고구려군사들과 인민들의 무술을 시위하는 하나의 대열병식으로 되었다.

그해는 바로 부왕 대무신왕이 즉위한지 15년, 시조 동명왕이 고구려국을 세운 때로부터 이 나라가 한창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급속히 발전해가는 때였다. 이해 3월 3진날에도 여느 해와 같이 도읍 국내성은 물론이고 부근 여러 고을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락랑덕으로 모여왔고 또 그때 고구려국과 나란히 서있으면서 그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있는 여러 나라들의 국왕, 그 수종인원들도 고구려국의 행사를 참관하기 위하여 와있었다.

이날 아침부터 아직 젊디젊은 청년들과 나이지긋한 중년들, 머리에 흰서리는 내리였으나 고구려무사의 단련된 무술과 씩씩한 기상을 여전히 간직하고있는 로장들이 제각기 뒤질세라 말을 달리고 활을 쏘며 창과 칼을 휘두르는 장쾌한 사냥판이 벌어졌다. 이 산봉우리, 저 산봉우리,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할것없이 사방에서 실사이없이 환성이 오르고 그에 맞추어 용사들의 훌륭한 솜씨를 축하하는 류량한 풍악소리도 계속 되었다. 여기저기에는 사냥한 범, 곰, 산돼지, 사슴, 노루, 토끼, 날짐승 등이 무데기로 쌓이였다.

이러한 장쾌한 사냥판이 한창 벌어지는 가운데서 수많은 군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이날 아침 저들의 폐무리를 잃고 북으로 날아가는 두 마리의 기러기가 까맣게 높이 떠서 처량한 소리를 내면서 락랑덕하늘을 지나가고있었다. 그때 거나하게 취해있던 왕은 흥분된 목소리로 웨쳤다.

《저 기러기를 쏘아라! 누구든지 쏘아라! 너희들의 활숨씨를 좀 보자!》

여기에 모인 내노라 하는 모든 활명수들이

한번 펴구어보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였으나 기러기가 너무 높이 떠서 선뜻 활을 겨누는 사람이 없었다. 금방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왕은 문득 자기의 멋진 솜씨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도 그럴것이 왕은 비록 그때 나이 이미 50이 가까와오지마는 혈기는 젊음 그대로 왕성하였고 이제까지도 수많은 전쟁들에서 자기의 지략과 무용으로써 침입하는 외적들을 몰아내고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여 왔으며 이리하여 그는 이미 무신왕(무의 신이라는 뜻)이라는 칭호를 나라사람들로부터 얻었고 또 많은 사람들도부터도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터이었다. 그는 특히 활쏘기에 뛰어난 명수였다.

왕이 큰 활을 재빨리 집어서 활줄에 화살을 먹이고 막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한 젊은이가 급히 말을 달려 앞으로 나왔다. 그는 다급히 말하기를

《기러기 한마리를 펴구는데 구태여 존귀하신 대왕의 옥체를 수고로이 할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펴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소리가 떨어지기 바쁘게 하늘높이 날아가는 화살소리가 울리고 화살소리 울리자마자 다음순간에는 날으던 기러기 한마리가 왕의 발앞에 와떨어졌다. 왕의 옆에 섰던 시종들과 장군, 시졸들은 이 능란한 활쏘기솜씨에 모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귀신같은 재간을 가지고있는 이 사수가 누구인지 미처 알아볼 사이도 없이 그저 그것이 왕인줄로만 알고 일제히 만세를 높이 불렀다. 이바람에 왕자신도 잠깐 얼떨떨하여져서 그저 설레는 말고삐를 굳이 잡아당기면서 고개만 꺼덕꺼덕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순간에는 이제 방금 짝을 잃고 외로이 날아가던 기러기 한마리가 마저 왕의 수십발자국앞에 와서 터덜씩 떨어지는것이였다. 천지를 진동하는 만세소리가 다시 터져올랐다.

이윽고 사람들의 흥분이 약간 진정되고 두 화살의 주인공이 국왕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또 그 진짜 주인공을 찾느라고 웅성거리였다. 이때에 영특하게 보이는 한 청년장군이 은안장으로 장식한 말을 한걸음 대왕의 앞으로 다가세우면서 공손히 말우에서 허리를 굽히고 말하였다.

《저의 작은 재간으로 오늘 대왕의 흥을 깨뜨리게 하여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또 저의 작은 재간은 다만 기러기 한마리를 썩떨구었을뿐 다른 한마리는 어느 명사수가 펴구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를 보니 그는 바로 대왕의 둘째 아들 호동이였다. 사람들은 틈틈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외모에 홀룡히 어울리는 그 무술을 치하하면서 그것은 다 대왕폐하의 큰 덕과 복에서 오는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둘째 기러기를 떨군 그 명사수는 과연 누구인가를 기다리면서 그 알려지지 않은 주인공이 빨리 대왕의 앞으로 나타나기를 안타까이 기다리였다. 매우 긴장한 시간들이 지나갔다. 그러나 고구려왕실과 장군들중에서는 그 명사수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찾으려고 서로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웅성거리는 가운데 저쪽 가까이 바라보이는 언덕우에 자리잡고 오늘 고구려명절놀이를 참관하고있던 린접 외국손님들중에서 한 국왕의 시종으로 보이는 무장이 고구려왕의 앞으로 말을 달려왔다. 그는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실히 공지를 가진 사람의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죄송하오나 북국의 무신왕(그때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구려왕을 부르고있었다.)에게 아뢰오. 오늘 둘째번 기러기를 떨어뜨린 명사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락랑국의 공주마마로 아뢰오. 1년에 한번 마련되는 고구려의 명절에 저희 락랑사람들이 와서 기러기 한마리를 썩떨금으로써 고구려사람들의 날랜 솜씨를 다 보이지 못하게 하였으니 도리어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또 락랑국의 손님들이 자리잡은 언덕우로 쏠렸다. 거기에는 으리으리하게 위풍을 갖춘 락랑국왕이 많은 시종, 무관들에 둘러싸여 말을 타고 서있었고 왕의 바로 옆에는 어느 무장들과 같이 투구, 갑옷에 말을 타고 활통을 멘 청년녀장군이 서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바로 지금 린근 여러 나라들 사이에 그렇게도 이름을 날리고있는 락랑국의 녀장군 공주라는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우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한것은 뛰어

나게 잘난 그의 인물이었다. 투구들 썼기때문에 그의 얼굴의 전체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이로도 은은히 들여다보이는, 리지로 가득찬듯 한 검은 눈동자, 약간 높으면서 쪽 끝은 코대, 굳게 다문 입술 그리고 온 사냥마당의 시선들이 자기에게 쏠리었다는것을 눈치차려 그러는지 약간 흥조를 띤 그 랑불, 희고 부드러운 살색,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빈틈없이 균형이 잡힌 활달한 몸매, 이 모든것은 과연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선녀를 방불케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것은 그의 뛰어난 활쏘기재간이였다. 얼른 보기에는 그저 끝없이 아름답고 유순하게만 보여 아직 애티를 채 가지지 않은듯 한 소녀의 몸에서 어디에 그와 같이 신기한 재간이 간직되어있는것인가! 사람들속에서는 오직 끝없는 찬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올뿐이였다.

이날 락랑덕의 사냥놀이는 이러한 두 나라 두 젊이 가보지 않겠는가고 묻는것이였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네 락랑국에도 고구려보다는 못할지는 모르나 왕자가 며칠간 유람할만한 곳은 없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은근히 권하였다. 왕자 호동은 원래 락랑국도 언제 한번 가보려던 참이라 속으로 최리왕의 말을 매우 감사히 받아들였다.

고구려왕자는 락랑국왕의 간청을 못이기는 체 하면서 수락하였다.

동원된 인원이 돌아서서 락랑국 도성으로 돌아오는데 좋이 십여일이나 걸리였다. 그때 락랑국의 서쪽은 서해바다에까지 미치고있었다. 돌아오는 행렬에서는 고구려왕자와 락랑공주가 탄 말들이 나란히 나아갔다.

그들은 행군도중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는데 원래 둘이만 하는 이야기라 그 내용들을 알수 없었으나 대개 왕자는 계속 무슨 열변을 토하고 공주는 그 말들을 충분히 수궁이 되는지 조용히 듣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것을 사람들은 볼수 있었다. 그러고보니 그들이 하는 말이란 단순히 사랑에 불타는 청춘남녀들이 남의 눈을 피하여 속삭이는 말들만은 아니였고 어떤 더 큰일을 론의하는것 같기도 하였다.

고구려왕자와 함께 궁중으로 돌아온 락랑국왕은 하루이틀 지난 후에는 왕자 호동을 정식

으로 청하여다가 뜻밖에도 이번 상봉을 좋은 인연으로 고구려와 락랑국 두 나라의 친선과 번영을 위하여 두 왕실의 혼인을 성사시키는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기하는것이였다.

호동은 곧 그 일이야 자기가 감히 먼저 청하지는 못할망정 원래 간절히 원하는바이라고 털어놓고 말하고싶었지만 고구려대국왕자의 체면상 그러지는 못하고 그 당장에는 부왕의 슬하에 있는 사람이라 혼자서 마음대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로써 대답하였다. 그러나 락랑왕의 요청은 매우 간절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며칠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미 장성한 사내대장부가 고국을 멀리 떠난 형편에서 구태여 자그마한 레절에 구애되어 큰 경사를 늦출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였다.

호동은 이미 앞서 돌아오는 과정에 공주와 굳게 약속한바도 있었고 또 다른편으로는 지난 봄 락랑덕 사냥날에 부왕자신이 이 공주의 뛰어난 재주와 인물을 높이 칭찬하던 일이 생각되어 설령 자기의 마음대로 성례를 하더라도 후날에 부왕의 마음에 크게 거슬리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역시 못이기는체 하고 최리왕의 제의를 공손히 받아들였다.

며칠후에는 락랑국 왕궁안에서 이 나라의 모든 왕족들과 귀족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혼례식이 거행되고 락랑공주는 대고구려국의 왕자부인이 되였다.

두 젊은이들이 한껏 행복을 누리고 느낀것은 두말할것 없고 락랑왕과 왕비, 온 궁정이 그들의 무궁한 행복 그리고 고구려와 락랑국 두 나라의 영구한 친선을 위하여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고구려왕자 호동의 출중한 인물, 뛰어난 무예, 활달한 기상이 사위감으로서 그이상 고를수 없는 인물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것이겠지마는 최리왕에게 있어서는 다른 큰 욕심도 없는것이 아니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고구려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여느 나라들처럼 고구려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기를 오래 보존할수 있으리라는것을 타산하였고 일이 더 잘되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하여 오히려 고구려를 누르고 락랑국이 동방나라들가운데서 패권을 잡을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지금 고구려 무신왕은 매우 걸출한 군주이지만 듣건대 그에게는 변변치 못한 해애루라는 맏아들이 있는데 심히 우둔할뿐아니라 아주 사무렵고 분별이 없이 마구 사람을 죽이는것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리탈되고 장차 고구려 왕실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른겠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한다. 특히 해애루는 자기의 이복 동생 호동을 몹시 미워하고있고 호동도 그것을 잘 알고있다.

원래 해애루는 무신왕의 원비 (첫째 왕비)의 소생인데 해애루로 하여 일어나는 고구려 왕궁안의 이러한 갈등은 아버지 무신왕에게도 하나의 우환거리로 되고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락랑국으로 말하면 국력은 아직 걱정이 없고 외동딸 공주는 비록 딸이지만 남자의 몇갑절되는 자질과 뛰어난 인품을 타고났다. 일이 잘되어 호동을 사위로 삼고 그와 또 그의 아버지 무신왕을 잘 설복하여 사위를 자기 나라로 데려다가 락랑국의 왕실을 잇도록 한다면 그것은 락랑국왕실에 있어서 큰 운이 트이는것이고 호동이나 무신왕도 구태여 이를 거절하지는 않을듯 했다. 호동은 락랑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천하미인을 자기의 안해로 삼고 이로 하여 한 나라의 국왕이 될수 있으며 고구려궁정내의 모든 시끄러운 일로부터 벗어나는 큰복을 누리게 될것이 아닌가. 무신왕은 또 그렇게 하여 자기 궁정안 형제간의 칼부림을 미리 막을수 있을것이다. 또 조금 먼 앞날까지 생각한다면 락랑국은 영특한 호동왕의 통솔아래 무한히 번영하는 반면에 고구려는 미련한 해애루왕의 밑에서 기울어지게 됨은 당연하다. 그때에는 동방에서 락랑국이 패권을 잡을것이 뻔했다.

최리왕은 이러한 타산밑에서 이 혼사를 그렇게 서두른것이나 하지만 그는 고구려왕자 호동이나 자기의 친혈육인 공주까지도 벌써 이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있다는것을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고구려왕자 호동은 원래 대고구려국의 높은 궁지를 몸으로 체현하고있는 인물이라 그에게 있어서 간절한 념원은 오직 하나, 빨리 조선 (그것은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래되고 포괄적인

이름이다.) 안의 크고작은 모든 나라들을 대고구려의 산하에 크게 통합하여 국내전쟁이 없는 한울타리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편안히 살고 또 그 단합된 힘으로 외적들의 침해를 영원히 없이 하여 대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큰뜻을 이룩하자는것뿐이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복형인 태자 해애루가 자기를 미워하고있다는것 같은 그런 사소한 일은 원래 관심밖에 있었다. 그는 그런것이 두려워 어떤 작은 나라로 도피하여가서 남의 왕실의 데릴사위가 되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보통사람들이 누리는 따위의 그런 고식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있었다.

락랑공주도 자기 아버지와는 생각이 달랐다.

그는 다만 녀자로서 인물이 출중할뿐아니라 또한 남다른 지혜가 번뜩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녀중의 영걸이었다. 그는 비록 궁궐에서 모든 행복을 다 누리고 자라났으나 다만 안일한 생활에 잠겨있었던것이 아니라 역시 큰뜻을 품고 글공부도 많이 하고 무예도 많이 익혔으니 그 신기한 궁술은 우리가 이미 락랑덕에서 본바와 같다. 그는 어려서부터 벌써 우리 나라 력사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과 녀걸들의 전기들도 많이 읽고 자기도 꼭 그 모범을 따를 작정이였다. 그가 어린 마음에도 무엇보다 한스럽게 여기든것은 고조선후에 적들이 아직 우리 나라의 많은 땅을 그냥 점령하고있고 옛나라의 폐허에서 생긴 작은 나라들은 각기 좁은 테두리안에서 서로 대립하여 싸우기만 하고있으니 적들은 또한 그것을 기회로 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고있는것이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를 하루빨리 없애는 이것이 대체로 공주의 생각이였다. 그런데 공주는 오래도록 모든것을 역시 락랑국중심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지난봄 부왕을 따라 고구려국을 방문하였을 때 고구려뿐아니라 거기 모여온 많은 나라 왕들과 귀족들을 처음 보게 되였고 또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곁에서 들으면서부터는 점차 마음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게 되였다. 이 변화란 다른것이 아니였다.

작은 나라 통치자들이 제가꿈 잘났다고 다투면서 쓸데없이 백성들을 희생시킬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하늘의 의사대로 함께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통일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어 그런 중심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듯이 느끼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고구려 호동왕자를 만나 여러날 함께 동행하는 과정에 그의 이같은 느낌은 아주 확고한 신념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호동왕자가 꾸준히 열변을 토하고 공주도 계속 그에 긍정적으로 대하던 그 나날이 바로 공주의 이 신념을 굳게 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결혼 이후 얼마간 함께 있는 동안에도 둘이 나누는 이야기는 짙은 새정을 속삭이는 신랑신부의 정담인 동시에 천하대세를 논하는 젊은 두 영웅의 정론이기도 하였다.

어느덧 한달이 지났을 때 신랑 호동왕자는 당시 이 나라의 일반풍속대로 일단 자기 집 고구려왕궁으로 돌아갔다가 만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좋은 날을 골라서 공주를 데려가기로 하였다.

왕자가 떠나던 날 락랑왕과 왕비는 그를 바래면서 이제까지 물론 그런 생각을 왕자나 공주에게도 털어놓은 적은 없으나 좌우간 자기들의 새 사위에게 바라고 있는 그런 일이 하루빨리 성취되도록 속으로 하늘에 축원하고 있었다.

공주는 공주대로 남편이 얼른 돌아와서 자기를 데려가고 그 후 두 사람은 고구려국의 위업을 실현하는 과정에 말을 나란히 하고 함께 서쪽으로 료하를 건너고 북으로 혼동강(송화강), 흑수(흑룡강)도 건너며 남으로는 패강(대동강), 아리수(한강) 그리고 멀리 나라의 남쪽 끝 황산장(락동강)까지 이르는 그 나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역시 하늘에 빌고 있었다. 그런데 공주의 마음 다른 한구석에는 어찌된 일인지 혹 그 일이 너무나 벅차고 큰일이 되어 그런지 그런 휘황한 일이 과연 현실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앞서고 우선 떠나가는 왕자를 다시 만나는 날까지도 언제 올는지 아득하게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주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은 다 자기의 지나친 흥분에서 오는 것이라고 자신을 억제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

몇날만에 호동왕자는 고구려왕궁으로 돌아

와서 부왕의 앞에 나아가 그간 수천리 려행에서 얻은 새 수확들을 아뢰이고 겸하여 부왕의 허락없이 락랑국의 공주와 혼인한 사실을 조심조심 말하였다. 그랬더니 부왕은 뜻밖에도 아들의 자유혼인에 대하여는 큰 책망이 없었고 오히려 속으로 기뻐하는 눈치까지도 감추지 않았다.

원래 그때 고구려왕궁에서는 아들의 혼인문제와 같은 작은 문제에 대하여는 가타부타 논하고 있을 형편이 못되었다. 여기서는 이미 새로운 큰일이 시작된 것이다.

그때 고구려국의 무신왕은 고구려 국운이 급속히 퇴위나가는데 비추어 이 기회에 서쪽 침략자들을 멀리 몰아내고 국내통일의 위업을 더욱 촉진하리라는 큰 결심을 채택하고 그 의사를 정부와 5부 귀족, 장군들의 회의에 내려보내었다.

회의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뿐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5부의 대병력은 물론이고 새로 통합된 소국들의 군대며 지금 고구려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웃나라들의 병력까지도 최대한으로 집결 동원하고 초청하기로 하였다.

지원병을 요청하는 고구려왕의 국서는 락랑왕국에도 와닿았다. 최리왕은 역시 귀족, 장군들의 회의를 열고 그 수락여부를 토의하였는데 장군들중에는 더러 고구려는 우리와 친선의 나라이고 또 침략자를 몰아내는 것은 좋은 일인만큼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귀족관료들은 그것을 반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리왕이 꽤 엄숙한 자세로 결론을 하였다.

《우리는 이웃나라 고구려가 하자는대로 그렇게 경솔하게 군대를 동원할 수는 없소. 나는 최근에 고구려왕자를 사위로 삼기까지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두 왕실의 사사로운 문제이고 역시 락랑국은 락랑국, 고구려는 고구려로서 두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우선 서쪽의 침략자들이 결코 그리 만만한 적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니. 만약 우리가 경솔히 그들과 맞서다가 실패하는 날에는 우리 나라가 송두리채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자체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하오. 우리 나라가 아직은 여러면에서 고구려보다 좀 못하나 병력과 경제력이 넉넉히 지탱할수 있는것이고 특히 중요하것은 하늘이 우리를 항상 돌보아주고있다는 사실 을 알아야 하오.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까지도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궁중에는 멀리 몇대를 내려오며 전하는 신비로운 복과 나팔이 있어 적들이 우리 나라로 침입해오면 그 복과 나팔이 먼저 스스로 울어 그 사변을 경고하기마련이네.

이것은 물론 지금까지 한번도 감히 적들이 이 나라로 쳐들어온 일이 없기때문에 실현된 일은 없소. 그러나 그것은 틀림없는 일이네 나는 그것을 확신하오. 이런 신비로운 물건은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소. 이것은 하늘이 항상 우리를 돌보아주고 우리 나라로 하여금 언제나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결국에는 이 나라를 크게 넓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는 단적인 증거네 이렇게 존엄있는 우리 락랑국이 어찌 남의 나라의 속국처럼 행동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리겠소? 고구려에 대한 지원병의 파견은 단연 거절하오!》

거기에 모였던 많은 관료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어 지당한 말씀이라고 찬동하였다.

이때 뒤줄에 앉았던 공주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아직 정식 왕의 후계자로 정해진 일은 없으나 외동딸로서 왕이나 신하들로부터 자연히 떠받드는 후계자와 같이 인정되어왔고 비록 나이는 어려도 그 총명과 무예, 용맹이 온 조정의 문무대신들을 누르는판이라 이런 중대회의에도 늘 참가하여왔고 또 최근에 그가 고구려왕자부인이 된후에도 락랑국에서의 그의 지위는 여전한것이였다.

공주는 정중히 발언을 시작하였다.

《부왕께 아뢰옵기 대단히 죄송하오나 감히 말하옵니다. 물론 우리 락랑국의 위치가 중요하고 자신의 긍지도 가져야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 조선사람들이 오늘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루빨리 외적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큰 통합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각자 모두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를 살려 우리 겨레의 크고작은 나라들이 한데 뭉쳐 적들과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성취하려면 오직 이 길 하나만이 있을뿐입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대관절 한장소가죽으로 만든, 한개 나무막대기로 깎은 나팔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수 있으오리까! 더우기 그 복과 나팔의 소위 령검이란 력사상 한번도 시험되어본적이 없사온데 그것을 믿기에는 너무도 생각되는바가 많다고 아뢰나이다.》

공주의 말 한마디한마디에는 정열이 끓어넘치고 투철한 예지가 번득이였다. 그래도 공주의 열변에서 소가죽, 나무막대기 등 험악한 말들이 련달아 나올 때에 국왕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지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그때부터 국왕의 눈에는 지금까지 손안의 보배로만 보아오던 공주가 이번에는 갑자기 궁중에서 우연히 발견한 고구려의 너첨자로만 보이기 시작하였다. 공주는 부왕에 대한 본의아닌 도발로 하여 일어난 이 비통을 견디여내기 어려웠으나 그로서는 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고구려왕에게 가야 할 락랑국왕의 답장은 그저 묵묵부답일뿐이다.

한편 고구려에서는 대군을 동원하는 원정일정이 순조로이 진행되고있었다. 고구려의 군대와 아직 통합되지 않은 주위의 여러 친선국가들의 군대가 고구려도성을 중심으로 집결되고 그것들은 총사령 고구려 무신왕의 총지휘하에 차례로 서쪽을 향하여 떠나가고있었다. 그 군대총수는 약 5만명이나 되었고 각 부대의 사기는 매우 왕성하였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제일 선참으로 당도해야 하고 또 그러리라고 믿었던 사돈집 락랑국의 군대가 여직껏 아무 소식이 없다. 무신왕은 급히 호동에게 천명의 정예기병을 주어 락랑국으로 가서 그 동맹군까지 련합하여 이 나라 서쪽 국경을 돌아서 아무날까지 료서로 향하는 대부대를 뒤따르라고 명령하였다.

호동의 고구려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불과 며칠 지난후에는 락랑국 수도를 한 10리 밖에 둔 높은 령 저편에 와서 숙영하였다. 래일 아침에는 일찌기 대장 호동이 위풍당당히 부하장령들을 데리고 락랑궁정으로 가서 그들의 출병을 재촉하려고 하는 참이였다.

호동의 심정은 한동안 헤여졌던 공주와 다시

만나 곧 그와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멀리 서쪽으로 장쾌한 원정을 떠나리라는 비길데 없는 큰 행복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런데 또 무슨 운명의 희롱인지 그때 이 부근을 지키고있던 락랑국의 도성방위군 전초병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황겁한 나머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곧 왕궁으로 달려가 정체모를 외국군사 수천명이 바로 코밑에 침입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시에 국왕을 비롯하여 락랑국의 귀족 대관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중에서도 극도로 당황한 최리왕은 무엇보다먼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적병 수만명이 우리 코밑에 와닿았다니! 그 신비로운 북, 신비로운 나팔은 무엇하고있는가?! 빨리 가서 보물고를 헤치고 그 보물들을 알아보라!》

귀족 대관들이 넘어지락 자빠지락 급히 달려가서 보물고를 열어젖혔는데 어찌된 일인가. 천만뜻밖에도 그신비로운 북은 한가운데가 열십자로 찢어졌고 신비로운 나팔은 역시 바로 한가운데가 두동강이 나서 땅바닥에 떨어져 볼썽없이 나뭇굴고있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의 청천벽력이였다. 대관들이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였다.

반실신상태에 있던 왕은 이 보고를 듣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하여졌다. 또 그 다음순간에는 자기 눈앞에 오직 하나 고구려의 《너첩자》가 얼른거리는것을 보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왕의 손에 들린 보검은 《너첩자》의 왼편 어깨로부터 바른편 복부를 향하여 강하게 내려졌다. 《너첩자》는 그만 그 자

리에 쓰러졌다. 그 동작이 어찌나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는지 옆에 있던 많은 시종 무관들도 전혀 손을 쓸 사이가 없었다.

《너첩자》로 보인 그 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락랑공주였다. 자기 딸, 아니 《너첩자》를 내리친 국왕은 다음순간에는 아예 혼수상태로 들어갔다.

이러한 기막힌 참변이 한순간에 벌어진 그 시각에 십여명의 수원들을 데리고 고구려 호동왕자가 현장에 들어섰다. 그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다. 원래 공주는 그간 호동왕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락랑국의 이른바 신비로운 북과 나팔에 대하여는 한번도 이야기한적이 없었다. 공주는 벌써 큰뜻을 품게된 이후로는 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랑 왕자에게 들려주려고도 하지 않은것이였다.

호동은 흥건하게 고인 붉은 피를 깔고 넘어져 아무말이 없는 사랑하는 안해의 가슴에 자기의 온몸을 던지고 그저 울고 또 울었다.

얼마후에 국왕은 소생하였으나 공주는 끝내 가고말았다.

최리왕에게는 이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손안에 쥐여졌던 보배—공주는 허무하게 사라졌고 이 나라의 주권을 넘겨받을 사람도 없어졌다. 자기가 이제까지 해오던 생각, 어떻게 하나 이 나라를 대세의 흐름에서 떼내어보려고 하던 생각,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것이였다는 것을 그는 그제 와서야 깊이 깨닫게 되었던것이다.

다각적묘사시점과 선군시대 전형적성격창조

리국철

문학작품에서 인간과 그의 생활을 감동깊이 보여 준다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묘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특히 묘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고있는 소설창작에서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며 그것을 독자들에게 생동하게 펼쳐보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것은 독자들을 작품의 생활에로 안내해주는 묘사시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놓고볼때 단편소설 《나의 모습》 (송출언작) 은 여기에 일정한 시사를 주고있다.

작품에서 선군시대 전형의 모습이 독자들의 류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는것은 격동적인 현실속에서 발현되는 그의 내면세계를 다각적인 시점에서 깊이있게 그리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창작에서 작가와 인물의 심리를 기본으로 펼쳐나가면서 생활을 묘사하는 수법도 쓸수 있다. 작가와 인물의 심리를 기본으로 하는 형상수법은 인물의 심리적체험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와 작가의 내면독백을 많이 펼쳐놓는 수법이다.》

일반적으로 묘사시점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누구의 눈으로 보고 분석평가하는가 하는 산 인간의 시점으로서 고정불변하지 않고 등장인물의 다양한 관계속에서 끊임없이 변화교차되면서 독자들을 대상의 본질에로 이끌어 가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편소설 《나의 모습》 은 여러 시점인물들을 설정하고 생활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고들으로써 선군시대인간들의 성장과정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고있다.

소설은 쌀로써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처녀제대병사의 모습을 깊이있게 그리고있다. 《고난의 행군》 의 엄혹한 시련을

겪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의 고귀한 피와 땀을 다 바친 석화, 그의 숭고한 녀이 독자들의 가슴에 세찬 걱정외 파도를 일으키는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제기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은 석화가 다양한 인물들의 체험세계속에서 부각되고있기때문이다. 작품은 제대병사 석화의 회생을 계기로 극적체험을 하게 된 그의 동생 석화순과 여러 인물들의 시점을 부단히 교차시킴으로써 혁명적군인정신을 체현한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성격을 다각적으로 밝혀 내고있다.

그러면 기본시점자인 석화순은 어떤 인간인가.

소설에서는 기자인 《나》 의 시점을 통하여 처음으로 석화순이 소개된다.

군소재지의 숙보판에 난 석화순, 이 처녀가 그 석화순이란 말인가. 석화순... 기자인 《나》 의 추억에 새겨진 석화순은 언니의 뒤를 이을 아름다운 꿈을 안고 도에서 농촌에 왔던 처녀였다.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간 그 처녀의 이름을 또다시 숙보판에서 보게 될줄이야... 아니라고 단정했던 한 처녀에 대한 의문이 사라졌을 때 《나》 는 결심한다.

이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자. 어찌보면 난 관앞에 동요했던 자신을 다잡고 더욱 분발하려는 그 자체가 더 아름다운 소행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기자인 《나》 의 시점으로 본 석화순은 시대앞에 지닌 자신의 의무를 저버렸던 처녀이다.

작품은 불미스러운 석화순의 지난날들을 적중한 계기에서 자연스럽게 펼쳐보이기 위한데로부터 객관적시점을 옳바로 설정하고있는바 독자들은 기자인 《나》 의 시점을 통하여 보다 깊은 작품의 세계에 심취된다. 그 깊은 작품의 세계에서 제대병사 석화의 성격적특질은 엄혹한 현실앞에서 드러나는 여러 인물들의 사상정신적립장들을 거쳐 깊이있게 밝혀지고있다.

특히 단련되지 못한 석화순의 사상정신상태는 제대병사의 언니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 제대되어 집으로 돌아온 언니가 농촌으로 단원하겠다고 했을 때 석화순은 어려운 때에 가정을 먼저 지키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달후 언니가 희생됐다는 비보를 받고 그의 묘앞에 섰을 때 사진속에 웃고있는 언니의 모습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더우기 슬픔을 억제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언니의 뒤를이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처럼 오늘 우리 세대인간들이 더우기 언니가 무엇을 위해 것처럼 모진 시련도 뚫고 나갔는가를 깨닫지 못한 석화순이로 하여 하여 작품에서는 제대병사의 숭고한 녀으로 살며 투쟁하는 인간들의 체험세계가 깊이있게 드러나고있다. 그러한 인물들중에 독자들의 눈길을 모으는 인물들은 문일과 어머니이다. 작품에서 문일은 석화순과 직접적인관계를 맺고 그가 엄혹한 현실속에서 극적 체험을 하게 되는 계기마다 자신이 새겨안은 제대병사의 숭고한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수많은 탄원자들의 숙소문제를 놓고 문일은 자체의 힘으로 군대식으로 살림집도 짓고 생활을 꾸려나가려는 제대병사 석화와 충돌한다. 또 그는 생소한 농사일에 힘겨워하는 석화순을 보며 남에게 의존하는데 《버릇불이면 제힘으로 살 궁리를 못한다》고 눈을 부라린 청년으로서 두 인간과 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문일은 제대병사의 숭고한 녀을 가슴에 안고 사는 청년이었다. 바로 그러한 인간이었기에 석화가 희생적으로 구원한 저수지에서 동무들에게 떠나간 동지를 가슴아프게 추억만 할것이 아니라 그의 소원을 현실로 꽃피우자고 절절히 호소하는것이다. 언니의 그 아름다운 꿈을 뜨거움속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현실로 꽃피우는 힘겨운 투쟁은 석화순이에게 자기 힘보다도 남의 힘을 더 믿게 한다.

하여 그는 관리위원장을 찾아간다. 프락포르로 돌을 운반할수 있게 기름을 해결해달라고... 작품은

이러한 석화순을 보는 문일의 시점을 통하여 그어떤 난관도 제힘으로 무조건 뚫고나갔던 제대병사의 그 정신을 감명깊게 부각시키고 있다. 혁명적군인 정신에 접한 석화순이었지만 더더욱 힘겨운 투쟁과 식량난을 이겨내지 못한채 집으로 돌아온다. 작품은 관리위원장과 충돌하고 뛰쳐오는 그의 극적행동을 계기로 문일의 시점을 어머니에게 교차시키면서 죽음도 각오한 그 정신의 원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깊이있게 드러내고 있다. 시련을 겪는 조국앞에 두 딸을 서슴없이 내세운 어머니, 그 딸이 변함없이 값높은 생의 자욱을 새겨가도록 떠밀어주는 어머니이다. 작품에서는 시련앞에서 뒤걸음친 둘째 딸을 질책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적핵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병사시절의 석화가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우리 장군님께서 넘으신 령길에서 새긴 일생의 좌우명, 수령결사옹위인것이다.

이와 같이 작품은 우리시대 전형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한 인간의 성장과정속에서 교차되는 다양한 인물들의 시점을 통하여 밝힘으로써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반면에 다른 일련의 작품들에서는 형상적결함을 보고있다.

련속단편소설 《스물한발의<포성>》에서는 소대장과 력기선수출신의 사관과의 팔씨름장면을 통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힘은 육체적힘이 아니라 바로 혁명적군인정신에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생활의 진실성을 잃고 있다.

또한 단편소설 《나의 모습》에서는 문일의 성격을 생활의 관조자, 전달자로만 형상함으로써 제대병사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받아안은 석화순의 체험세계가 보다 강렬하지 못하다.

그러나 작품은 우리 시대 전형들의 정신세계를 시대적높이에서 깊이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소설문단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다각적시점을 통하여 펼쳐진 우리 시대 전형들의 숭고한 정신세계, 그들이 오른 시대적높이에 서서 독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의 불패의 위력을 뜨겁게 받아안게 되었다.

피눈물진 가락지

박종철

지금 우리집에는 벌써 4대째나 전해오는 가락지가 하나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제는 만든 형식도 고리가 나고 누가 끼여보지도 않아 색조차 변한 수수한 은가락지이다.

가락지라고 하면 흔히 련인들사이에 주고 받는 기념품으로서 세월이 지나면 그 집안의 귀중한 가보로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집에 전해오는 가락지는 가보라고 하기에는 그 이름이 어울리지 않으며 더구나 사랑의 약속으로 마련된 기념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원통하고 억울한 피눈물이 응어리져있다.

나는 그 가락지에 깃든 사연을 아버지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아버지는 또 할머니에게서 들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평생 유복자 하나를 두고 홀로 살아오신 할머니이다. 바로 해방전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피맺힌 원한과 분노의 웨침이며 함성이었다.

그때 할머니는 해주시에 하나밖에 없던 구제병원의 간호부로 있었다. 꽃나이 그시절에 할머니에게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으니 그것은 의창학교에 다니던 한청년과 혼인을 맺고 가락자릴 기념으로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왜놈의 통치하에서 조선사람의 기쁨이란 오래갈수가 없었다.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가차없이 쳐없애버렸던 것이다.

어느날 왜놈들은 의창학교학생들에게 해주알바다에 저들의 구축함이 와있으니 모두 구경을 가라고 선전을 해댔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당국에 내려먹여 조선인학생전원이 배를 타고 구축함이 와있다는 연평도까지 가도록 강요하였다.

여기에는 놈들의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었다. 그것을 알수 없었던 학생들은 강요에 못이겨 바다길에 나섰다. 그가운데는 갓 결혼을 한 나의 할아버지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일줄이야...

학생들이 탄 배가 연평도가까이에 갔을 때였다.

갑자기 섬뒤에서 여러 척의 군함들이 달려나오며 그들의 배를 들이받았다. 순간에 배는 깨여지고 전원이 물에 빠져 들었다. 그러나 불어오는 세찬 바람과 급류하는 썰물, 뒤따르는 어둠이 학생전원을 삼켜버렸다. 배에 탔던 백수명 학생들중 단 한사람도 살아나지 못했다.

세상을 경악케 하는 이 대집단학살만행. 그것은 철두철미 왜놈들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작전을 벌린 것이었다.

당시 해주의창학교라면 반일감정이 매우 높은곳으로 알려져있었다. 바로 이것을 꺼려했던 놈들은 그들 전원을 없애버림으로써 저들을 반대하는 영향력을 그 시초부터 막아보자고 타산했던것이다. 저들을 반대하는 조선사람은 천이든 만이든 가차가 없었다. 일본법률에 복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만 하는것이 당시 조선사람의 처지이고 운명이였다.

이렇게 하고도 왜놈들은 그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후에 시체들이 떠밀려들어 오고 또 멀리 룡지에서 그때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서 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왜놈들은 그것이 배의 사고로 인한것이라고 딱 잡아떼고 저들이 저지른 죄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내비치지 않았다.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나 조선사람들이 일치하게 항의를 들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폭도》니 불온사상이니 하면서 항의에 떨쳐나선 사람들을 무력으로 탄압해나섰다.

이렇게 하여 무참하게 죽어간 150명의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집단학살만행은 별로 소문도 나지 못한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지금 해주시교외의 남산재에 오르면 크지 않은 비석이 하나있다. 《여기에 억울하게 죽어간 의창학교학생 70여명이 묻히여 있노라》라고 쓴 비석의 뒤면에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있다. 그때 조선사람들이 희생된 학생중 시체로 떠밀려온 학생들을 건져다 여기에 합장을 한것이다.

할머니는 그때 비석을 세우는 석공들에게 할아버

지가 남기고 간 가락지를 비용으로 넘겨주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을 길이길이 추억하고싶은 심정에서였을것이다. 그러나 석공들은 그렇게 하는것은 떠나간 사람에 대한 성의가 아니라며 되돌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가락지는 할머니의 손에 다시 들려지게 되었고 가정의 유물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그 가락지를 볼 때마다 나는 연평도앞바다에서 있었던 일제놈들의 학살만행에 대하여 생각하며 몸서리를 치곤 한다. 그것은 다시 해방후에 수천명의 조선인들을 학살한 《우끼시마마루》 호의 폭파사건으로 이어지며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만행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치를 떠다 세상에 포악하고 간사하며 탐욕스럽기로 일본군국주의만 한 나라가 다시 있을가 실로 일제의 조선침략과 근 반세기에 걸치는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을 꼽자면 끝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토록 죄많은 일본반동들이 우리에게 사죄할 대신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을 노리고있는것이다. 미제를 등에 업은 일제는 전패국의 쓰디쓴 교훈도 잊어버리고 전쟁을 합법화하는데로 나아가고있으며 벌써 멀리 인디아양과 페르샤만지역에까지 자기 함선들과 군대를 파견하고있다. 조선침략에 대한 역사를 외곡한 교과서를 빼앗아 교체

로 내돌리며 저들의 후손들에게 침략의 과거를 되풀이하도록 부추기고있다. 얼마전에는 우리 나라의 해상봉쇄를 노린 국제적인 연합훈련까지 벌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가락지를 꺼내 들고 자식들과 마주 앉는다. 우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구 빼앗고 략탈해간 일본군국주의망령들이 되살아나고있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둘수 없으며 기어이 우리 선조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는 다같이 둔덕에 올라 이끼오른 옛 비문을 더듬으며 억울하게 숨져간 령혼들의 이름을 찾는다. 발밑에서는 그날의 사연을 고발하듯 서해바다의 노한 물결이 광광 바위를 두드리고있다.

그렇다. 우리는 결코 그날을 잊지 않을것이며 기어이 복수를 하고야 말것이다. 오늘의 우리는 그때의 조선인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이 계시고 그 어떤 대적도 때려부실수 있는 조선인민군대가 있다. 만약 일제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함부로 머리를 쳐들고 들까본다면 오래동안 가슴에 맺히고 웅어리졌던 원한과 복수의 마음을 담아 천백배의 철추를 내리고야 말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크지 않은 가락지를 우리 집안의 유물로 간직하며 길이 전해가고있다.

가사

사진을 찍자

김석근

혁명의 군복입고 교정을 떠나는
동무들아 우리 함께 사진을 찍자
우리 가는 초소는 서로 달라도
장군님 병사는 어데 가도 한모습
랄랄라 사진에 담자 한모습 담자

금별이 빛나는 영웅동상앞에서
불멸의 녀 새겨안고 사진을 찍자
우리가 설 전호는 서로 달라도
장군님 품속에 청춘을 빛내자

랄랄라 사진에 담자 한모습 담자

선군시대 총을 잡은 자랑도 높이
학창시절 추억하며 사진을 찍자
위훈안고 모교에서 다시 만날 때
장군님 웅위한 영웅이 되어 만나자
랄랄라 사진에 담자 한모습 담자

(평천구역 봉학동 52반)

전국문학축전 입선작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0돛에 즈음하여 조직진행된 전국문학축전에는 1, 179편의 작품이 제출되었다.

이번에 진행된 전국문학축전은 우리 당을 로속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선군령도업적을 형상한 작품을 비롯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고무하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전국문학축전에 입선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소설문학부문

단편소설 **절정** 김진경 조선작가동맹 자강도위원회 작가

단편소설 **땅밑에서 받들다** 김유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단편소설 **가을하늘** 팽문희 평안북도 신의주시 련상2동

△시문학부문

서정시 **우리가 잘 아는분** 김만명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서정시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박세옥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서정시 **선군의 태양** 오영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서정시 **나는 주체사상탑과 이야기한다** 홍철진 문학예술출판사 편집원

서정시 **다시 찾은 이름** 최대국 비전향장기수

서정시 **나의 조국이라 부를 때** 김석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서정시 **묘향산 절경** 오홍심 재일본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 작가

가사 **초소는 병사의 조국** 송찬웅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가사 **내 조국의 숲이여** 정성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가사 **봄빛 푸른 저기 저 언덕** 류동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가사 **조국의 파도여** 홍현양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아동문학부문

단편소설 **아버지 어머니 웃으세요** 최치성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단편소설 **나의 주인 제일이야** 리준길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동화 **동전 한잎** 윤학복 조선작가동맹 량강도위원회 작가

동화극 **선사받은 뿔피리** 홍순모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작가

동시 **민들레와 고사포** 김침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동시 **연피우기** 성연일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작가

유년가사 **춤추는 꽃가방** 박강운 평안북도신의주시 청송동

△평론부문

평론 **선군음악정치와 우리 평론의 지향** 리수립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작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주체93 (2004) 년 8월